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74호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軍신행 책임진 법요집 30년 만에 개정된다

조계종 군종교구 · 국방부 11월 30일 봉정식 봉행

군포교 시스템 정비 출발선
전면 컬러 · 사진 등 현대화
용어풀이 넣어 이해 높여
전시법요 · 경전선집 개발도

법요집 보급 한계 해소
지참 문화 불교계는 없어
내년 3만2천권 보급 계획
"미래포교 일환, 관심을"



〈국군법요집〉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법요집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8년 경 파병부대 내 현대적인 법회의 필요성으로 베트남 파병부대서 연구, 발간됐다. 당시 부대 상황에 맞게 사시불공 중심의 법회의식을 버리고 찬불가와 설법 중심으로 1시간 내 의식이 마무리 되도록 법요집을 구성했다. 파병 군법사들은 현지에서 등사기를 이용해 이 법요집을 만들어 썼으며 귀국 후 그 자료를 국내 군사찰에 배포하며 국군법요집 형식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후 이러한 간소화된 의식의 효율성이 알려지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 설법 및 사홍서원 등 현재 한국불교 사찰의 법회의식이 구성되게 됐다.

60만 국군장병들의 법회를 책임지는 〈국군법요집〉이 30년 만에 전면개정돼 발간된다. 국방부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0일 제49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국군법요집〉 전면개정판을 봉정하고 2018년부터 전국 군법당에 이를 배포한다.

이번 〈국군법요집〉 개정발간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군포교시스템 정비의 첫 시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군법요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과 같은 판형을 유지해 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국군법요집〉 형태가 현대 장병들에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이에 2016년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군승법사와 군종교구 교육국(국장 지운)의 주도로 연구팀이 꾸려져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먼저 우리말 법회의식을 중심에 두고 기존 한문의식문을 참고하도록 변화를 주었으며 전면 컬러에 사진과 디자인을 조화시켜 교리 등을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처음 불교를 접한 청년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각 의식이나 찬불가에 설명을 달고, 불교용어풀이 항목을 책 말미에 넣었다.

이번 법요집 개정발간으로 〈국군법요집〉 보급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요집 보급은 기독교 성경과 찬송가집과 함께 국방부의 종교의식집 발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연간 3~4000권 수준으로 군법당에서는 법요집 보급 확대 필요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전면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군종교구는 연간 2만 권 이상의 책자가 전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법요집 개발TF팀장인 지용 구윤호 군승법사는 "400여 군법당에 총 4만여 권이 넘는 국군법요집이 필요하다. 1월에 1만 6000권, 상반기 중 1만 6000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국군인쇄청에서 현재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용 구윤호 법사는 "성경도 사실 충분한 양이 배포되진 못하고 있지만 워낙 개인이 지참하는 문화가 있어 부족하진 않다. 반면 불교는 여성 민간불자들이 독송용 경전을 지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회의식집 지참 문화가 없어 법요집 보급이 필수"라고 말했다.

일선 군법사들은 이번 국군법요집 발간에 거는 기대가 크다. KCTC과학화훈련단 여범 박상민 군승법사는 "현재 연대급에서는 보통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오며 PPT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법요집 의존도가 낮다. 하지만 GOP나 소초에서는 법요집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법요집은 두껍고, 현대식 법회 진행에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청년 장병들에게는 그림이나 사진이 익숙한데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집중도도 떨어졌다. 이번 법요집 발간은 법회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간 군포교 활동을 해온 이향옥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무국장은 "그동안 군종교구서 법요집을 지원받아 군법당 법회시 활용했지만, 인기가 없었다. 오히려 인기가 많았던 것은 만화로 된 불교안내서였다. 이번 개정판은 사진 등이 활용된다니 기대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법요집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군종교구 측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작업으로 법회의식 연구와 쇄신을 담은 법요의식집 및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종교구 교육국장 지운 스님은 "전투 중 시행되는 각종 불교의식을 정립한 '전시법요집' 및 청년 장병이 함께 공부할 만한 '국군 경전 선집', 출신 재적본사에 따른 다양한 의식을 담은 '기도의 식집' 등이 현재 연구 중인 상황"이라며 "군법회 현대화는 미래포교의 출발선이다. 불교포교 발전을 위해서도 불자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18일 미황사 일원에서 열린 해남 달마산 '달마고도' 개통식에 참가한 여행문화학교 '산책' 구성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여행문화학교 '산책'

땅끝 달마산에 명품 순례 탐방로 열렸다

해남군 18일 '달마고도' 개통… 총 17.74km 둘레길

옛 선인 걸었던 길 그대로 복원
미황사, 도솔암 등 만날 수 있어
'명품 순례길' 입소문 벌써 북적

해남 땅끝에 명품 순례 탐방로 '달마고도'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해남군은 11월 18일 해남 달마산 미황사(주지 금강) 일원에서 달마산 둘레길인 '달마고도' 개통식을 개최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태고의 땅으로 낮달을 찾아 떠나는 구도의 길'을 주제로 개통된 달마고도는 미황사에서 시작해 큰바람재, 노시랑골, 몰고리재 등 달마산 주능선 전체를 아우르는 총 연장 17.74km의 걷기 여행길이다.

'달마고도'는 총 4구간으로 구성된다. 2.71km 거리의 1구간은 미황사에서 큰바람재에 이르는 길로 땅끝 천년 숲 옛길 노선과 연계돼 있다. 미황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순환노선으로 암자터와 문수암터, 너덜겅, 산지습지, 수정굴 등을 거치는 완만한 구간이다.

2구간은 4.37km로 농바위, 문바위골을 거쳐 노시랑길로 이어지며, 소사나무 등 대규모 산림 군락지가 이어지며 달마산 동쪽의 땅끝 해안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2구간에서는 떡갈나무 고목을 비롯해 농바위, 관음봉, 암자터, 미타혈, 금샘, 문바우골, 노시랑골 등이 위치해 있다.

3구간은 5.63km로 노시랑골에서 몰고리재로 이어지며, 노시랑골 옛길, 하숫골 옛길, 웃골재, 노간주 고목, 편백조림지, 웃골, 도시랑골 등 아름다운 경관의 골짜기가 이어진다.

몰고리재에서 미황사로 돌아오는 길인 4구간은 5.03km로 전 구간이 이미 조성돼 있는 땅끝 천년 숲 옛길과 겹치게 되며, 용굴과 도솔암, 편백숲, 암자터와 미황사 부도전 등을 순례할 수 있다.

전체 구간을 걷기 위해서는 6시간 가량이 소요되며, 구간별로 마을이나 거점으로 반환점이 이어져 일부만 걸어볼 수도 있다.

순례길 달마고도에 대해 해남군은 "달마고도 순례길 조성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력으로만 길을 닦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면서 "선인들이 걸었던 옛길을 복원해 달마산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부터 명품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달마고도 트레킹 가이드를 운영해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걷기 여행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포항 지진 성보문화재 피해 추가 확인

문화재청 11월 23일 발표… 용장계 3층석탑 피해도

지난 11월 15일 포항서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사찰 및 성보문화재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영남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총 1,220건(국가지정문화재 243건, 시도지정문화재 등 977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최종 마무리했다"면서 "확인 결과 8건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중 사찰 및 성보문화재 피해는 총 5건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935호)은 석탑축이 변위되는 피해를 입었다. 거동사 대웅전(도유형문화재 제137호)은 소로 부분 이완 및 창방 연결부위의 이격의 피해를, 보경사 서운암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시도유형문화재 제367호)의 보관 장소인 법당 기둥 3개가 균열이 가고 뒤틀리는 피해가 확인됐다.

또한, 기림사 약사전(문화재자료 제252호)는 지진으로 인해 벽체 균열이 생겼으며, 경주 남산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600호)은 3층 옥개석 및 노반이 동북 방향으로 이동됐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8호) 등 15건은 긴급보수비 등 국비지원을 통해 조속히 복구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⑱ 네 마디의 말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 고백

사람의 말에서 아름다움을 느낀 적이 있다. 사람이 인간적이 되었을 때 말도 더불어 인간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길상사가 개원하는 날이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오시고, 덕 높은 여러 스님들이 오셨다. 극락전 앞에 단이 마련되었고, 단 좌우로는 자칭 타칭 내외귀빈들이 앉았다. 나는 마당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극락전 마당 끝에서 까치발을 한 채 단상을 주시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과정을 길게 이야기한 뒤 길상사의 개원을 격려하는 축사를 웅변조로 했다. 한두 분의 축사가 더 이어지자 단하의 사람들이 좀 지루해 했다. 그때 고급요정 대원각을 아무 조건 없이 시주하여 길상사를 개원케 한 김영한 여사가 단에 올랐다. 한복을 입은 여사의 체구는 작았다. 여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서투른 듯했다. 어쩌면 부끄러워서 그런 듯도 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여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불교를 모른다고 고백하는 말이 아름답게 들렸다. 전율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일러스트 · 정윤경

"저는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죄가 많아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년에 귀한 인연으로 제가 일군 이 터에 절이 들어서고 마음속에 부처를 모시게 돼서 한없이 기쁩니다./ 제 소원은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었던 저 팔각정에 종을 달아 힘껏 쳐보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단 네 마디였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불교를 모른다. 나는 부처를 모시게 돼 기쁘다. 나는 힘껏 종을 치고 싶다.' 경내를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가슴을 적셨던 여사의 자기고백과 원(願)이었다.

그때 법정 스님께서는 여사의 목에 염주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길상화란 법명을 주었다. 스님이 여사에게 보답한 것은 그뿐이었다. 길상사가 개원한 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사에게 "1천억 원 대의 재산을 기부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녀는 "재산은 그 사람 백석(白石)의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개원법회 날부터 2년 뒤, 여사는 길상사를 찾아와 "나 죽으면 화장해서 눈 내리는 날 경내에 뿌려주세요"라고 유언하고는 다음 날 눈을 감았다며 당시 주지였던 C스님이 내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하다. C스님은 여사의 소원대로 팔각정에 종을 달아 범종각으로 만들었고, 눈이 내린 날 여사의 유언대로 뼛가루를 경내 뜰에 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시인 백석의 연인이었던 여사는 일제강점기 때 여창가곡과 궁중무 등 가무의 명인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그래서 죄가 많다고 했을까. 그래서 종을 달아 힘껏 쳐보고 싶다고 했을까. 길상화 보살이야말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자기답게 살고 자기답게 죽은 분이 아닐까 싶다.

대사회 신뢰 · 신심 증장 광폭행보 '눈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임기 첫 달 마무리

종단 부실장 인선 미뤄지면서
대내외 결속력 다지는 데 나서
지진 · 세월호 · 무연고자부터
초하루법회 · 예불 참여까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대사회 신뢰와 신심 증장을 위한 보폭을 넓히며 임기 첫 달을 마무리했다. 행정기반을 다지기 위한 부 · 실장 인선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설정 스님은 지난 11월 16일 강진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찰 피해현장을 답사하며 첫 대외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일일이 이재민들의 손을 잡으며 "정부와 국민이 여러분 뒤에 있다"며 용기를 북돋았다. 특히 보경사에서 만난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는 조속한 문화재 복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튿날, 설정 스님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철수를 앞두고 목포신항으로 이동했다. 스님은 세월호 선체 앞에서 미수습자의 귀환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20여 분간 염불했다. 이어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아 위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위로했다. 이에 가족들도 감사인사를 표하며 "스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인사했다.

18일 초하루, 설정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섰다. 대중을 위해 초하루법회 법사로 나선 것. 총무원장이 초하루법회서 대중법문을 한 것은 지관 스님 이후 9년만이었다. 스님은 '인생을 사는 과제'를 주제로 심전경작(心田耕作)을 강조하면서 "밥 팔아 죽 사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굳센 마음으로 마음 밭을 갈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로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한 진모영 불자감독을 만나 신작 '올드마린보이' 흥행을 기원했다. 설정 스님은 사부대중 상영회를 통해 진 감독을 응원하는 한편 "스님들이 중생세계를 이해하고, 세상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화라는 매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 감독과 함께 영화를 보고, 문화발전을 위한 후원금도 전달했다.

설정 스님은 22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서울시립승화원 추모의집을 방문,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한 천도재에 동참했다. 이곳에서 3000여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홈리스행동 · 나눔과나눔 등 사회단체에 격려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23일에는 조계사서 직접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기도 축원을 올리며, 수험생과 가족들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길 기원했다.



무연고 사망자 극락왕생 기도(왼쪽)와 조계사 수능축원(오른쪽) 등 설정 스님이 총무원장 취임 후 종단 내 · 외적으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이 같은 종단 대 · 내외적 행보는 이전 총무원장들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총무원 관계자들은 대사회적 활동에 방점을 찍은 자승 스님과 종단 어른으로서 기품을 보였던 지관 스님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고 말한다. 다만 이와 함께 많은 일정으로 인해 70대 중반인 설정 스님에게 건강상 무리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정 스님은 매일 조계사 아침예불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총무원 아침조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한 관계자는 "종단 수장이 많은 일과를 꼼꼼히 챙기는 것에 종무원들의 피로도가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신 불자들의 신심과 대사회적 신뢰도를 쌓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더 나은 조계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 · 내외 행보도 중요하지만 스님의 연세가 많은 만큼 건강이 걱정된다. 일정을 적절하게 안배해 이 같은 걸음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도로 표지판서 사찰 삭제, 시대 역행"

설정 스님 · 교구본사주지協, 관련 부처에 문제제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천년고찰명을 삭제하는 작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불교계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김종진 문화재청장 예방을 받고, 국토부 등이 추진했던 고속도로 표지판 사찰명 삭제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정 스님은 "외국을 봐도 지역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문화재를 활용한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장려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그런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근 벌어진 표지판 문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역행 정책을 부처 간 합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데 더욱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도로의 핵심을 알리기 위해 이뤄진 것 같다. 표지는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된다.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속도로 표지판 관리지침 개정과 복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는 2003년 고속도로 표지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데 이어 2006년 세계유산마저 도로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했다. 정부 스스로 세계유산을 비롯한 천년고찰보다 사기업 등 영리시설을 더 홍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은 뒤 "이러한 지침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세간에 전통문화 홀대와 종교 편향성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가 국가 제작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알고가'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보전과 계승은 문화관련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장관 이하 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 관련 지침 개정과 더불어 기 철거한 표지판의 복원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사찰 재정 확보 출재가 총지 모으자"

조계종 포교원, 창원지역 불교 활성화 대중공사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7일 마산 정법사에서 지역 불교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대중공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대중공사에는 창원지역 사찰 관계자와 불교대학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중공사는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자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가장 먼저 스님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신도들의 신행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기복적인 불교신행에서 실천하고 삶 속에서 자비행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신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창원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의 창원지역 불교대학 현황과 구룡사 운영 사례에 관한 주제발표에 이어 모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동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가 위기라는 말이 많다. 말세라는 평가가 정법시대라는 평가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모인 불자 개개인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공 스님은 "불교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찰 재정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스님들뿐만 아니라 사찰 신도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기도나 재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출재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공사에서는 스님, 재가자, 종무원 등 다양한 계층별 위기 극복 방안이 모색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호남 · 의성 · 창원지역 대중공사에 이어 강원지역 대중공사 등 지역별 대중공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종교 화합 징검다리 20년… 대사회 사업 확장 추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20년 성과와 향후 비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창립
예술제 등 종교간 화합사업 활동
사회 갈등마다 종교 메시지 전달
11월 24일 기념식 및 음악회 개최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20돌을 맞았다. 불교 · 기독교 · 천주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벽을 허물고 사회 정신적 토대 구축을 목표로 종교간 유대를 증진시켜온 20년이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장 김희중, 이하 종지협)는 11월 24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과 여의도 KBS 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공동대표의장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가 환영사를 전하며 지금보다 더 발전된 종교화합과 대사회역할을 다짐했다.

종지협은 IMF 외환위기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1997년 3월 설립됐다. 국민의 심성 계도, 종교 화합을 통한 21세기 새 시대의 번영 기반 구축을 발원으로 만들어진 종지협은 7대 종교(불교 ·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민족종교)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교연합기구이다. 불교는 제1대(월주 스님)를 시작으로 5대(정대 스님), 6대(법장 스님), 7대(지관 스님), 9 · 10대(자승 스님) 등 총 6번 의장직에 올랐다.

'종교 화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종지협은 종교간 화합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실제 종지협의 첫 행보는 창립 원년인 1997년 9월 개최한 '대한민국종교예술제' 였다. 종교예술제는 음악제 · 미술제 · 영화제 · 학술세미나를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5개 종교가 돌아가며 연달아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예술이라는 연결고리로 종교간 대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 예술제는 2006년, 지관 스님이 7대 의장으로 추대된 이후 지역으로 확장됐다. '종교예술제' 라는 이름으로 서울서만 개최하던 것을 '지역종교 문화행사' 와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로 나눠 곳곳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 축제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종교인 화합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가 시작됐다. 이 순례는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로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터키 등을 거쳐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또한, 종지협은 사회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작은 1997년 12월 '경제위기 극복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였다. 이후 2000년에는 '종교단체환경정책 실천협의회' 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든다는 목적서 시작된 이 활동은 현재까지도 매년 선거때마다 진행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독도 문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대표단이 독도에 격려 방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기원문을 발표했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 의료원을 방문, 1천만원의 위문금도 전달했다.

종지협은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과거 행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한걸음 더 내딛을 계획이다. 특히 사업진행에 있어서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윤리 · 도덕성 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 △통일 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불교 측 종지협 주무부서인 조계종 사회부의 부장 진각 스님은 "한국은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간 화합과 대화는 더욱 중요하다. 이는 미래의 평화를 위한 바탕이 된다"면서 "20년 동안 7대 종교가 한 목소리로 같은 곳을 지향한 것은 종교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종교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 해당 종교 신도들 역시 이를 배워 실천하게 된다"면서 "향후 종지협은 소외계층 등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사회 사업을 전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종지협이 걸어온 20년

1997. 3. 7대 종교 모여 창립
9. 제1회 종교예술제
12. IMF위기 극복 호소문
2000. 1. 환경정책 실천協 발족
2005. 3. 독도 주권침해 기자회견
2010. 11. 연평도 무력도발 성명
2014. 4. 세월호 희생자 기원문
2015. 6. 메르스 의료기관 격려
12. 저출산극복 종교계 선언


2013년 9월 서울 청계광장서 '마음껏 사랑하라' 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서 각 종교 대표들이 기념떡을 함께 자르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선원빈 기자상에 本紙 '이젠 Z세대다'

노덕현 차장, 불교언론문화상 이어 2관왕

"미래세대 전법 논의 기여"
김주일 편집국장 근속상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본지 노덕현 차장〈사진〉의 특별기획 '이제 Z세대 포교다' 가 선정됐다. 노 차장의 기획기사는 앞서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돼 2관왕의 쾌거를 달성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현태, 이하 불기협)는 11월 21일 기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노 차장의 특별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를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의 '쓰레기 없는 행복 세상 만들기' 를 기획보도 부문에, 정준호 BTN 기자의 '분노범죄 불교적 대안은' 을 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젠 Z세대 포교다' 는 불자인구 300만 명 감소 시대를 맞아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SNS가 생활화된 10~20대인 이른바 'Z세대' 의 포교방안을 모색한 시의적절한 기사"라면서 "조계종 포교원 내 미디어전법팀 구성 논의가 이뤄지는 등 미래세대 전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수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기자상에서는 취재보도 부문 8편, 기획 · 해설 부문 5편 등 모두 13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위원회에는 최정희 前 현대불교신문 이사, 김관규 동국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에 앞서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원우)는 11월 7일 회의를 열고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을 근속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5층 더부페에서 개최된다.

신성민 기자

포항지진 피해 위로 종교계 앞장

후원금 모연 · 생필품 지원 등
이재민 돕는 데 발 벗고 나서

포항 강진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고자 불교 등 종교계가 발벗고 나섰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1월 23일(재)아름다운동행에 지진피해 복구 및 구호성금 2000만원을 기탁하고, 생수 1만5천병과 간식류 등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지현 스님은 "더 일찍 성금을 전달했어야 하는데 신도들이 십시일반 구호성금 모으길 원해 조금 늦어졌다. 이제라도 이재민들에게 전해져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0일 '포항 지진 위로서한' 을 내고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뤄져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길 기원한다"며 "포항지역에 더욱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종단의 신도분들이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19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태고종 사찰을 방문하고, 종도들의 위문 성금을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 측은 지진으로 인해 포항 법주사, 금강사, 청정심원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편백운 스님은 피해 부분을 직접 살펴보고, 주지스님들을 위로하면서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20일부터 시작된 승려연수교육에서 지진 피해 지역 돕기 성금을 접수, 추가로 피해 사찰을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NGO 더프라미스와 함께 흥해실내체육관에 상담부스를 설치, 재난 트라우마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오전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긴급구호단은 불국사,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지역 사찰 및 단체와 연계해 구호지원 부스를 설치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재난은 물질적인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상처를 보듬고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구호물품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주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구호지원부스를 설치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동국대 부속유치원 '50대 유치원' 선정

교육부 주최 사업서 성과

동국대 부속 유치원(원장 김혜순)이 전국 50대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육부가 주최한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 유치원 선정사업' 에서 동국대 부속 유치원이 우수 유치원으로 선정됐다"고 11월 17일 밝혔다.

교육부의 '전국 50대 교육과정 우수유치원 선정사업' 은 누리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특성과 유치원 고유의 교육철학이 잘 융합된 우수 교육 과정을 선발 · 발굴하는 사업이다. 전국 9000여 곳의 국공립 · 사립 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에서 동국대 부속유치원은 교육과정 계획, 실행, 평가 등 지표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순 동국대 부속 유치원장(유아교육학과장)은 "50대 유치원 선정은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의 교육과정의 질적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라며 "교육기관으로서 동국대 유아교육과, 불교아동보육학과 등 관련 학과가 뛰어난 현장기관으로 함께 평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수행의 문턱에서 서로 위로하고 탁마를 함께하실 도반의 인연이 없고, 어느 종단에 이 한 몸을 의지해야 할지 망설이시는 분! 또는 발심출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 출가는 했는데 은사와의 인연이 박복하신 분! 도첩이나 호계첩이 없는 분! 여법한 각종의식 진행방법을 모르는 분! 등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덕목을 저희 종단에서 교육하고 지도하여 정법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총무원장 성곡 지운

사단법인 대한불교선재종

● 총본산 : 무등산 미륵사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 부 설 : 사찰음식전문점 수자타
● 총무원 : 광주광역시 동구 동산길7번길 5-11
전 화 062)234-9834 | 팩 스 062)223-9233
핸드폰 010-4152-4744, 010-5479-5607



일 주 문



문화훈장 옥관 수상

성파 통도사 방장직무대행 스님은 11월 21일 국립현대미술관서 2017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훈장 옥관을 받았다.



송년 내비둬콘서트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오후 7시 금산사 화림선원서 '2017년 송년 내비둬콘서트'를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2월 3일까지 제8회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모범 불청인 시상식

김성권 (사)대한불교청년회장은 12월 2~3일 전주 수현사에서 '2017 모범 불청인 시상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공무원불자 사회봉사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9일 서울 금천구립 사랑채 요양원에서 '제15차 사회봉사의 날'을 실시한다.

상임감찰 기원·조사과장 보선

연등회 사무국장엔 법웅 스님



기원 스님



보선 스님



법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22일 호법부 상임감찰에 기원 스님, 조사과장에 보선 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법웅 스님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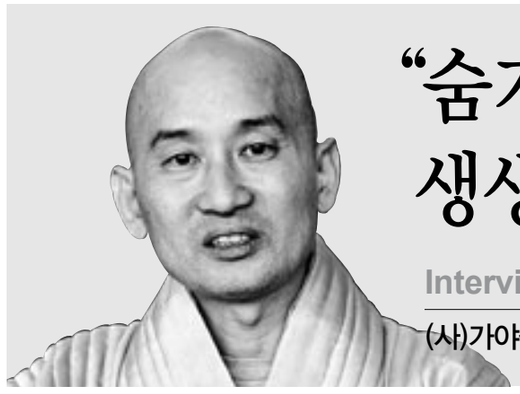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종단 종무직 소임자는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열정을 갖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감찰 기원 스님은 행돈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원사 동국제일선원, 승가사 제일선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사과장 보선 스님은 세영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상원사 용문선원서 안거 수행했다.

연등회보존위 사무국장 법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2000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화엄사 선등선원, 신흥사 향성선원, 해인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숨겨진 가야불교 숨결, 생생하게 느끼도록 전달"

Interview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인해 스님

"4년 전 선지식 법문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법문 내용에 김해지역 이야기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기 48년 허황옥이 인도에서 장유화상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해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연기 사찰이 건립된 내용을 스님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11월 25일 김해 바라밀선원에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이사장으로 취임한 인해 스님<사진>은 처음 가야불교문화를 생각했던 4년 전을 떠올리며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답했다.

"김해에 계신 스님들과 함께 공부를 이어가고 학술대회도 열며 가야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야사 복원이란 국정사업을 발표하셨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것이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가야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해 스님은 가야불교를 널리 알리는 한편, 김해지역 불교가 하나 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발원했다. 이를 위해 스님

4년 전 부터 가야불교 연구

가야지역 구심점 역할 담당

보존·전승 위한 학술대회

"진실성 알려 대중과 호흡"

은 김해를 넘어 창원, 부산, 하동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출범식을 맞아 고문과 자문 스님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 하동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성주사암연합회장 정도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동서 화합에 앞장설 뿐 아니라 가야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거점지로 활동할 것입니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주요사업은 △가야문화·역사·인물 바로알기 체험 및 교육 △전통생활문화 보존·보급 △지역사회발전 △문화유산 연구·발굴·보존·보호와 선양 △가야불교문화 시설·유적·유물 복원 및 관리 진흥 △복지시설지원·장학사업·문화예술인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및 행사 주관 후원 △언론출판 등이다.

인해 스님은 이 중에서도 학술대회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개최해 가야문화 발굴에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가야불교는 아직 열지 않은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지금 김해지역에는 '가야'가 원형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불교문화의 진실성을 반드시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놀라운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해 스님은 "가야불교가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고 실체를 부정한다"며 "지금까지 전승돼온 수많은 이야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가야문화라는 진정한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김해 여여정사에서 '구지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법등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참회대법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어 가야불교 발굴에 앞장서 왔다. 하성미 기자

"어린이 인성교육으로 전법을"

제4대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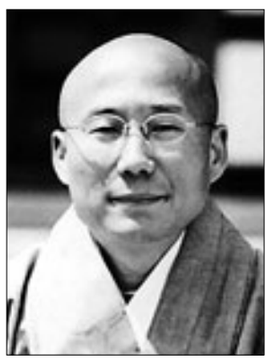
제4대 동련 이사장으로 창원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11월 25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제6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입재식에서 취임한 스님의 취임 일성은 새로운 어린이 포교였다.

신공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며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동련 내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정비에 역주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불교 활동과 함께 어린이 불자상을 정립하고 불교 전문가들간의 교육, 활동 네트워크 구성과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만이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동련의 전국조직으로의



11월 25일 경주 황룡원서 취임

눈높이 맞는 다양한 교육 시사

네트워크 활성화도 약속했다. 현재 동련은 전국단위 어린이 포교단체지만 영남지역 회장단 구성 및 사무국 존재로 지역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스님은 "전국 조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며 "지역별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각 지역의 어린이 포교의 어려움을 경청해 함께 문제를 돌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공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7년 동국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다. 특히 마산 정법사와 서울 법장사에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를 지내며 그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후 2006년 창원 구룡사에서 주지로 있으며 2009년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고 활성화 시켰다. 2009년 동련 이사로 취임 후 2014년부터 동련 상임이사를 맡아 살림을 챙겨왔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불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미래 불교의 씨앗"이라며 "사찰에서 어린 불자들의 소리가 즐겁게 울려퍼지도록 모두 함께 힘차게 전법 포교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法 홍포·외호 역할해달라"

설정 스님, 本紙 사장단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에 불법 홍포와 외호 역할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한 본지 사장 혜도 스님과 박종수 사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1980년대 수덕사 주지 시절, 방장 혜암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본지 설립자 대행 스님과의 인연담을 풀어놓았다.

설정 스님은 "대행 스님은 혜암 스님에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여쭸다. 그러자 혜암 스님께서는 '현금(現今)을 보라'고 하셨다"면서 "이후로 대행 스님이 다시 수덕사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열반에 들어 안타까웠다"고 술회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본지가 교계신문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선양하고, 대행 스님이 주창한 인간성 발현과 자성을 밝히는 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혜도 스님과 박종수 사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정진하겠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또 "불교를 욕되게 하고, 불자들을 괴롭히는 세간의 일에 교계신문이 나서 진실한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처님 법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정문 스님, 홍보국장 효신 스님과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 신성민 취재부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19대 총동문회장 여연 스님 선출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명)는 11월 2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7 해인승가상을 선정·시상했다. 이날 보광 스님(부산 전등사 회주)이 해인승가대상에 선정됐으며, 해인승가상은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 주지)·일관 스님(남양주 봉선사 주지)·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이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윤봉택 거사(제주 서귀포불교대학장)·이성국 거사(서울 양천구의회 의원)가 선정됐다. 또한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강진 백련사 회주 여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재)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는 올해 장학승 34명에게 총 2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Fact Check Q&A
'불교 명상의 A~Z'

'자기 반추' 명상의 근본 목적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명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휴식'과 '욜로' 열풍과 맞물려 명상 열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불교 내에서는 불교가 빠진 명상은 허상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팩트체크에서는 '명상'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점을 해소해 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명상이란?

명상은 '자신과 대상에 대한 관찰과 이해, 자각과 집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명상의 바탕이 되는 자각은 '깨어 있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는 행위나 말, 내 머리와 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생각, 느낌 등을 관찰하고 아는 것을 말한다.

실제 우리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간다. 명상은 우리가 매일 이 순간에 머물게 해 수많은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명상 붐은 왜 일어 났나?

명상 붐은 2000년대 초반 일어난 '힐링' 열풍과 맥을 함께 한다. 명상이 삶과 사회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서구사회에서부터다. 다양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명상을 통해 능력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며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가' '국선도' 등 몸과 결합한 프로그램, '마음치유' '코칭' '마인드케어' 등 심리치료와 자기계발을 합한 프로그램, 아로마 테라피나 음악 및 미술을 결합한 치료프로그램, 음식과 결합한 프로그램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은 명상 열풍의 단면을 보여준다.

불교 명상의 현주소는?

불교명상의 경우 1970년대 인도 요가수행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월명상 등으로 소개됐지만 1980년대 간화선의 대중화가 시작되며 한국불교의 명상법 연구가 본격화됐다. 1990년대에는 위빠사나 수행의 보급이 가속화되며 위기에 처한다.

위빠사나 확산으로 간화선과의 논쟁이 폭발했고, 이와 함께 간화선 대중화의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2000년대 간화선은 명상으로 발전했고, 많은 현대적 적용과 함께 명상 붐을 이끌고 있다.

불교 명상은 신비체험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신비체험이 아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동기나 사연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고 명상을 시작한다. 주변의 사람들이 명상으로 마음이 편해지거나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효과를 보고 그 효과를 보기 위해 명상을 접한다.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 바로 그 효과를 본인이 정한 기간에 느끼지 못하면 명상 수행이 중단되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명상수행으로 인한 우월감을 느끼길 원한다. 타인의 명상 수행 이력에 관심을 보이고, 본인보다 기간이 긴 사람에게는 경의를, 짧은 이에게는 우월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혹은 명상을 신비체험화해 밝은 빛을 보았다든가,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 속에 있는 느낌을 느꼈다든가, 몸의 뚜렷한 변화를 보았다든가 하는 등을 듣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목표를 둔다.

여기서도 이러한 신비체험이 성취가 되며 이런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거나 명상을 그만두게 된다.

명상은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인생을 크게 바꾸는 것은 나 자신을, 마음을 바꾸는 것에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다.

명상나눔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은 "명상을 대할 때는 지나친 세속적 목적보다는 명상수행이 지향하는 목적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불교 명상의 심신치유 효과는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이 지니는 다양한 효과에 기대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한마디로 명상은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1980년대 이후 명상이 질병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적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명상 수련 방법 중 하나인 사마타 수련은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과 몸의 안정에 이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명상의 이완반응으로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를 보이며, 뇌활동이 전반적으로 이완되며 안정화되지만 주의집중과 유쾌한 정서활동을 관장하는 뇌부위는 오히려 각성된다는 것이다.

신경과학자인 데이비슨 박사는 우울이나 불안이 심한 환자에게는 마음챙김 명상을 시키면 부정적 정서가 긍정적 정서로 바뀌는지를 실험했고, 이 증거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독일 신경과학자들이 명상을 통해 뇌부위 기능이 개선돼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됨을 입증했다.

이밖에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토니야 제이콥 박사팀의 연구결과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는 인간 수명을 담당하는 텔로미어의 단축을 저지시킴을 드러냈다. 이 결과 명상이 텔로미어의 단축을 저지시키는 텔로메라제 효소의 활성을 30% 가량을 높인다고 결론지었다.

심리치료에는 보다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장현갑 교수는 〈한국심리학회지〉에 기고한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개발'에서 10여 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결과 불안과 우울 공황 등 심리적 증세가 개선됐고, 일반 성인들도 강박감과 적개심 등 부정적 정서가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와 불교문화연구원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팀은 2016년 '심신치유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 세미나에서도 그 효과를 밝힌 바 있다.

불교 명상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

대표적인 불교계 명상단체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를 들 수 있다. 회원 단체로는 금강선원(혜거 스님), 동사섭 행복마을(용타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인경 스님), 하트스마일명상연구회(미산 스님), 자비선명상원(지운 스님), 행불선원(월호 스님), 상담이 있는 명상 가피명상(적경 스님), 자비명상(마가 스님), 참불선원(각산 스님), 은유와 마음연구소(명법 스님), 통담아카데미아(선업 스님), 명상수행학교 행복수업(혜봉 오상목), 명상의집 '자애'(김재성), 성철선사상연구원(박희승), 한국MBSR연구소(안희영), 위빠사나붓다선원(김열권), 보리수선원(붓다락키따 스님), 나루명상센터(혜량 스님) 등이 활동하고 있다.

명상 강좌는 협회 홈페이지(www.kamto.net)에서 각 단체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도 불교명상지도자 과정을 운영 중이다. 불교명상지도자 과정은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로 다양한 불교 명성 이론과 수행법을 익히고 이를 포교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요한 점은 명상과 상담을 가미한 교육과정으로 이뤄져있다는 점이다. 강좌는 불교상담원 홈페이지(www.kbcd.org)를 참조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12월 7일),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 과정(12월 11일) 공개강좌



주임교수 爽廈(석하) 소재학 박사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박사 1호, 명리학자(공식전공 사주명리학박사 1호)
한국 동양미래예측학회 회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제8하원정미래학회 회장, 한국성명작명학회 회장, 세종로국정포럼 미래창책위원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행복포럼 자문위원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동양미래위원장, 국제미래학회 동양미래학 위원장
4차 산업혁명포럼 고문, SERI 미래예측포럼 고문, 한국청컨협회 미래정책위원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Main biz) 자문위원, 아시아문화정제진흥원 자문위원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충남유족회 자문위원,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한국자연치유학회 감사 및 교육이사, 서울신문 STV 고문 및 기업 투자 경영 자문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역임,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성공과 실패의 시기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MBN 황금알, 채널A 아빠본색, 부동산 TV 풍수야 놀자, MBC, SBS, TVN 외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6기
때를 찾는 지혜, 불확실성의 시대, 동양의 미래예측학, 과학역학(易學), 현대 사주명리학 최종마스터 과정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CEO, 관리자, 역학관심자, 미래학 관심자

•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왕초보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게는 총정리하는 필살기, 왕초보자에게는 단기간에 나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단기 속성과정입니다.
• 수업기간 : 2학기 33주+ 완성, 통합 등록금 430만원, 성공과 실패의 시기 찾을 수 있는 능력 배양시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공짝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법, 누구나 존재하는 10년주기 인생 사계절 '석하리듬' 분석법 마스터
• 일반 CEO 과정처럼 성공담 듣고 교양 놀이고 인맥 쌓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미래, 때를 찾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 근거 없는 비법들을 무조건 암기하기보다 음양오행, 십간십이지,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부터 공부합니다.(유투브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 황금알 263회 속설 검증 참조)
사주학 관련 모든 이론의 원리공부를 통해 동양미래예측학으로서의 사주명리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를 마스터 하는 유일무이한 최고위과정입니다.
•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난 성격적성 분석법, 이유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공짝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 마스터
• 1학기 15주+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 관련 교양, 수상학(손금), 주역(周易), 오행(五行) 건강법 및 선천 성격적성,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외, 등록금 240만원
2학기 심화과정(현대사주석하명리 최고지도자 과정 제2기) 별도 수강 가능(월 18:30~21:00),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수강자 소재학 교수 평생 사주 상담
1학기 수료시 : 동국대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수료증 및 명리 진로적성상담사 2급자격증(소정의 절차후), 2학기 수료시 동국대GFCA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수료증 및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및 특강교수 : 신기원 교수, 백인 교수, 정창근 교수, 박청화 교수, 유래웅 교수, 노승우 교수, 조규문 교수, 김민재 교수, 문봉 박재범 교수, 양성모 교수, 이영탁 전 장관, 조석준 전 기상청장, 양종승 박사 외

* 공개강좌 : 12월 7일(목) 18:00~21:00 동국대 문화관 4층 초허당 세미나실 * 수업 : 12월 14일 부터 매주 목(木) 18:30~21:00 * GFCA사무국 : 02)3443-4984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지도자과정 제3기
대한민국 풍수지리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대한민국 최고의 풍수지리(風水地理) 및 생활관상 전문가, 최고지도자 양성과정
<주임교수 소재학 박사, 지도교수 최명우 박사, 정경연 박사, 담임교수 최병용 박사, 전임교수 노승우 박사, 세준 스님 직강>
양택풍수, 음택풍수, 이기풍수, 형기풍수, 현공풍수, 삼합풍수, 비보풍수, 도시풍수, 부동산풍수, 인테리어 풍수, 기(氣) 풍수, 릴리안 투 풍수 등 풍수지리 종합 마스터 과정
좋은 자리 및 좋은 터 찾는 법, 좋은 장자리, 좋은 책상자리, 생기(生氣)가 흐르는 좋은 곳과 살기(殺氣)가 흐르는 곳 찾는 방법, 생기를 끌어오고 살기를 피하는 법, 수맥 찾고 수맥파 차단하는 법, 엘로드 사용법의 허와 실, 제대로 된 엘로드 사용법, 복부르는 관상, 돈 되는 관상, 관상 궁합, 성형관상, 사업 관상, 1학기 15주, 2학기 33주+ 과정, 등록금 390만원, 풍수지리 및 관상 왕초보부터 전문가까지, CEO, 관리자, 부동산 관계자, 풍수지리 관계자, 수강자 살비 풍수감정 및 소재학 교수 평생 사주상담

* 공개강좌 : 12월 11일(월) 18:00~21:00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 세미나실 * 수업 : 12월 18일 부터 매주 월(月) 18:30~21:30 * GFCA사무국 : 02)3443-4984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한국불교학회 불교와 4차산업 큰잔치 열린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동국대 석좌교수)
“인간 욕구 조절 중요, 불교 가치 재인식”



박기열 금강대 교수
“불교 연기 기반, 새 시대 윤리 제공”



지혜경 연세대 교수
“빈부격차 속 평등성 회복에 힘써야”



강형철 동국대 교수
“새로운 전법 포교 방법론 연구해야”

· 국내외 50여 석학 운집
· 전문 논문 26편 선 뵈
개 회 식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본관 중강당

한국불교학회(학회장 성운스님)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동국대 본관중강당, 만해관과 다향관에서 ‘불교와 4차산업’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Iot 및 스마트시티 기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 등 4차산업 기술 전반에 대한 불교사상적 접근이 시도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50여 석학이 참여하는 대형 세미나로 마련된다. 불교와 4차 산업 기술과의 접합점을 모색하는 전문 논문만도 26편에 달한다.

이에 앞서 본지는 신성민 취재부장의 사회 아래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강형철 동국대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박기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지혜경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하는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정리=노덕현 · 박진형 기자

사회자: 한국불교학회에서 올해 총 5차에 걸쳐 4차산업과 불교를 주제로 워크샵을 열고, 이번 국제학술대회도 준비 중입니다. 사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불자 개개인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기열 | 일반불자들은 ‘4차 산업’에 대해 감이 안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네 일상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업계에서 4차 산업 분야는 없으면 안 될 정도다.

스마트폰을 보면 바로 4차 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하는 금융결제, 온라인 쇼핑 등이 모두 4차 산업 기술에 근간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계해 집안의 냉장고, 온도조절 등을 하고, 각종 정보를 스마트폰 내 인공지능이 제공해준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의 편리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하는 고도화된 기술이 생활 속에서 점차 선보이며 체감될 것이다.

사회자: 4차산업이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강형철 | 가장 먼저 경제, 산업에서의 변화가 시작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좁혀질 것이다. 무인 운송수단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각 가정에서 자동으로 소비재가 주문되는 시스템 등이다. 옛날에는 거리에 가스등 켜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기등이 나오며 모두 없어졌다. 이처럼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또 생길 것이다.

지혜경 |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기술은 자본가들에게 집중되고 쌍방향 소통을 말하지만 실제는 생산자가 만든 프레임에 갖힐 것으로 예상된다. 평등성의 회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

사회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불교가 일종의 평형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차 산업 시대 불교는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을까요?

성운 스님 | 농경사회에서 1차 산업이 생성될 때 엄청난 변화가 왔다. 2차와 3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으며 우리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4차산업도 결국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한 욕구에서 이런 발전이 이뤄졌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미 4차산업 기술이 상용화되는 상황에서 불교계는 이 행복 추구의 욕구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 되어도 인간 욕망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기술이 개발돼도 욕망 속의 인간은 불행할 것이다. 불교가 이런 사회에서 ‘연기’에 기반한 불교적 철학과 사상을 제공해야 한다.

박기열 | 스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시스템, 딥러닝 등 4차 산업 기술의 개념은 연기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4차 산업 시대의 사상, 철학적 근거를 불교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불교교리를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가상현실이 보편화되는 4차 산업서는 물리적 존재와 가상적 존재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과도 통한다. 클라우드 시스템도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순간적으로 계속하며 소통하는 구조다.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불교 연기이다.

지혜경 | 불교서는 실재를 보라고 한다. 가상현실 세계에서 무엇을 보라는지 하나의 메시지를 준다. 로봇 부품을 이식하여 신체변형이 난다면 기독교계에서는 반대하지만 인간 중심의 불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하나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이해에 대한 단초를 불교사상이 제시할 것이다.

사회자: 기술 발전과 더불어 윤리관이나 가치관이 함께 발전하면 좋겠지만, 인류사를 상기해보면 그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가상현실 부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영역은 게임, 성인물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운 스님 | 4차 산업 시대 우리의 대처는 맞춤형으로 가야한다. 무상과 연기 등 불교 사상을 업그레이드 해서 이를 바탕으로 천수천안 보살과 같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현재의 기술개발과 활용에 따른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이다. 멀리는 로봇과 인류가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생의 이고득락이란 불교사상에 기반한 근거를 불교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기열 | 4차산업의 역기능을 제어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적 제한이며, 두 번째는 기술적 보완이다. 세 번째는 인식의 변화이며 끝으로 새 윤리 형성을 들 수 있다. 불교의 연기를 바탕으로 4차 산업시대에는 이에 맞는 새 윤리가 형성돼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불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현재 인문학계에서 불교학이 4차 산업을 선도 하고 있다. 이어질 인문과학의 4차산업 접근에서 불교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자: 불교전법과 수행에도 4차산업 혁명은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만 해도 전세계에서 몇 명이 나와 같은 수행을 하고 함께 상담하는 명상 앱이 나온 상태입니다. 불교 전통중 하나인 안거만 해도 굳이 모여서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불교 내 변화를 전망하신다면?

지혜경 | 온라인 법당이 늘어나는 것만큼 개별적으로 법회에 참여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다. 지금은 화면으로 보지만, VR이 보급되면 더 생동감있고 입체적으로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람은 온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체 모임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온라인 상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리적 거리가 사라지지만 직접 보는 것과 화면상으로 대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다.

박기열 | 가까이 본다면 4차 산업 기술은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사천왕이 직접 나오고, 부처님이 나투셔서 법문을 하신다면 재미있을 것이다.

흥미 유발은 불교 포교의 첫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불교의 문화재들을 가보지 않고 실제처럼 차용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성운 스님 | 로봇이 법문하는 시대도 올 것이다. AI(인공지능)는 데이터화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도 없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0주 보살의 경지다. 해인사 가지 않고도 해인사 법회에 참여할 수 있고, 성보를 볼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온다. 각 가정집에서도 사찰에 간 것과 같이 법회를 볼 수 있다.

가까이 올 변화만 보더라도 사찰에서 4차 산업을 통한 편리성을 전법 포교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불자들이 이 분야를 응용하기에 달려 있다.

강형철 | 안거의 가치가 더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소 각자 수행을 하다 모여서 함께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박기열 |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고도화된 가상현실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다. 미래에 완벽한 가상현실은 실제와 똑같이 느끼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행모임과 법회에 참여할 때 그 시공간을 똑같이 느끼는 가상현실 기술이 나온다면 공동수행 문화도 변화할 것이다.

사회자: 불교계가 4차 산업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 | 4차 산업기술을 불교계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가장 먼저 성스러운 수행공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여기에 있지만 해인사에 안거에 참여하고 있다는 같은 느낌 받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연기, 오온, 사성제 등 불교교리를 눈 앞에서 보여주며 설명할 수 있다. 부처님이 하신 대기설법과 같이 현대인에 맞는 상황에 따른 불교적 해법을 펼쳐 보일 수 있다. 끝으로 불교학에서도 큰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불교미술, 유식, 중관 등을 총괄하는 하나의 지식체인 아카이브가 구축되면 입체적인 기반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성운 스님 | 교수님이 말씀했듯 각 가정이 선방이 되고, 사찰을 가정에 가져올 수 있다면 전국민이 수행하는 날도 올 것이다. 승려 입장에서 본다면 일생을 참선하는 이도 자기 스스로를 모른다. 자율체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지 AI가 점검 할 수 있다.

사회자: 그만큼 기술 수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계는 이런 기술 개발에서 어떻게 선점해 나가야 할 까요?

성운 스님 | 불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종단 지도자나 대중들이 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대해 빠르게 인식해야 한다. 먼저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불교계 연구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 분야에 불을 지피는데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

종단과 사부대중이 4차 산업시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교적 연기사상 만이 해결 할 수 있다. 기술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인간이 쓰게 된다. 우리 불교는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이를 불교적으로, 대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이러한 방법과 기술을 함께 연구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사회자: 끝으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런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불교계의 방향을 엿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불자분들이 이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성운 스님 | 4차 산업이라는 현재에 와서 우리 불교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민감하게 교감할 단계다. 1,2,3차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경제 성장 있었다. 그때 활용 못해 반도체도 못했다면 우리나라 1조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1차산업, 3차까지 잘 지나왔다. 현재 한국의 미래를 위해 눈떠야한다. 불교와 4차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미래의 한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대장정의 시작이 바로 이번 학술대회다. 우리는 빗장을 약간 여는 역할이라고 본다. 이 빗장을 통해 세계를 향한 불교 되길 바란다.



한국불교학회가 개최하는 불교와 4차산업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이를 주최하는 학회장 성운 스님, 연구교수들과 사회를 맡은 신성민 취재부장이 본지 좌담회의실에서 토론하고 있다.

“불교율동가 마음, 어루만지는 계기”

60회 맞은 불레협 겨울강습회

12월 2일 국제선센터서 개최
운영난 극복 후 첫 행사 주목
마음치유 프로그램 눈길 끌어


2017 불레협 59회 여름강습회서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지도자들.

겨울 방학 동안 일선 포교사들과 어린이법회 지도자, 학교 선생님들에게 불교사상이 담긴 율동 등을 전해 온 불교레크리에이션 협회의 겨울강습회가 60회를 맞는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노휴, 이하 불레협)는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국제선센터 교육문화관에서 제60회 겨울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불레협은 불교를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1985년 창립된 단체로 32년 동안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법회 지도자 교육과 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양성, 그리고 연꽃 노래잔치와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 등을 개최하며 다양한 문화포교 활동을 하며 전법에 앞장 서왔다. 그동안 겨울 강습회에서 배출한 어린이법회 지도자만도 6000여 명으로 강습회 이후 전문과정을 밟아 전문지도자가 된 이들이 500여 명에 달한다.

불레협은 불교계에서 오래된 단체지만 어려움도 많았다. 그동안 회장 스님과 인연있는 부회장단이 임원진으로 구성돼 협회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2년간 회장 공석으로 인한 재정난과 겹치며 올해 초 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 직영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 2월부터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이 회장을 맡게 됐으며,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시킨 상태다.

어려움을 극복한 만큼 행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동안 레크리에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행사도 60회에서는 마음수행과 상담이 도입되는 것이다.

‘我! 我! 토닥임’으로 이름붙여진 만큼 이번 강습회에서는 특히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이 평소에 느꼈던 어려운 점을 서로 공유하고 다시금 원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주목했다.

4번째 강의로 배정된 미술치료는 단순히 미술기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참가 지도자들이 스스로를 치료받는 시간이다.

이수민 신나는 세상 대표가 레크리에이션 지도자들의 그림을 보며 분석하며 지도자들도 서로의 그림을 보며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다. 주변사람들의 심리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음힐링, 찬불가 공연 등으로 새롭게 충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사 특강으로는 행불선원 월호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서 참가 지도자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자리도 열린다.

이다연 불레협 문화포교팀장은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 폭행, 폭언 등이 이슈가 되며 점차 지도자들이 처하는 어려움도 많은 상황”이라며 “지도자들이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함께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나눔 실천가, 대한민국 숨은 영웅”

제 19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12월 7일 종로서 개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설정스님)이 12월 7일 오후 1시30분 종로 부암동 AW컨벤션센터서 ‘제19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 한국불교자비나눔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1부에는 불교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불교복지 총량 분석을 통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 방안’ 불교사회복지포럼이 열린다. 이어 △2부 자비나눔 힐링콘서트 ‘더나눔’ △3부 자비나눔 기념대법회 △4부 만찬으로 진행된다. 특히 3부 대법회서는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 및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치사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의장 등 정 · 관계 인사의 축사 후에는 이날 재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가수 변진섭등이 나선다.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의 불교사회복지 현장서 자비나눔이라는 공통의 소임을 통해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이웃들을 따듯하게 돌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불교사회복지현장서 삶의 온도를 높여가는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인 자비나눔 실천가들을 응원해 달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주요 교계, 정계인사와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사 양성

불교상담개발원, 11월 29일 특화과정 진행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디지털 중독(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종교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디지털 과의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올해 7월 10명을 한국정보화진흥원 종교계 스마트쉼 예방교육 강사로 위촉한 바 있다.

교육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공통과정이 진행됐으며, 29일 특화과정이 나눠 진행된다. 대상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어린이 · 청소년법회 지도법사 및 불교계 디지털 중독 예방 전문가로 디지털 과의존 예방 문화를 이끌 지도자이다.

공통과정에서는 △디지털 과의존의 동향 및 국가정책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 △미디어와 일상 △게임 · SNS 중독의 이해 △성인 · 부모 대상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육방법 △효과적인 교육방법론 등이 진행됐다. 특화과정은 △디지털 과의존 예방 워크숍 △명상을 통한 과의존 예방 교육 △불교계 디지털 과의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시연으로 운영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늘어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중독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불교계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관련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일산병원에 새 법당 개원

포교원장 지홍 스님 “자비심 발현을”



11월 20일 일산병원에 조계종 불교법당이 개원했다.

일산지역 포교의 새 기반이 만들어졌다. 조계종은 11월 20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법당을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고양시사암연합회 원로 도원 스님, 병원전법단장 도원 스님,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인 스님, 이상석 일산병원 행정부원장, 전홍원 고양시불교신도회장 등 100여 대중이 동참했다.

병원 지하2층에 위치한 일산병원 법당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에게나 개방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정기법회가 열린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병원전법단이 불우환우돕기 성금으로 500만원을 일산병원 측에 전달했다.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지인 스님(고양 기쁨정사 주지)은 “이 법당이 마련되기까지 8년간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병원을 찾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처님 법향이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중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부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 법당 종사자들과 봉사자, 스님 등이 자비심으로 환우를 보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판교의 문화는 불교복지가 책임진다

판교노인복, 복합 문화축제 개최

어르신들 작품 전시 · 공연
여러세대 참여로 어우러져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명희)은 11월 30일까지 ‘2017 판교 깊은 가을 문화살롱’이란 주제로 가을 문화축제를 연다.

사회복지법인 ‘봉은’이 수탁 운영하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의 국내 최대 규모로 8월 29일 건립됐다.

이번 문화축제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 전시 및 공연으로 점차 높아가는 노년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세대의 참여로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축제서는 총 10팀이 경연을 통해 노래 솜씨를 뽐내며 경찰 가수 '폴리스리'의 진행으로 8명의 초대가수가 함께 하는 가요무대가 열린다. 또 토크 콘서트 형식의 도예 작품 전시와 폴라로이드 사진 인화,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 등 미술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요가 시연과 한국 무용, 난타 등의 건강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어르신이 직접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 아코디언, 장구 등의 음악 무대가 예정돼 있다.

이명희 판교노인종합복지관장은 “다양한 어르신들이 자신과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문화 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즐기는 노년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배움과 행동으로 문화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로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여성개발원, 제8차 여성불자 108인 선정

11월 24일 17주년 기념식 및 선정기념식 개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여성개발원 17주년 및 제8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03년부터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격년제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8차 여성 불자108인은 경제 · 교육연구 · 보건의료 · 언론출판 · 정치 · 교계단체 · 자원봉사 · 포교신행 · 문화예술 · 사회단체 · 사회복지 · 연예분야에서 총 91명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박재숙 라온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선희 케어 대표이사 등 경제계 인사들과 송혜진 국악방송 사장, 김도연 동국대 교수, 안기순 무량감로회 부회장, 이원표 봉은사 신도회 사무총장 등이 선정됐다.

방송인 이익선 씨(5차 여성불자 108인)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니르바나 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치사, 류지영 19대 국회의원(6차 여성불자 108인)의 축사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

지극한 信心, 바위산을 불국토로 만들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㉑ 낙양의 용문석굴



용문석굴을 대표하는 '대노사나상감', 일명 '봉선사동'의 모습. 폭 약33m, 깊이 약40m, 높이 약35m의 대작으로 주존 대노사나불은 크기 약17m이고 귀의 길이만 해도 일반 성인의 키 보다 크다. 당 황실의 발원으로 조성됐으며, 주존의 모습이 당시 황후였던 측천무후를 모델로 했다는 속설이 전해진다.

거대한 바위산, 불심(佛心)은 바위를 파 집을 짓게 했다. 산자락은 벌집처럼 크고 작은 굴로 가득 찼다. 석굴은 동서 양쪽 산자락에 1,352군데를 헤아리게 했다. 불상은 대소 약 14만 기 이상이다. 석굴 조성에 따른 조상기(造像記)도 많이 남아 있다. 불상은 아미타불이 2백기 이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미륵불, 지장보살, 약사여래 등의 순서로 많다. 낙양(洛陽, 뤄양)의 용문(龍門, 룽먼)석굴을 두고 일컫는 것이다.

1988년 이래 나는 용문석굴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입구까지 평지여서 자동차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갈 때 마다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 낙양은 인근 서안(西安)과 함께 중국 관광 1번지라 할 수 있다.

어느 해 봄인가, 낙양에 갔다. 도시 곳곳이 모란꽃으로 가득했다. 낙양시의 상징 꽃이 모란이라 했다. 모란이라면 바로 부귀영화의 상징이 아닌가. 조선시대 말기의 많고도 많은 화조화 가운데 제일 많이 그려진 꽃이 바로 모란이었다. 모란 병풍은 왕실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사랑을 받았다. 주로 결혼식 때 배경으로 모란병풍을 사용했지만, 더러 장례식 때도 사용했다. 모란 꽃밭 낙양, 나는 낙양을 거닐면서 선덕여왕의 모란꽃 일화를 생각했다.

당나라 황제가 신라의 여왕에게 보냈다는 모란 그림과 꽃씨.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었다. 씨를 심었으나 꽃에 향기가 없었다고 했다. 선덕여왕은 이를 보고 당 나라 황제가 여왕이면서 독신인 자신을 야유한 것으로 이해했다. 모란에 나비를 그리지 않아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나비는 80세를 의미하는 단어의 발음과 같아 모란과 나비는 함께 그리지 않는다. 100세 시대를 미리 예견했나 보다. 사실 향기 없는 꽃은 없다. 중국과 선덕여왕의 독화(讀畵) 코드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아무튼 낙양은 모란의 도시이다. 그렇다면, 낙양은 부귀의 도시인가.

낙양은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도(古都)이다. 북쪽에 북망산이 있고, 여기에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서 '북망산 간다'라고 하면 죽음을 의미했다. 북망산 너머에 황하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실크로드와 겹쳐진다. 용문석굴은 당나라 수도 장안(長安) 곁의 낙양에 있다. 낙양의 문화적 위상은 '낙양의 종이 값'이라는 말로 짐작할 수 있다. 낙양의 종이 값은 베스트셀러 책을 의미한다. 제지술을 완성한 채륜이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이다. 두 말할 필요조차 없이 인류문명 발달사에서 종이의 역할은 위대했다. 이집트 나일 강변의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는 엄격한 의미의 종이가 아니다. 비록 영어의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라 해도, 펄프의 종이는 아니다. 유럽지역보다 거의 1천년이나 앞서 만들었던 동북아시아의 종이, 이런 종이를 만들었던 지역이 낙양이었다는 점, 흥미롭다.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채륜의 본래 직업은 환관(宦官) 즉 내시였다. 부부생활을 할 수 없었던 환관의 종이 발명이라는 사실은 자못 흥미롭다. 외롭고도 긴 밤의 결과물일까. 중국 역사상, 역사를 움직인 2명의 환관이 있다. 하나는 채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화(鄭和)이다. 그는 아프리카 등 바다를 누빈 항해술의 대탐험가였다.

낙양에 백마사(白馬寺)가 있다. 중국 최초의 사원으로 알려졌다. 낙양불교라는 말을 연상하게 한다. 낙양에서 남쪽으로 12km 쯤의 이하(伊河) 산자락에 용문석굴이 있다. 용문은 운강, 막고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로 유명하다.

육조의 북위(386~536) 시대부터 약 4백년간 조성했다. 물론 용문석굴은 당 시대인 7세기에 절정을 이룬 바, 특히 125년간(630~755) 황금기를 누렸다. 그러니까 용문석굴의 30%는 북위시대 조성이라면, 60% 정도는 당 시대의 것이다. 7세기 후반 당 시대의 불교조각은 화려한 꽃을 피웠다. 고종과 측천무후(則天武后)를 비롯 왕실 등의 적극 지원도 한몫했다. 그야말로 화려한 당 문화의 시대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조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용문석굴도 그런 사례의 하나였다.

고양동(古陽洞) 석굴은 용문석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숫자와 더불어 내용도 풍요롭다. 높이 11m 정도의 이 석굴은 효문제가 조성한 것으로 삼존불상을 봉안했다. 방형대좌에 앉은 석가모니불이 주존이다. 여기에 조상기(造像記)가 있고, 공양인 행렬도 있는데, 황실로부터 관리, 승려 등 다양하다. 시주를 한 공양인의 모습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빈양동(賓陽洞) 석굴은 원래 310척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다.

양 산자락에 1352곳 석굴 조성
불상 14만기 이상 봉안된 聖地
당 황실 발원한 '봉선사동' 유명
주존 모델 측천무후라는 속설도
신라 승려 수행했던 석굴 존재

하지만 6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도 겨우 23장(丈) 정도의 공사 진척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난공사였다. 그러니까 용문석굴의 바위는 운강석굴과 비교하여 견고한 석질이었음을 알려준다. 운강보다 공사하기 어려웠던 용문. 그러나 아름다움은 운강보다 위에 있으면 있지, 떨어지지 않는다. 불심의 결과인가. 어쩌면 시대정신의 결합인가. 바위산을 파 석굴 조성하기. 용문석굴을 거닐면서 새삼 음미하게 된다.

용문석굴의 대표작은 정식명칭으로 '대노사나상감(大盧舍那像龕)'이다. 일반적으로 봉선사동(奉先寺洞)이라고 부른다. 규모는 폭 약33m, 깊이 약40m, 높이 약35m이다. 주존 대노사나불은 크기 약17m이고 귀의 길이만 해도 성인의 키 보다 크다. 거대한 불상이다. 불경스런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매우 아름다운 얼굴이다. 중국의 비너스라고 극찬해도 괜찮을까. 어쩌면 그토록 불상의 상호가 아름다운 여성과 같을까. 동그란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러면서도 단아하고도 밝은 표정은 눈길을 뗄 수 없게 한다. '미스 당(唐)'을 모델로 했을까.

현종(玄宗) 시절 722년에 새긴 기록은 흥미롭다. 대당 고종 황제가 창건한 것으로 '함형 3년 임신년 4월 1일 황후 무씨가 지분전 2만관을 희사했고, 칙령을 받들어 대봉선사를 완공했다(675)는 것. 그러니까 봉선사동은 측천무후의 지분전 즉 화장품 구입비 (물경 2만관!) 시주로 당대 최고의 고승과 장인들이 참여하여 3년 만에 건립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 내용의 신뢰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황실 발원이라는 점은 사실인 것 같다. 거기다 측천무후와 관련도 그렇다.

봉선사동 주존불의 여성적 상호. 그렇지 않아도 실제 모델이 측천무후라는 속설도 있다. 무측천은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여성 황제였다. 사생활이 드라마 보다 더 극적인 여걸이기도 했다. 정말 봉선사동 본존상은 바로 측천무후를 모델로 했을까. 방액광두(方額廣頭)했다는 인상과 비슷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근거는 없다.

측천무후라는 여걸. 그는 무씨(武氏) 집안 출신으로 신심 깊은 불자였다. 권력을 잡은 그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불교를 활용했다. 도교를 제치고 불교를 국교처럼 높였다. 여성 천하제일, 하지만 이는 중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대 '사건'이었다.

측천무후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제(女帝) 출현을 예언하는 저술도 나왔다. 대표적 저술이 〈대운경소(大雲經疏)〉이다. 스타인 수집 영국 박물관 소장의 위 책에 의하면, 측천무후는 미륵의 화신이라고 떠받들어 있다. 찬탈한 권력에 대한 정당성 논리의 확보였다. 미륵하생이라, 이는 엄청난 의미 부여였다. 여황제에 대한 불교식 논리 제공이었다. 고려 말 궁예가 자신을 미륵이라고 자칭했던 일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미륵은 희망의 미래불이지 않은가.

그러면서 측천무후는 〈화엄경〉을 중시 여겼고, 또 화엄종의 비중을 높였다. 이에 화엄경 번역 등 법장(法藏) 스님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권력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했다. 화엄종은 측천무후의 몰락과 더불어 시들었는 바, 시사하는 바 크다.

봉선사동에 대한 언급이 너무 길었다. 아무리 용문석굴의 대표격 걸작이라 해도 그렇다. 아니, 그렇지 않다. 당 시대의 불교와 더불어 불교미술의 발전상은 어떤 시각에서 보아도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미술의 흥성기. 이는 여러모로 연구의 대상이 된다. 당 문화는 신라문화와도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토함산 석굴암을 염두에 두게 하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나는 용문석굴을 거닌다. 갈 때 마다 꼭 들리는 조그만 석굴이 있다. 바로 신라 수행승의 집이다. 거기 석굴 머리에 문패(?)가 있다. 바로 '신라상감(新羅像龕)'이다.

신라상감은 놀라움의 현장이다. 경선사(敬善寺) 남쪽 길 부근에 위치한 조그만 굴이다. 높이 1.9m이지만 폭과 깊이 역시 비슷하다. 이 굴의 위에 '신라상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측천무후 시기 전후의 작품으로 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라의 어떤 유학승이 이곳에 와 석굴을 파고 수행했을까.

하기야 〈왕오천축국전〉의 혜초 스님 등 몇몇 신라 스님이 이 지역에서 살기도 했다. 물론 숱한 신라 승려들이 당 유학을 체험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용문석굴에서도 수행했을 것이다. 또 그런 가운데 누구는 적극적으로 석굴을 만들어 자신의 발원을 담아냈을 것이다.

신라상감! 거룩한 공간이다. 조그만 석굴 안에 내 몸을 구겨 넣어보려다 불경스러운 것 같아 그만 두었다. 대신 삼배를 했다. 불행한 것은 석굴 전면에 삼존상 흔적은 있으나, 현재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누가 부조상을 훔쳐 갔을까. 아쉽다. 용문석굴은 신라 수행승 이외 사마르칸트를 비롯해 다수의 외국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이웃과 나누는 한마음 음악회 꽃이 핍니다

안양아트센터에서 2017. 12. 17(일) 오후 3시, 오후7시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스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꽃을 피우려 합니다.
맑은 소리는 꽃향기가 되고 싱그런 열매를 맺으니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나눔의 자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최·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주관·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후원·천주교 수아비스 합창단, 안양사암연합 합창단, 한마음선법합창단 후원회 문의 : 한마음선원 사무처 031-470-3100

“물질적 부자 아닌 심리적 부자 추구해야”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유’ 주제 학술연찬회

소유는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삶의 욕구다. 하지만,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많이 가지면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적게 소유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소유를 정견(正見)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를 주제로 제1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소유를 심리학적 관점서 분석한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소유의 심리적 의미’였다.

권 교수는 소유가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무수한 심리적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소유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욕망은 삶을 기본적인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과도할 경우 자신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욕구임을 전제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심(貪瞋痴)의 구조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탐욕(貪)을 지닌 사람은 과도한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타인과 갈등하며 격렬한 분노(瞋)를 경험한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탐욕의 충족 과정이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痴)에 바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교수는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임을 되짚으며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그는 “소유는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면서 “돈과 재물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의 실현에 대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즉, 많이 벌어 많이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가치를 위해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스님의 말처럼 ‘풍요로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정신이 깨어있어야 한다”면서 “소유에 의해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소유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물질적 부자가 아닌 ‘심리적 부자’가 될 것을 대중들에게 제언했다. 그는 물질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추구는 행복을 훼손한다는 긍정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며, “심리적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 심리적 재산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과 인생에서 마음껏 채광할 수 있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심리적 부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현재 한국불교 수행자들의 소유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고찰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황금연 동국대 교수는 ‘선가의 존재와 소유’를 통해 출가 수행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소유와 무소유의 문제를 고찰했다. 그는 선가의 수행자라 할 지라도 삶의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현대 사회에서 출가 수행자가 보다 소유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양질의 외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사찰과 교구별로, 나아가서는 종단적으로 수행자를 위한 고른 복지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수행자가 누구나 물질의 소유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고, 수행과 전법에만 매진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논문들은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밝은사람들총서 12) 제하의 도서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밝은사람들연구소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은 11월 18일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를 주제로 제16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권석만, ‘소유’ 심리학적 접근
물질적 소유는 한계점 분명해
‘긍정’, 행복 위한 심리적 재산

초기불교 · 禪 등 관점서 고찰도
“수행자 대한 양질 외호 필요”

“가야불교, 융 · 복합적 연구로 실증 필요”

‘가야불교 재조명’ 세미나서 장재진 동명대 교수 주장



가야불교는 사학계에서는 실증되지 않는 역사이다. 특히 가야불교와 허황후의 도래에 대해서는 설화를 역사로 확장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진위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가야불교에 대해 융 · 복합적 연구로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재진 동명대 교수〈사진〉는 11월 18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가야불교문화 재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가야불교문화, 역사적 이미지와 현황’에서 가야불교를 둘러싸고 이뤄진 저간의 논쟁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가야불교와 허황후, 아요다야라는 이름을 전제로 확인되는 것들에 대해 ‘설화를 역사로 둔갑시켰다’는 강단 사학계의 비판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사학계는 사료나 유적, 유물이 없으면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패망한 나라나 소멸한 문화는 구술로 전해지더라도 전적으로 부정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의 부족을 전제로 형성된 과장된 논리가 가야불교 연구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가야불교를 ‘융 · 복합적 방법론’을 통해 실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가 제안한 융 · 복합적 방법론은 △사관(史觀) 규정 및 인접학문서 사관 보완 △언어학적인 고찰 △현대 과학기술을 통한 실증 등이다.

그는 “특정한 사관과 역사적 방법론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종교학 · 신화학 등 인접학문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대는 근현대적 언어적 기술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언어적 고찰이 이뤄져야 한다. 문화사와 종교사 그리고 지리적 용어의 변천사 등을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와 대적했던 트로이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최소 수천년간 이어진 10개의 왕국이었음을 밝힌 과학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방법의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가야문화와 가야불교문화 그리고 허황후의 도래에 대해 최신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이날 학술대회서는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와 전래처 검토(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아시아 해양 문화교류와 불교전파(석길암 동국대 교수) △가야불교 논쟁의 실체와 비판적 검토(윤종갑 동아대) △북발 루투의 관점에서 본 아요디야(한지연 금강대) △전설의 아유타를 찾아서-서역 사료로 새롭게 조명해 본 가야사(한대성 동국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종단, ‘젠더파트너십’ 공동체 돼야”

옥복연 소장, 11월 24일 불광연구원 연찬회서

한국불교가 깨달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젠더파트너십’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사진〉은 11월 24일 불광연구원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발전을 이끈 우바이들의 삶과 신행’을 주제로 개최한 제34차 학술연찬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옥 소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불교 여성불자의 현실에 대해 “감소화 · 고령화 · 냉담화라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의 원인에 대해 옥 소장은 “여성불자들은 불교교리는 성평등하지만 종법이 성차별적이고, 교단이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분화된 성역할로 순종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여성상을 강요당해왔다. 사회도 변하고, 여성도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 또한 변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단적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옥 소장은 “성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깨달음 지지하고 지원하는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젠더파트너십’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한다”면서 “사찰 내 이분화된 성역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법과 제도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 조직에 비구니 지도자와 여성상급자를 양성하기 위해 여성할당제 · 성별영향평가사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제시 등 성주류화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조승미 서울불교대학원 대학 강사가 ‘초기불교의 재가여성들: 후원자, 수행자, 전법자로서의 역할과 힘’을,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가 ‘근현대 여성불교 운동단체와 그 주역’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실상화 윤용숙의 삶과 나눔불사’를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 공모

‘불교 현대화 · 국제화’ 주제 내년 1월 2일~2월 28일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불교 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세계화를 위한 연구 논문과 저작을 발굴하기 위한 제9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한다.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서양사상 관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동양사상 관점서 본 불교사상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학술상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 희망자는 지원서를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를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된다.

교수 저술상은 1000만 원, 논문상은 700만 원이며, 비전임교수 논문상은 500만 원이 수여된다. 석 · 박사 과정 금상은 300만원, 은상은 250만원, 동상은 200만원이 주워진다.

심사는 내년 4월 중에 이뤄지며, 시상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깨달음 논쟁 마무리할 겨울 워크숍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12월 23~24일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문경새재리조트에서 ‘인도 · 중국 · 티베트 불교의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하반기 3번에 걸쳐 진행된 ‘깨달음 논쟁’을 정리 · 회향하는 자리로, 그간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워크숍 토론자로 그간 발제를 담당했던 김준호(울산대) · 김한상(동국대) · 이필원(동국대 경주캠) · 남수영(동국대) · 김성철(금강대) 등이 참석한다.

참가는 40명 선착순 마감하며, 참가비는 1인 3만원, 2인 5만원.

문의 (010)4313-2122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73호 A9면 ‘百日法問, 현대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에서 ‘百日法問’을 ‘百日法門’으로 바로잡습니다.

청소년 심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겨울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제52회 화랑수련회 겨울캠프를 개최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와 함께 하세요.

언 제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1월 20일 〈3주간〉
모 집 인 원 :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참가)
수 련 회 비 : 1주 - 35만원 / 2주 - 70만원 / 3주 - 9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국민은행 823301-01-476572(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준 비 물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방한모 · 방한장갑 · 목도리 등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예약 및 문의 : TEL 054-775-1689 / 054-744-1689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매주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일 과 표

시간	내 용
5:00	기상
5:30	새벽 예불 / 좌선 / 걷기명상
6:20	아침 공양(주 1회 발우공양)
9:00	불교 강의
10:00	선무도 수련과 힐링 명상
11:00	108배
13:00	독서와 사색
14:00	요일에 따라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효도마사지, 예절교육, 호신술, 트래킹
16:30	울력 (도량 청소 및 정리)
17:10	저녁 공양
18:30	저녁 예불

■ 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 매주 색다른 경주문화유산 탐방 :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기림사, 경주국립박물관 양남 주상절리길 및 감포깍지길 탐방
■ 자아성찰 : 힐링 명상, 요가, 자자회



■ 본 프로그램은 종교를 초월한 청소년 인성교육을 목표로 합니다.
1500년 전통사찰 ·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

제9회 원효학술상 공모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철학, 한국 철학 속의 세계”라는 슬로건 아래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주도할 학자를 격려하고 인재를 육성해 한국 철학이 국제 사회에서 세계 철학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9회 원효학술상을 공모합니다.

○ 공모 주제
「불교의 현대화와 국제화」 전제하에 다음 각 부문 중 자유 선택 · 1인 1편 응모
–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

○ 시상 부문 및 상금
–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 저술상 : 1,000만원 혹은 논문상 : 700만원
– 박사과정 후 비(非)전임교수 1인, 논문상(저서 포함) : 500만원
– 석 · 박사 과정 학생 3인 이내 : 금상(300만원), 은상(250만원), 동상(200만원)
[모든 부문 공통 : 국내 및 재외국민, 외국인 포함(영어에 한함)]

○ 제출 자료
1) 지원서 1부[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서 2부, 논문(별쇄본) 3부
①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조교수 이상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것.
② 심사 대상 작품은 최근 5년 이내
(2013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함 (저서는 ISBN 등록본).
3) 외국인 또는 외국어 저술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함.

○ 접수
1) 접수 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2018년 2월 28일(수)까지
2)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
3) 접 수 처 : 주소_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대보빌딩 15층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원효학술상 담당자 전화_(02) 719-2606
*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kbpf@chol.com).

○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1)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2018년 4월 중 (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부문 또는 상금 내용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2) 시상식 : 2018년 5월 중 (추후 공지)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재)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輪回와 無我에 대해

윤회와 무아에 대해 논리적으로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하려한다. 윤회설이 비롯된 나라는 인도이다. 최초의 〈리그베다〉성립을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윤회설이 민간신앙으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天上)의 기쁨이, 그리고 육체의 해탈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원전 800년에서 600년 사이로 성립이 추정되는 〈우파니샤드〉의 문헌에 조상에 대한 제사의례가 언급 되어있다. 윤회설의 처음 형태는 죽은 자에 대한 제사의례로부터 비롯됨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를 조령제(祖靈祭)라 칭했다. 조령제엔 남자만 참석했다. 사람이 죽으면 조상의 나라에 태어나는데 그것을 '피드리' 라 불렀다. 조령(祖靈)이란 뜻이다. '피드리' 들이 모여 사는 곳을 '피드리카' 라 칭했는데 조상의 나라라는 뜻이다. '피드리' 가 '피드리카' 에 가기위해서는 조령제를 지내야 한다. 버터를 녹여 찹쌀로 지은 밥에 꿀을 바르는 제사음식이 '핀다' 이다. 제사를 함께 지낸 사람을 '사핀다' 라 칭했는데 이들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제사를 소홀히 지내거나 딸만 있어 제사를 치룰 수 없는 영혼은 조상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프레타' 로 허공을 떠돌게 된다. '프레타' 란 굶주림의 상징, 아귀(餓鬼)이다. 이것이 최초의 3도 윤회설이다. '프레타' 의 개념이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에 성립된 〈가정경〉에 '프레타' 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회는 佛說이 절대 아니다
영혼, 경전 어디서도 못 찾아

인도의 고대 문헌은 저자가 없는 수세기동안 말씀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록문화이다. 하여, 부처님의 생존시기에는 축생과 지옥이 첨가되어 5도 윤회설이 등장하는 것이다.

용수와 제바 보살의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에도 5도윤회만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나가르주나(용수) 이후에 아수라(阿修羅)가 포함되어 육도윤회설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육도윤회설은 불설(佛說)이 아니며 영혼이란 단어는 불교의 그 어떤 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음으로 설명할 부분은 불교의 근본 사상인 무아(無我)에 대해 설명할 차례이다. 부처님 생존 시에는 종교 사상가들이 많았다. 경전에 등장하는 육사외도(六師外道)가 그들이다.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 를 비롯해 '아지타' '고사라' '산자야' '프라나' '파쿠다' 가 그들이다. 이들은 인도의 전통 사상인 만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brahman)과 개인의 주체인 아트만(atman)에 색깔을 더하여 각기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이다.

요약하면 마하비라는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을 주장하며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단식(斷食)등의 고행을 장려하고 있다. 살아서의 깨달음을 현신해탈(現身解脫)이라 하고 죽음 뒤에 영혼이 누리는 세계를 이신해탈(離身解脫)이라 하여 구경(究境)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다음은 아지타의 학설인데 물질요소는 육체로 집결돼 있어 육체가 해체되면 정신도 소멸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사라는 영혼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삶의 노력은 별개의 것으로 지어진 운명의 결과에 따라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운명론자였던 것이다. 불교측으로 부터 무인무연론(無因無緣論)의 사명외도(邪命外道)라는 평을 받는 사람이다. 그 밖의 산자야, 프라나, 파쿠다의 학설은 생략한다. 이들의 주장과 학설에 대해 부처님은 침묵으로 부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에는 진리중의 진리 연기법칙(緣起法則)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此起故彼起)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此滅故彼滅)' 이것이 연기 법칙의 전부이자 기본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만물의 창조주인 브라흐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연히 육체의 주인공 이라는 아트만의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연 생(生)이요 인연 멸(滅)인데 무엇이 있어 생멸의 법칙을 벗어나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살피고 또 살필 일이다.

끝으로 중론(中論)과 십이문론(十二門論) 백론(百論)의 무아부분을 옮겨본다. "과거 세상에 내가 있었다는 것은(過去世有我) 그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是事不可得) 과거 세상에 있었던 내가(過去世中我) 금생의 내가 될 수 없다.(不作今世我)"

천신(天神)에게 들키면 공부가 모자란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간혹 옛날 고승들의 일화에 천신으로부터 공양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 지냈다는 이야기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면 상당기간을 단식을 하고 지내면서도 정상적으로 생활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고도의 은유가 숨어 있는 이야기이다. 중국 종남산의 도선율사가 천공을 받아먹었다 하고 조동종의 시조 동산양개선사의 제자 가운데 운거도응(雲居道膺:?~902)이 한 때 천공(天供)을 받아먹느라고 큰방에 들어와 공양을 하지 않았다 한다. 천상의 천녀가 인간 세상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안도 있다.

『선문염송설화』 861칙에 '밥을 보냈다' 는 '송식(送食)' 이라는 공안이 있다. 운거(雲居)가 동산(洞山)의 삼봉(三峯)에 있는 어느 암자에 살 때 여러 날의 큰방의 공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스승인 동산이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큰방 공양에 들지 않는가?" 운거가 대답했다. "날마다 천신이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동산이 말했다. "나는 그대가 제대로 된 사람인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따위 견해를 짓는구나. 저녁에 오라." 저녁이 되어 동산에게 갔더니, 동산이 "응(膺) 사리(스님을 일컫는 말)야!" 하고 불렀다. 도응이 "예" 하고 대답하니 동산이 물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는 말은 원래 육조 혜능 선사가 대유령에서 몽산에게 해 준 말이다. 동산의 이 말을 듣고 도응이 곧장 암자로 돌아와 좌선을 하고 앉았으니 그 다음부터 천신이 여러 날 찾아왔지만 도응을 볼 수가 없어 울고 돌아갔다고 한다.

〈설화(說話)〉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천신이 밥을 보내온다(天神送食來)' 는 것은 우두법륭에게 새가 온갖 꽃을 물어다 바친 것과 같으니 거룩하다는 생각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가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라고 한 것은 만약 바른 맥(脈)을 밟았더라면 천신이 꽃을 바칠 길이 없고 사마외도(邪魔外道)가 숨어 엿볼 틈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는 것은 천신의 공양을 받을 때 이것이 순전히 선한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선과 악에 대한 어느 것이라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천신이 여러 날 왔어도 볼 수가 없었다' 는 것은 우두가 4조를 본 뒤의 일과 같은 것일까? 사실은 우두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지는 대홍보은(大洪報恩)이 '귀신의 소굴에 빠져 있는 것이다' 고 비판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천신이 밥을 보내와 그것을 먹느라고 큰방 공양을 빠진 도응을 동산이 불러 나무라듯 말한 것은 아직 공부가 미흡해 천신에게 들켰음을 꾸짖는 뜻이 숨어 있다. 공부가 끝까지 바로 된 경우에는 천신을 만날 겨를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두법륭 선사가 우두산 남쪽에 선실을 지어 좌선에 여념이 없을 때 새들이 꽃을 물어다 선사에게 바쳤다. 그러다 4조 도신이 찾아와 우두의 공부를 점검한 뒤로는 새가 꽃을 물어오는 일이 없어졌다 한다.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는데 스승을 만난 뒤부터는 그런 상서로운 일이 없어졌다는 것은 공부의 경지가 더욱 높아지면 좋은 일 궂은 일 등의 분별의 경계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귀신을 포함한 신류(神類)들도 중생에 포함되지만 사람이 수행이 깊어 선정에 들어 있으면 신류들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조주종심선사가 40년을 선정을 유지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도량을 순찰하다 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수곽(우물)가에 쌀알을 흘려 놓은 것을 보고 공양주를 불러 야단을 쳤더니 그 순간을 포착 도량신이 조주선사에게 인사를 올렸다는 설화가 있다. 신류인 도량신이 조주선사가 항상 선정에 들어 있으므로 선사를 친견할 기회가 없었는데 쌀알을 흘려 놓은 것을 보고 꾸중을 하다 잠시 선정에서 나와 출정(出定)을 하였으므로 도량신이 여태껏 뵙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뵈었다는 이야기다.

타인을 위함이 곧 나를 위한 것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⑳ 보살의 발원은

發願品第二十七
菩薩思惟。一切眾生共有無量種苦。我當發於悲心成一切種智。滅一切眾生無量種共有之苦。菩薩見一切眾生沈沒無量無邊生死苦海得平等悲心。ㅌ 愚無知樂解脫者生放捨心。世間大苦聚生我勝悲心。菩薩思惟。我有悲心觀苦眾生未得菩提道。我云何使眾生得解脫道。菩薩思惟。一切世間我最少福。我今不能救濟眾生。菩薩思惟。我於三界眾生作大親友。而眾生常爲身苦心苦逼惱。我今名爲空惡活者。菩薩思惟。我生不能破世間苦。不能利益眾生我用受是身爲。菩薩思惟。我是一切眾生親友。我當養育於怨家所作大利益。菩薩思惟。一切爲生能?我作端嚴業。不使一眾生作不端嚴意。菩薩作是思惟。言利他者。求他人之相都不可得都如自己。何者爲他æ 是利己。

번역 | 발원품 제27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중생 모두 무량종류의 괴로움이 있지만, 나는 응당 자비심을 발하여 일체종지를 이루며 일체 중생 무량종류의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합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이 한량없고 끝없는 생사고해에 빠진 것을 보고 평등한 자비심을 갖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해탈을 즐거워하면 놓아주려는 마음을 내며, 세상의 큰 고통을 쌓지만 나는 수승한 자비심을 냅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자비심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관찰하니 보리도(菩提道)를 얻지 못하였구나. 내가 어떻게 중생으로 하여금 해탈도(解脫道)를 얻게 할까"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이 적어서 내가 지금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삼계 중생들의 벗이 되리니 중생이 항상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에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헛되고 악하게 살았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내가 태어나서 세상의 고통을 부수지 못하고 중생을 이익 되게 못했으니 내가 받은 이 몸만을 위해 썼구나"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나는 일체 중생의 벗이라. 내가 마땅히 원수를 양육하고 큰 이익을 주리라"합니다. 보살은 생각하되,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내가 단정하고 엄숙한 업을 짓되 중생으로 하여금 단정하고 엄숙하지 못한 생각을 짓지 않게 하리라"합니다.

보살이 이렇게 생각하되, "남을 이롭게 하며 타인이 바라는 모습 전부를 얻게 하지는 못하지만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기리니, 어째서 그런가하면 타인을 위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해설 | "보살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불자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직결되어 있다. 불자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이들이기에 그렇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가락이 닮아도 닮아야 되는 게 부모자식 간의 일이다. '발원품(發願品)' 은 보살의 마음 씀씀이며 부처의 마음 씀씀이다. 보살의 모든 발원은 선해야 하며, 보살의 모든 발원을 발보리심이라 한다. 그리고 발보리심은 곧 부처의 마음이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건 무엇일까.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러 찾아지는 삶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 어쩌면 내가 참 헛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사람의 삶일 것이지만, 고백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보살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중생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렇다. 그들을 구제하지 못했을 때 보살은 자신의 헛된 삶에 눈물을 흘린다.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한 것일까 후회를 한다. 그리고 윤회에 다시 뛰어든다.

제 98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2월 14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부산불교100년史〉 발간 시동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100년사 포럼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1월 17일 〈부산불교100년史〉 발간을 위해 집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열었다. 종합토론서 발제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부산불교 100년의 역사를 담을 〈부산불교100년史〉 집필 방향을 공유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 집필 방향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부산불교가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재고찰해 객관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됐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박대성)는 11월 1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불교100년史〉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최영호 교수(동아대)는 "편찬을 위해선 먼저 책 구성 체계 확정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편찬 의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며 "내용은 근현대 100년 동안 부산에 불교와 사찰이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그 위상에 맞게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객관성 △신뢰성 △형평성 △일관성 △시기성 △구조적 이해성 △역사 · 문화적인 명분 등을 지표 삼아 집필해야 한다고 방향을 설정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3.1운동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불교의 100년을 고찰하는 〈부산불교100년史〉 발간을 추진 중이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3월 1일 발간이 목표다. 부산불교계가 주도한 독립운동과 시대별 주요 활동 및 영향을 되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6월 한마음선원부산지원에서 동아대 인문과학대학과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럼은 1부 '부산불교 100년사의 방향'이 진행됐으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 집필위원장 화랑 스님이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의 역사적 의의'

객관성 높여 신뢰 확보 후
2019년 3.1절 맞춰 발간
불교 독립운동가 발굴 등
"뜻 깊은 호국정신 불사"

를 기조발표했다. 이어 '부산불교 100년사 기술방향'을 이찬훈 교수(인제대), '부산불교 100년사의 구성 체계와 항목별 기술내용'을 최영호 교수(동아대)가 설명했다.

화랑 스님은 "1905년 강점기화 될 때 교육 계몽운동에 앞장선 교구본사의 노력이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주된 동력이 됐다"며 "1919년을 기점으로 설정하기보단 그 전 과정을 잘 풀어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성월 스님을 비롯해 독립운동을 펼친 스님의 자료가 많지 않다. 잘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볼 수 있는 불교건축, 불교근현대문학, 불교문화재(석조, 회화, 조각, 공예) 등 14개 주제를 담은 다채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화선 금정중 교사는 "부산불교의 뿌리, 정화 운동이 범어사 동산 스님을 주축으로 시작됐다. 동산 스님의 법맥과 전법, '4.10 승려대회' 등 불교정화 운동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는 집필위원장 화랑 스님 및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서병수 시장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박대성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주역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부산불교계 스님과 학생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불사다"며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부산불교 역사포럼,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재가 전법 지도자' 역할 · 필요성 논의

혜원정사, 12월 10일 혜원시민포럼

재가 전법사 양성 필요성과 전법의 참된 의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12월 10일 오후 1시 혜원정사 교육관에서 '제1회 혜원시민포럼-가까이 더 가까이, 전법의 동행'를 개최한다. 이날 포럼을 통해 새로운 재가불자 지도자상, 재가 전법사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포교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제1발제 '전법의 교학적 토대'는 조준호 교수(고려대 인문학 연구소)가 발표한다. '전법의 교학적 토대'는 초기불교로 알아본 전법의 참된 의미와 사상 원리, 역사 배경을 함께 고찰해 전법의 자세를 되돌아본다. 제2발제는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은 백도수 교수(능인불교대학원대)가 맡는다. '전법사의 현실적 구현'에서는 재가 전법사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사회 참여 및 윤리를 강조한다. 제3발제는 '재가불자 지도자상의 정립'으로 이도흠 교수(한양대 국문학과,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가 발표한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재가 지도자의 역사 및 사회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하고, 재가자의 주체적인 역사 사명과 역할을 설명한다. 논평은 각성 스님(혜원불교교육원장), 목종 스님(전법도량 회장), 윤종갑 교수(동아대 철학생명의료윤리과)가 맡는다.

혜원시민포럼은 혜원정사에서 운영하는 혜원불교교육원 제26기 졸업을 맞아 개최된다. 졸업생에게 새로운 전법사 역할을 제안하고 뛰어난 재가자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특히 새로운 재가 지도자, 전법사의 필요성을 제안 강조하는 자리다.

주지 원허 스님은 "포교사 과정은 사실 재가 지도자로 부르긴 역량이 부족하다"며 "스님 외 재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이 있다. 교육 불사를 강조하고 새로운 재가불자 지도자상을 제안하는 포럼이 될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중구불교연합회 내달 창립법회 연다

12월 6일 미타선원서

지난 4월, 부산 중구지역 5개 사찰 스님과 불자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부산중구불교연합회가 창립법회를 연다.

부산중구불교연합회(회장 종호)는 12월 6일 오후 2시 미타선원서 '부산광역시 중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린다. 현재 협회에는 고심정사 · 미타선원 · 대각사 · 수도암 · 용해선원 · 일성사 등 총 6개 사찰이 참여했다.

창립법회서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경선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며,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심산 스님과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무성 국회의원, 김은숙 중구청장 등이 축사를 전한다. 특히 중구불교연합회는 이날 이웃사랑 쌀 전달식을 통해 자비나눔을 시작으로 첫 행보를 펼칠 계획이다.

중구불교연합회 임원진은 △회장 종호 스님(미타선원) △수석부회장 일성 스님(고심정사) △부회장 일준 스님(정수사) △감사 거산 스님(수도암)으로 구성돼 있다. 사무국장은 성곡 스님, 사무차장은 고도 · 법선 스님이 맡았다. (051)253-8687 하성미 기자

제27회 山海原문화상 수상자 선정

문학 한후남 · 예술 김호준 등… 시상식 12월 11일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가 제정한 제27회 (향기로운)산해원문화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수상자는 △문학상 한후남 경남문인협회 부회장 △예술상 김호준 창원시청소년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언론상 박현오 경남신문 전무이사 △행원상 강수찬 진해예술촌장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창원풀만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 500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한후남 수필가는 1990년 수필 '유자차 만들기'로 등단, 경남문협 수필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수필강좌와 사보 발행을 통해 지역 문학인 배출과 수필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김호준 작곡가는 마산예총회장, 마산음악협회장, 창동예술촌장을 역임하며 지역을 소재로 창작가곡을 작곡, 지역문화콘텐츠발전에 기여했다. 박현오 전무이사는 1986년부터 경남신문에서 활동하며 지역 언론 창달에 기여했다.

강수찬 수필가는 진해예총회장, 진해예술촌장, 계간진해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주)문화법인의 대표로 각종 장학사업 후원과 사회 환원에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기장 고불사, 장수 마을 孝 사찰로!

제1회 효문화 잔치 개최



부산 기장 장수마을로 이름 난 고촌 마을에 위치한 고불사가 효 문화잔치를 개최했다.

고불사(회주 정오)는 11월 18일 고촌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1회 효 문화잔치를 경내에서 개최했다.〈사진〉 개산 73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효 문화잔치는 고촌로와 고불사를 잇는 진입로 개통을 동시에 축하하는 자리였다.

회주 정오 스님은 직접 음식을 나르며 봉사하고 어르신의 손을 잡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어르신을 위해 지역 내빈들도 방문했다. 윤상직 국회의원, 오규석 기장군수,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신도회장이 축제에 함께했다.

정오 스님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과 국으로 공양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바람을 이뤘다"며 "진입로도 개통했으니 자주 고불사에 찾아주시고 쉬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일갑 (재)시공문화재연구원장은 고불사를 소개하며 "문화재 지표 조사 중 수습된 기와편을 보면 고불사와 그 주변 지역 일대는 7세기 전후 최초 가람이 조성됐음을 알수 있다"며 "1300여 년 전에 사찰이 조성됐고 고불사는 기장에서 가장 오래된 절터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가을 문화 향연 산사서 즐긴 시간"

제1회 감로사 산사음악회

부산 감로사가 지역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열어 깊어가는 가을을 함께 만끽하는 문화한마당을 마련했다.

감로사(회주 혜총)는 11월 17일 경내에서 제1회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선차와 중국차 등 차 문화를 격조 있게 보여주는 무대를 비롯해 우쿨렐레 연주와 메소드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경내를 가득 채웠다. 아울러 시인들의 시 낭송이 감로사를 찾은 내빈들을 맞았다. 회주 혜총 스님은 매년 실상문학상을 제정하고 불교계 문인을 격려해왔다. 이번 자비나눔 산사음악회는 혜총 스님과 인연 있는 시인과 다인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스님 및 지역민 300여 명이 찾았다.

혜총 스님은 "대외 활동에 주력하며 부산 발전과 복지 그리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 음악회는 안으로 집중해 감로사 모든 불자와 지역민을 위해 개최한 행사"라며 "자비나눔이란 제목은 무엇이든 함께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나눔이란 의미다. 문화를 함께 나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佛心으로 조국·민족에 충성을”

태고종 충남·전북, 육군3사관학교 위문



태고종 대전종무원장 법안 스님(논산 안심정사 회주)과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마이산 탑사 주지)이 육군 예비장교들의 포교를 위해 힘을 모았다.

법안 스님과 진성 스님, 진안 광명사 송운 스님은 11월 19일 영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해 훈련 중인 교육생도들을 위문하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충성호국사 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법안 스님을 계사로 안심정사 대구도량 불자, 마이산 탑사 탑밴드를 비롯한 불자들 30여 명과 사관생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한 법안 스님은 “3사관생도 불자들이 불법을 잘 지키고자 맹세함으로 진정한 불자가 됐다”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불자다운 불자가 돼 전우애를 키우고 조국과 민족에 충성하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도로 군 생활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안 스님과 진성 스님은 수계생도들에게 수계 선물과 햄버거, 과일, 콜라 등 간식을 제공했다. 특히 ‘스님 떡볶이’로 유명한 송운 스님은 직접 만든 특제떡볶이를 제공해 사관생도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천 스님, 지진피해 현장서 짜장면 봉사

짜장면·떡국 등 매끼 1,200인분 제공



‘스님짜장’으로 유명한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이 포항지역 지진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에 나섰다.

운천 스님은 11월 17일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 8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흥해체육관서 이재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사진〉

앞서 부산과 양산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운천 스님은 포항지역의 강진 소식을 듣고 식재료를 준비해 1,200인분의 짜장면을 대접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진 18일 아침에는 1,200인분의 떡국을 준비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했고, 점심에는 짜장밥을 마련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운천 스님은 “경황이 없을 이재민들에게 부처님 마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재민들이 이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관심 갖고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뭇 생명 살릴 불교정신 전파 앞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1년간 여정 마무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 이하 환경연대)는 11월 18일 광주 수자타에서 ‘2017정기총회 및 회원한마당’ 행사를 열고, 지난 1년간의 불교환경 포교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시각 스님, 법일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보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장휘국 교육감 등을 비롯해 후원자, 자원봉사자, 어린이·청소년 회원 등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정기총회, 2부 회원한마당 등이 열려 흥겨운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시각 스님은 “우리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고, 뭇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한다. 우리 이웃과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관세음보살님처럼 보살피고 보듬어 안는 일을 멋지고 당당해 해나가는 환경보살”이라며 “향후 불교환경연대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고 원력의 꽃을 피워내는 시간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대는 내년의 주요사업으로 △나무숲센터 건립불사 △신입회원 만남의 날 △불교환경연대 연구모임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 △창립 10주년 기념 맑고향기로운 노래이야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통 가사불사를 재현해 ‘가사공승재’를 봉행한 구례 화엄사. 직접 가사를 지은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바세계 맑힌 가사불사 功德

구례 화엄사, 11월 19일 전통 ‘가사공승재’ 재현

전통적 가사불사를 재현한 ‘가사공승재’가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렸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11월 19일 각황전에서 재가불자들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을 전통방식으로 봉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앞서 화엄사는 주지 덕문 스님 취임 후 가사 공양을 위해 지난 7월 경내 범음료에 가사도감을 설치하고 가사불사를 입재한 뒤 박춘화 명장(한복) 지도하에 ‘부처님의 옷을 짓다’라는 강좌를 개설했다. 이를 계기로 신도들이 바느질 정성과 신심을 기울여 가사를 제작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가사가 특별히 조성됐다. 특히 진제 스님의 금란가사는 조선초까지 전하다가 중단된 첩상가사를 전통복식대로 조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진제 스님과 칠증사 가사를 비롯해 총 294벌의 가사가 봉정됐다.

이날 가사를 봉정한 신도들은 기도문을 통해 “이제 가사장삼을 스님께 공양하는 공덕으로, 탐진치(貪瞋癡)로 생긴 모진 장애들이 사라지고 저희들의 지혜가 밝아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피하여 주소서”라고 발원했다. 가사를 받아든 스님들도 “불제자의 올바른 길을 끊임없이 정진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사 봉정에 앞서 가사점안 피봉식은 가사를 가사함에 넣고 부처님 전에 봉안하는 의식이며, 이어진 가사 이운은 선재 어린이, 문수 청소년 법회 화동의 선두로 신도회와 임원들이 두 손으로 가사를 이운해 스님들에 봉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사봉정을 마친 후 명선 스님은 법문에서 “예로부터 예식을 통해 권위가 살아난다는 말이 있다. 오늘 가사공승재가 참으로 부처님 법답게 이뤄졌다”고 치하하고, “가사를 수하는 스님은 반야용선의 선장이 돼 모든 중생이 성불할 수 있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4개월간의 준비 끝에 가사공승재를 회향한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사공승재는 부처님 이래 수천 년을 전해오는 수행자의 법의(法衣)인 가사를 스님들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다. 가사는 세상을 밝히는 지혜이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상징”이라고 말하며 “이번 가사불사 공덕으로 재가불자들에게는 한량없는 복덕행의 기회가 되며, 출가수행자들에게는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행의 시작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호남 어린이포교 새 출발 다짐

광주전남불교 뜻 모아… 어린이청소년연합 출범

광주전남지역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전문단체가 설립됐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이하 불교어청연합)은 11월 19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출범식을 열고, 호남지역의 포교 취약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깃발을 올렸다.

이날 출범한 불교어청연합은 향후 △어린이포교(연꽃문화제·역사문화탐방·동련캠프·나란다축제) △청소년포교(문화재지킴이활동·자연생태문화기행·파라미타캠프·상사페스티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이사로 취임한 성거사 주지 혜공 스님은 “우리 전통문화 속에 스며든 불교는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 남아 그 가치가 너무도 높지만, 절 집안에서의 불교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며 “불교를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불교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불교어청연합은 기존 활동이 미비했던 (사)동련 광주지구와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를 통합 운영하는 단체로, 별도의 이사회와 후원자들을 모집해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날 행사에는 혜공 스님, 지장 스님(동련 광주지구 대표), 소운 스님(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표), 원일 스님(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을 비롯해 지역 불교계 스님과 장휘국 교육감, 김성환 동구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출범을 축하했다. 1부 출범식에 이어 2부에서는 정율 스님의 축하공연과 만찬이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다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십시일반 모연한 자비의 쌀 전달

소원정사·한마음선원 광주지역 복지 위해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는 11월 18일 경내에서 신도들이 시주한 공양미 7,800㎏을 광주불교공동모금단체인 빛고을나눔나무(2,000㎏), 남구청(5,000㎏)과 외국인 불자를 비롯해 취약 시설에 전달했다.〈사진〉

도계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 신도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도 16일 경내에서 김용섭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나눔나무를 통해 서구청에 자비의 쌀 2,000㎏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계청 종교인구조사 개신교 합산에 문제”

군산 동국사 종걸 스님 전북문화원 심포지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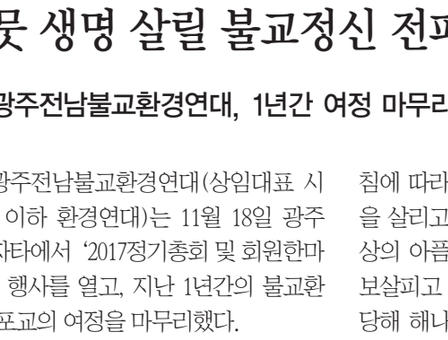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11월 15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제15회 전북문화원연합회 심포지엄에서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종걸 스님은 “통계청에 따르면 불교는 불교 인구만을 조사한 반면, 개신교는 안식교·몰몬교·통일교·여호와증인·성공회·천부교 등 7개 종단의 인구를 합산해서 발표했다”며 “통계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라면 불교는 원불교, 대순진리회를 합산해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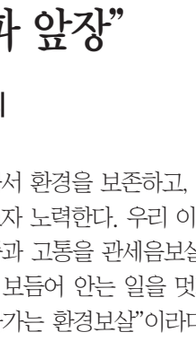
스님은 이어 ‘종교적으로 짚어 본 전북 정신’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신흥종교가 모악산에 모여든 것은 도참설과 음양오행설·풍수지리설의 영향 때문”이라며 “모악산 일대 대부분의 집단이 계룡산을 아버지 산, 모악산을 어머니 산이라 보고 음양력(陰陽力)으로 대응된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재 법당의 엠프설비를 “UBS 내장형” 최신형,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 셋트로 160만원에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2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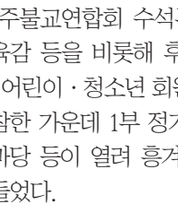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 내장
가격 : 1,2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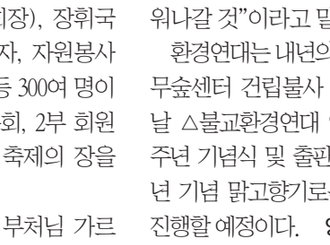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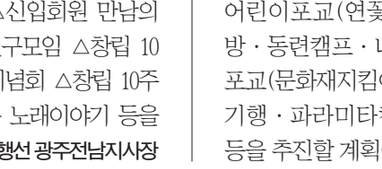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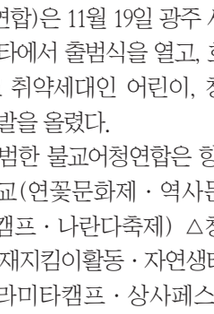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 CD기기 (5개 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탁상마이크
가격 : 185,000원
자체 소리 조절
주지스님 전용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2자

◀ 대북



▶ 태징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3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아, 우리는 아주 안락하게 산다. 원한 품은 자들 속에 원한 없이 원한을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원한을 여읜 자로서 산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 법 전 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 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산소, 송사재판,이혼수,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다)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천기누설)

010-4014-8822

신묘 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속히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보담스님 하늘소리

영가천도. 점안 각종
의식.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010-9229-9899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
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81-9
대 광 명 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배우자 구함

남 64세, 회사원, 여행 취미
성격 부드럽고 진실한
아들 없는 홀로 되신 여성
인연 바랍니다.
(북한 여성 환영)
010-4074-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0-7269-3689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0-2078-9595

기도처, 공부하실 곳이 마땅하지 않으신 비구니스님 누구나.

숙식 무료제공(5명 선착순)
* 본 사찰에서 기도, 부전스님으로 있을 수도 있음
(상담 후 결정)
010-5212-4533

천년고찰에서 비구니스님 및 법당보살 구함

(51세~54세)
운전유경험자
054-383-8032
054-383-2626

命理學. 실전통변비법

命理學 & 神通術 (스님직강)
기초반, 실전반 모집 (1:1 맞춤 개인교습)
칠성사 부설, 칠성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010-8427-6199. 070-4643-6199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2)918-5554. 010-7703-1188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이루는 특수한 기도법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 환영, 55세 이하)
041-673-8385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주 문 : 전화·문자 010-4475-6611 (주소와 성명, 염주 번호를 선택하여 주문주세요.)
계 좌 : 농협 351-0895-1240-43 (자비의등불)
보급처 : 캄보디아 국제NGO 자비의 등불 후원사업체(향불원, 등록번호 221-82-72640)

교육학 박사



진각스님의 명리학교실 · 단기속성교육과정 개강

- 제도권 학문이 된 命理學을 수학하여, 방편으로 삼고자 큰 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제1기 초급입문반과정.
- 한자(漢字)를 몰라도 가능하며 명리상담법, 작명법을 주 1회로 하여 짧은 속성단기과정 강의.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 및 사암만이 기부금 행위 등 종교활동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 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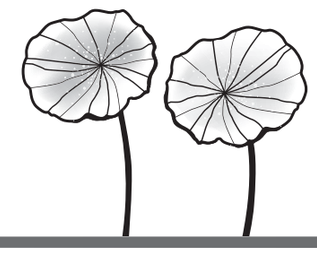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보라, 이 화려한 세상을 그럴싸하게 장식된 왕의 마차 같아서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 끌려가지만 눈 있는 사람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

– 법구경 –



강릉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3,000㎡
- 사찰이 조용하고 운영 잘 됨. 먼바다 보임
- 양도가액 : 12억 2천만원 (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펜션 및 장기요양 안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으로 고통 받는분, 암등 불치병으로 투병하시는 분!
따뜻한 남쪽나라 남해 자연 치유마을 황토 구들장 팬션으로 오세요!
전통재래 구들장으로 지어진 뜨거운 방에서 몸의 모든 독소를 배출하시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명상길에서 지친 심신을 충전 하십시오.
장기요양 하실분 환영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 "남해여행닷컴" 네이버 · 다음에서
"황토구들장 펜션" www.구들장팬션.kr을 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면 영험하신 도안스님의 친절한 인생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안스님 연락처 010-9036-2131)
자연 치유마을 황토구들장펜션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81번길 23-32
문의전화 : 010-6260-3915 / 010-5352-9245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 위치 : 인천
◎ 부지 : 160평 ◎ 대지 : 70평
◎ 무허가,매년사용료있음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5천 ◎ 양도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정선 사찰(급)안내
- 단청 법당. 요사. 공양간 등
- 토지 임야 80.00㎡. 사찰경관 좋음
- 산세와 수량 풍부한 기도도량
- 수행터로 위치 좋음
- 양도가액 : 18억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103-35호 서울에서 1시간거리 감곡IC 10분거리 2018년 전철개통 예정
- 대지 184평, 답 290평 전체 474평
- 삼존불외 약사 여래불 약사기도원 모두 목불부처님, 아미타불, 관세음불, 지장불 약사여래불 삼성각 약사여래기도 도량
- 지하대공 116m, 황토방 건물 약 60평
- 전체 몸만 오시면됨 완벽함, 모든것 일체, 납골부지 포함
- 가액 : 3억 3천

010-6674-135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거리)
- 사찰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4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 대지 : 5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각8평 요사채1 40평, 요사채2 26평, 기타 8평
- 국내유일의 나전칠기탱화 상단, 신중단
- 지방문화재급:석조미륵마애불상 탱화(약 150년) 100년된 석조지장보살
- 5층석탑:석조금강역사 2구(석조)
- 가액 : 12억

010-9245-8214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시장 앞 대로변 중심지역 7년하던곳
- 확장이전 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3층 40평정도 법당.방2개 공양실겸 부엌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3백40십
- 지장보살님 모셔져 있음
- 시설합 1350 만원

010-2847-6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해남읍 5분거리
- 사찰 도량 총1,500평 남짓 법당 목조,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일억 8천 모두 합 2억 5천 5백만원 (부득이한 사정)

010-4628-569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불교 고장 김해 부득이 임대하고저 합니다
- 큰 대로 옆, 건물 65평
- 방사 3칸, 공양간 1칸 화장실 남, 녀 각1개, 주차완비
- 아미타 삼존불, 천수관음 포대화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절충가능

010-7702-6296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000평, 한옥 50평
- 정원수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7억 8천만원

010-5923-3388

불자가 중개하는 안락동 770-2(허)가 06-2231
공신공인중개사 "급 매물" 안내
- 위치 : 부산시 15분 거리 근교.. 양산 명곡 마을에 위치한 사찰
- 대지 200평, 건물 120평 (대웅전, 요사채, 불두) 마당, 일주문
- 주위 대지시세 약 3백만원,
- 등기부 매입시 8억8천만원 등재
- 급한사정 : 8억 3천에 양도

010-3570-0025

사찰(급)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내
- 대지 200평, 1, 2층 70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 (가격조정)

010-4561-21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 중앙동, 시장 초입에 있음
- 원불 : 아미타, 관세음, 산신
- 탱화 : 부처님 후불 금신중 칠성. 2층 34평
- 보증금 1천만원 월35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육백, 판넬바닥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010-9906-96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
- 요사채 : 공양실, 방 2칸
- 가액 : 2억 7천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 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60평
- 가액 : 7억 5천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정도 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연락처 010-9730-2251
(부재중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림)

아름다운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대가면 대천리219
- 한옥, 평수 215평 사용실평수 350평 정도 건물 2동
- 가액 : 1억 7천 (융자6천 포함)
- 소나무 울창한 산밑

010-3850-7179

사찰안내 및 전세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소재
- 총면적 : 530평
- 법당. 종무소,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창고
- 가액: 7억, 전세: 2억

연락처 010-2702-0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103의 35호
- 대지 367평 전체 옛날 집 약 100년 흙집
- 지금 사용하고 있던 아주 좋은 명당자리, 대학총장님이 태어난 자리
- 약30평.2018년 전철 개통 예정
- 거리: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 감곡IC 10분
- 가액 : 1억 5천 조정가능

010-6674-135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야간, 창고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위치 최고 시내에서 5분거리 입지 조건최고
- 대지:1140평, 주차장완비
- 건물:대웅전 30평, 요사채 30평
- 기도방 6칸, 친견실,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5억 8,000만원

010-2498-7899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 사찰터로 적당한 전답 1천 8백 평
- 가액: 1억 8백만원

010-2016-6281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 법당, 용궁전, 산신각, 요사채
- 총 1,515㎡ (458평)
- 가액 : 6천만원

010-9036-2131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주택, 대지 37평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 5백만원 안고)

010-7188-7723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산제리 639
- 대지 323,97평
- 1층 요사채 21,4평 법당 21,4평
- 즉시법회가능, 시설 완비
- 가액 : 9천 9백

010-3717-5316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지역 팔당역에서 5분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몽땅 : 1억 2천

010-8861-178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특징: 대지 약 80평 (종교부지)
- 법당 : 약 26평 (주지실, 삼성각 포함)
- 요사채 : 약 24평 단독종교법인 사찰
- 가액 : 4억 5천만원

010-5626-508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
- 대지 125평 중 건평 100평
- 법당 35평, 삼성각, 용왕단, 호신불 650불
- 인등 1008등
- 방 5개, 화장실 3개 아파트 대단지 부근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위치한 작은 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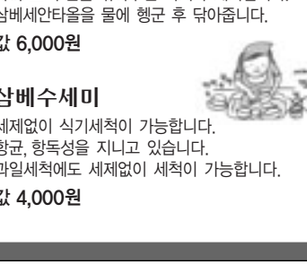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별장같은 암자
- 위치 : 가야땅 돗대산 자락
- 창건 20년, 대지 270평, 대웅전 23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현재 평생위패단 준비중
- 주지실, 종무소, 창고, 모든 시설 완벽
- 의료관광 특구지정
- 거리 : 공항 15분 → 시청 5분 → 지하철 5분
- 현재 2,000세대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
- 100일전 뉴타운 2,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분양 완료
- 가액 : 8억 8천(은융 2억 1천) 안고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시내 뒷산
- 경관좋음. 정원수 다량. 조경된 아름다운절
- 포교 최적지
- 대지 1200평. 법당 26평. 요사채 30평 공양실 16평(전체 목조. 단청완료됨) 창고. 저온 창고.
- 가액 : 8억(대출1억 안고) 절충가능

010-6603-1456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영도구
- 시장, 은행, 마트 가깝고 교통편리함
- 대지57평, 건물 철근 콘크리트 2층집
- 1층 요사채 30평 내, 방 2개, 주방 1개 거실1개, 세면장 화장실1개, 도시가스
- 2층 법당 20평 내, 스님방 1개 도시가스 외부세면장 화장실 1개
- 모든 사물은 갖추어져 있음.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495-7005 (스님전화)

美불자들, 재난 구호에 첫발 떼다

터프츠투데이 닷컴, '터프츠' 구호 소개

불교수행 차원서 구호로 확장
피해자 발언 및 치유행사 진행
"미국 내 수행모임 변화 시작"


터프츠투데이에 소개된 터프츠수행공동체의 수행모임 모습. 사진출처=tufttoday.com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 불자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미국 내 불자들의 재난 구호활동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터프츠투데이 닷컴(tufttoday.com)은 11월 16일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터프츠대 내 불교수행 공동체 수행자들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활동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터프츠 불자들의 활동이 재난구호까지 확장됐다' (Disaster relief event opens new period of Buddhist activism at Tufts)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1월 5일 열린 행사를 조명했다. '재난구호와 상생' 으로 붙여진 이날 행사는 허리케인 이재민들을 위한 것으로 라이브 음악과 음식 등이 제공됐으며 60여 시민이 동참해 재난 구호에 작은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행사 후 벽화를 함께 그리며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재난' 이란 한통의 이메일에서 시작됐다.

수행공동체 내에서 돌려진 이 이메일 내에는 허리케인 마리아와 캘리포니아 산불, 라스베가스 총격사건과 같은 최근 일어난 각종 사건을 다뤘다. 수행 2년 차인 마리 앤 리에 따르면 이 이메일은 투프트에 있는 수행자들에게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수행공동체를 나온 하샤 메논은 수행공동체가 재난 구호에 나서게 된 계기를 밝혔다. "3년차 수행자들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출신입니다. 화재가 그들의 집 근처에 났다는 것을 알고 모두 놀랐어요.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망므을 모으게 됐습니다."

메논은 이어 "허리케인 피해와 라스베가스 총격사건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메논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이날 행사에서는 피해자들의 발언과 함께 예술 표현을 통핸 위로가 진행됐다. 여기에는 제니퍼 베리오스 '헬스 앤 웰니스' 조합 대표도 참여했다. 그녀는 그녀의 가족들이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으며 허리케인 피해발생 이후 정부대응이 늦음으로 인한 이재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터프츠 수행자인 프리야 스라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행공동체의 또 다른 장을 연 것으로 보인다.

"불교 수행모임의 대외적인 첫 발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어린 모임일 뿐이지만요."

스라만은 현재는 즉각적인 구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 국제구호로 발돋움, 스리랑카 등에서 구호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보았다.

스라만은 "모든 재난은 그 자체로 심각한 사건"이라며 "언론이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프트 캠퍼스에 있는 이들 모두가 자비심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일부라도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스라만은 공동체에 기반하고 이웃을 살피는 활동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수행은 단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파키스탄, '슬리핑 붓다' 공개한다

잠들어있던 불상 일반에 개방
관광 장려 및 종교 화합 목적


파키스탄 고대 유적 도시인 바말라의 불상과 불탑이 발굴을 재개하고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더가디언

파키스탄서 1700여 년간 잠자고 있던 불상을 일반에 공개했다.

'더가디언' 등 외신은 11월 20일 "파키스탄 정부가 지역의 관광을 장려하고 종교적 화합을 위해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불상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불상을 공개하기로 한 곳은 세계 문화 유산에 등재된 파키스탄 고대 도시 유적 탁실라(Taxila) 지방 바말라(Bhamala). 바말라는 거대 불상과 불탑 등으로 유명한 불교유적지다. 이 지방의 불교 유적은 1929년 처음 발견됐다. 하지만 이후 발굴 작업 84년이 지난 2013년 까지 멈춘 상태였다. 바말라의 고고학 박물관 책임자 압둘 사마드는 "우리는 그동안 500개 이상의 불상을 발견했고 아직 발굴 중인 불상도 48개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더 가디언' 은 "이 지역은 한때 불교 문명의 중심지였다"며 "파키스탄의 불상 공개 발표는 국가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식을 부드럽게 해 대외적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말라의 야당 대표인 임란 칸은 "우리의 자산인 이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과제"라며 "파키스탄의 소수 민족집단들은 종종 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역대 정권들도 이 나라의 비 이슬람교 문화유산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가디언' 은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수 민족집단과도 대화를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칸은 이어 "유적 발굴과 보존작업은 계속돼야 한다. 세계 문화 유산은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인구의 대다수는 이런 유물의 복구 작업을 보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형기자 realjeanp@hyunbul.com

아플 때 명상으로 기분을 완화시켜보세요

"명상… 면역력 향상으로 감기 예방 시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겨울이 찾아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에 걸린 환자가 부쩍 늘었다. 한 해외 매체는 명상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사진출처=라이프해커스닷컴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겨울이 찾아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에 걸린 환자가 부쩍 늘었다. 한 해외 매체는 명상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생각보다 빠르게 겨울이 찾아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감기에 걸린 환자가 부쩍 늘었다. 한 해외 매체는 명상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감기에 걸린 환자들도 이 방법대로 하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 날 때 틈틈이 명상을 통해 면역력과 정신력을 길러보자.

긍정적인 만트라를 반복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다. 때문에 아플 때 긍정적인 생각이 강력한 힘일 될 수 있다. 현재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해지기 보다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 해보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억누르고 필요한 휴식을 취하라. 명상전문가인 토마스 디레바는 " '나는 살을 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나는 3개월 안에 10 파운드를 뺄거야'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확언을 하라"고 조언한다.

숨을 깊게 쉰다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돕는다. 편안한 의자와 조용한 방만 있으면 된다. 호흡과 함께 이어지는 미묘한 신체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몇 번 심호흡을 한다. 만약 호흡하는게 고통 스러울 정도면 발을 바닥에 대거나 매트리스에 다리를 올려놓는 식으로 다른 곳에 주의를 돌려본다.

쾌적한 곳에 있음을 시각화 한다

현재의 고통을 넘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시각화 하고 상상한다.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추수감사절에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즐겨운 경험을 했던 기억을 마음 속에 각인 시키는 것이다. 이는 감기나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디스캔

바디스캔은 몸 구석구석을 관찰하는 연습이다. 침대 또는 편안한 매트리스 위에 누워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 부위의 감각을 순차적으로 느껴본다. 따끔거림, 긴장감, 압박감 등 다양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통증을 알아차리고 느낀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마사지 또는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다.

귀 기울여 듣기

편두통으로 고통스러울 때 주변으로 관심을 환기시켜 소리에 귀기울여보자.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시계 바늘 소리, 부엌 싱크대 물 떨어지는 소리 등을 듣는 것이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밖으로 나가 어린이들이 노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등에 집중한다. 재밌는 것은 소리에 집중하게 되면 한 가지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다는 것이며 이때 우리는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인도, 여성 성범죄에 '미투' 말고 '쿵푸!'

비구니 스님들의 호신술 강좌 화제


날렵한 몸놀림으로 화려한 쿵푸를 선보인 지메 왕축 라모(19). 사진출처=trust.org

성범죄 피해를 공유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뜨겁게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성범죄 피해를 알리며 '미투' (나도)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다.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 그 목적. 이 와중에 성범죄가 만연한 인도서 "여성들 스스로 성범죄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자"며 여성 재가자들에 호신술 '쿵푸' 를 가르쳐주는 비구니 스님들이 화제다.

홍콩 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는 11월 17일 "성범죄가 만연한 인도서 불교를 중심으로 호신용 쿵푸가 널리 퍼지고 있는 와중에 서양도 이에 주목했다"며 인도서 쿵푸를 가르치는 비구니들을 초청한 런던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주인공은 인도 최북단, 히말라야 출신의 비구니 스님들로 대부분 무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졌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화려한 쿵푸를 선보인 지메 왕축 라모(Jigme Wangchuk Lhamo, 19)는 "몇 사람들은 스님은 앉아서 명상하고 기도만 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비구니의 임무는 그 이상이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 범죄기록청에 따르면 2015년 성폭행 신고 건수는 3만 4천여 건이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이 마저도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폭행 피해자가 수치심과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것.

히말라야의 비구니 스님들은 "쿵푸를 하면 성폭행으로부터 물리적인 방어도 가능하지만, 자신감과 리더십이 생긴다"며 "범죄자들을 만났을 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를 입었을 때 당당하게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다"고 쿵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진형 기자**

신흥사 운암승려 노후수행관 입주 안내



사회복지법인 운암원에서는
승려 노후복지를 위한 비구니 전용 노후수행관을 개원합니다.
아래의 혜택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문의 바랍니다.

생활 의식주 (사부대중으로서 공동제공)

- 선원, 화엄학림 운영 (서예실, 화실, 도서실, 다실 등)
- 매월 (음, 7일) 원로큰스님 초청법회
- 전기, 상수도, 냉난방 세탁 (무료제공)
- TV 43인치, 드럼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쿡탑 (제공)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
- 스님 출입시 부산역, 공항, 고속터미널 (승용, 승합 제공)
- 월 1회 온천 및 성지순례 (제공)
- 유선 전화기 기본요금 (무료제공)
- 월 40 ~ 50만원 및 타선원 방부시 대중공양 일백만원 지원
- 수행관 입주자 일반의료비, 중증의료비, 암 치료 등 (무료지원)
- 수행관 내 노후자 편의를 위한 승강기 3대
- 상시 승복(법복) 무료 제공
- 객실 / 실내 도반과 함께 입주 가능
- 승납(법납) 및 세속나이 관계없이 1차 입주는 가능함
- 수행관 주변 : 백병원(종합) 승용 3분거리 / 지하철 도보 10분 / 시내버스 종점 도보 3분거리 / 공원, 대학, 고등학교, 산책로
- 남덕유산 무위사 심신수련원 매년 거주(한철)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등록예정)
- 사후 사찰내 식장, 무위사 다비장 부도탑 49재, 사중제사 (단, 유언장에 따라 정리함)
- 입주자 : 전국 비구니스님 (60세 외 관계없이 가능)

· 개관 : 2017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주지 정일 성범 합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사찰전화 : 051-891-3776
문의전화 : 051-895-3400. 010-6783-1208

마음-훈련

노먼 피셔(젠 프리스트)

〈1〉 시작하기로 결심하라

진리 받아들일 자세부터 갖추자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구분하지 말라."

심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조언을 구한다. 종교인이나 유명인 등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듣고 싶지만 되돌아오는 조언은 썩 와 닿지 않는다. 무엇을 내려놓고 비우라는 것인가. 그렇기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실망한다. 하지만 그 어떤 조언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일이다. 마음도 훈련을 통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젠 프리스트로 활동하며 특유의 유연함으로 세상문제에 접근하는 노먼 피셔의 얘기를 들어보자. **정리=윤호섭 기자**



마음 훈련 시작하기 앞서
예비 훈련으로 마음 다져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영적 행로 여는 결심할 것

선불교 마음 훈련의 첫 번째 요점에 들어 있는 경구는 단 한가지다.

'먼저 예비 훈련을 하라.'

여러분은 이 경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다.

첫째로, 예비적인 것에는 훈련을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에 발생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지금 겪고 있는 이혼 과정, 혹은 이미 겪었지만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한 이혼의 여파, 이해할 수 없는 느닷없는 이별, 내 내면의 중심을 흔들어 놓은, 가까운 사람의 예기치 않은 죽음, 이제는 극복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끔찍한 어린 시절, 질병, 실직, 기타 과거와 현재의 재앙들이 내가 지닌 예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로 그저 고통 받는 것과, 이에 대처하려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의 차이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방식, 결심, 개인적 책임감과 관련되어 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내 잘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일을-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따라서 다른 누군가의 탓인(그런 누군가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비극으로 보거나, 나의 슬픈 운명과 삶의 끔찍한 부당함을 한탄하기보다-지금 일어난 모습 그대로 책임지는 것, 현재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비 훈련이다. 다시 말해, 예비 훈련은 한탄과 자기연민을 멈추고 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이것은 내 삶이며 나는 여기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유일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예비 훈련에는 개인적 책임감에 기초하여 내 삶을 반추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행로를 시작하려는 결의와 용기를 키우는 일도 포함된다. 예비 훈련은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훈련된 영적 행로를 개시하려는 굳은 결심을 다지는 과정이다.

여기에 착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회복 프로그램에서 이는 공동체 안에 모여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심리 치료를 통해, 일기나 다른 형태의 글쓰기, 예술, 혹은 이러한 훈련을 의식하고 고안된 자기반성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요점은 내 삶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에게, "지금까지의 길을 내게 더 이상 이롭지 않아. 이제는 끝내겠어. 다르게 나아갈 동기를 찾기 위해 이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라고 말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일단 그런 시간을 갖고 동기를 찾았다면, 여러분은 예비 훈련을 한 것이다.

예비 훈련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이자, 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가장 즐겨 택하는 방식은 '좌선 수행(참선)'이다. 명상 수련을, 가능하다면 매일 수련을 시작하고, 규칙적으로 방석에 앉아 호흡하고 자기 신체를 느낌으로써 영적 영감을, 내 삶에서 새로운 과정의 시동을 거는 데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예비 훈련의 한 방식으로서 티베트 불교와 대승불교의 전통적 명상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 명상법에는 생각해야 할 네 가지 사실이 존재한다. 이 사실들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것들이 그 얼마나 진실인지 깨달을 만큼 충분히 오래, 열심히 생각한다면 이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변화시킬 것이며,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동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 성찰하는 연습의 첫 번째는 그것을 읽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읽고 또 읽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그것에 대해 일기를 쓰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참선 수련이나 개인적 성찰을 위해 따로 마련한 시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다.

성찰로 깨닫는 현실

이 네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삶은 드물고도 귀중하다.

우리의 삶이 있는 몸은 드물고 귀중한 행운의 선물이며, 우리 인간의 마음-정체성과 가치와 사고와 미와 자율적 선택을 지니는 경지에 이른 의식-은 비길 데 없이 소중하다. 이토록 드물고 귀중한 선물을 받은 당신이, 어떻게 여태껏 인간으로서의 목표를 이룰 최선의, 지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단 말인가? 어떻게 여태껏 지혜와 자비를-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를-발현하기 위해 나의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극복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단 말인가? 인간 삶의 귀중함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가지고 지금 이상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둘째, 죽음은 절대적 필연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균일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시계로 균등하게 측정되는 물체가 아니다. 실제로 시간은 주관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더욱 빨리 간다. 갓난아기에게 하루나 일주일은 마치 영원과도 같다. 너무나 많은 경험과 배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마치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릿느릿 기어간다. 그러나 중년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5년도 상당히 빨리 흘러간다. 시간의 흐름은 실제로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가속화된다. 남은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의 문제다.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적으며,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돌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의 불가피성과 시간의 희소성은, 삶을 변화시킬 견고한 동기를 유발하고 싶다면 꼭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다.

셋째, 우리의 행동은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

불교에서 업(業, karma)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신비적이거나 숙명론적인 관념이 아니다. 업이란 그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책을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이 시점까지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의도가 얼마나 진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계에 미세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그리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힘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통령, 시장, 노벨상 수상자, 팝스타, 불교 성인들은 중요한 인물이지만 나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선한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가, 아무런 도움도 보태지 않고 일을 더 악화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는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진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자기 삶을 돌보고 지혜와 자비와 회복력을 키우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언젠가 맞닥뜨릴 피치 못할 괴로움에 대비하여 마음과 가슴을 준비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사고나 손실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함을 알기 때문에 자동차나 집에 대해 보험을 들어 둔다. 또 건강을 지켜야 함을 알기 때문에 병원에 간다. 그런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든 확실히 닥쳐올 괴로움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마음과 가슴을 방어하고 강화할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걸까? 어쩌면 그 필요성을 그처럼 오랫동안 무시할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성찰이 바로 예비 훈련을 이룬다. 이 성찰을 통해, 삶의 이 냉엄한 현실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대응은 바로 일종의 영적 훈련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반드시 관습적 의미의 종교나 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 인간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삶이라는 선물이자 문제에 대응하여 가능한 한 진지하게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노먼 피셔는

시인이자 젠 프리스트(Zen Priest)다. 서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규모가 큰 새로운 불교 공동체인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에서 오랫동안 선 수행을 지도해왔고, 샌프란시스코 젠 센터에서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선불교의 가르침을 서양 문화의 토양에 맞게 새롭게 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에브리데이 젠 공동체의 설립자이자 상임 법사, 그리고 정신적 구심이다.

이 글은 〈마음-훈련 미친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기 위한 59가지 매뉴얼〉(도서출판 팡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참 불교방송" 출연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본 "참불교 방송"은 케이블 방송국인 현대미디어 에서 운영 하는 모바일 케이블 방송인 "에브리 온TV" 어플 을 통해서 채널을 런칭 하여 시험방송을 마치고 샘플링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pc로만 사용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휴대폰(모바일)로 대부분 사용하듯 방송도 케이블 티비로 가정의 TV에서 보던 방식이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대로 바뀌는 시점에 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방송인 "에브리 온" 방송은 케이블에서 시청하는 대부분의 채널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청 할 수 있고 불교 채널도 기존 2개의 채널에 "참불교 방송"이 추가되어 총 3개의 불교채널이 방송되며 약 260개의 기존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 하실 관심 있는 스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좋은 법문과 방송에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재의 방송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된 프로그램은 신도들께 유튜브 와 카카오톡 이나 밴드 또는 문자로 동영상 보낼 수 있게 제작 해 드립니다.

방송시청 방법 :

휴대폰 에서 "에브리 온 TV" 어플 설치 (EVERY ON TV)
방송 분류에서 종교 선택 "참불교 방송" 선택시청
채널 : 300번
에브리온 TV

방송문의: 070-7766-6360(代)
010-4058-7553

참 불교방송 현대미디어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NEW 임해 밭 죽순 식물성 탈백 콩고기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7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2,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폴리페놀은 항산화 능력(활성산소 제거)이 6년근 홍삼보다 65배, 블루베리보다 44배



임해 밭 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6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임해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임해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임해]

육임실전 비법 출간

육임으로 쓴 세계 최초의 육임실전비법이다. 지금까지 이론책은 많았지만 육임으로 실전법이 나온 책이 없었다. 이론을 많이 알아도 적용방식을 모르면 공부하는 시간만 허비하고 정확한 점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전방법을 적용하는 공식으로 각각의 정단에 적용하여 만든 비술이다. 생년월시로 보는 사주와 신수는 물론이고 시간법으로 보는 초사 잡는 법, 목적사 구별법 등으로 편리하게 (e-book) 전자책으로 출간하였다. 명리, 주역 등을 공부하신 분도 실전방법을 알면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전비법 30만원, 출판기념 이벤트로
육임실전비법 + 수강 3개월 – 합 50만원
50명 선착순 모집!

육임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 프로그램)
6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한정 10대 e-book 기념 파격판매!
e-book 교보문고에서도 구입가능!

http://www.사주보궁.com
전화 02)793-7333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74호 현대불교
2017년 11월 29일(10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한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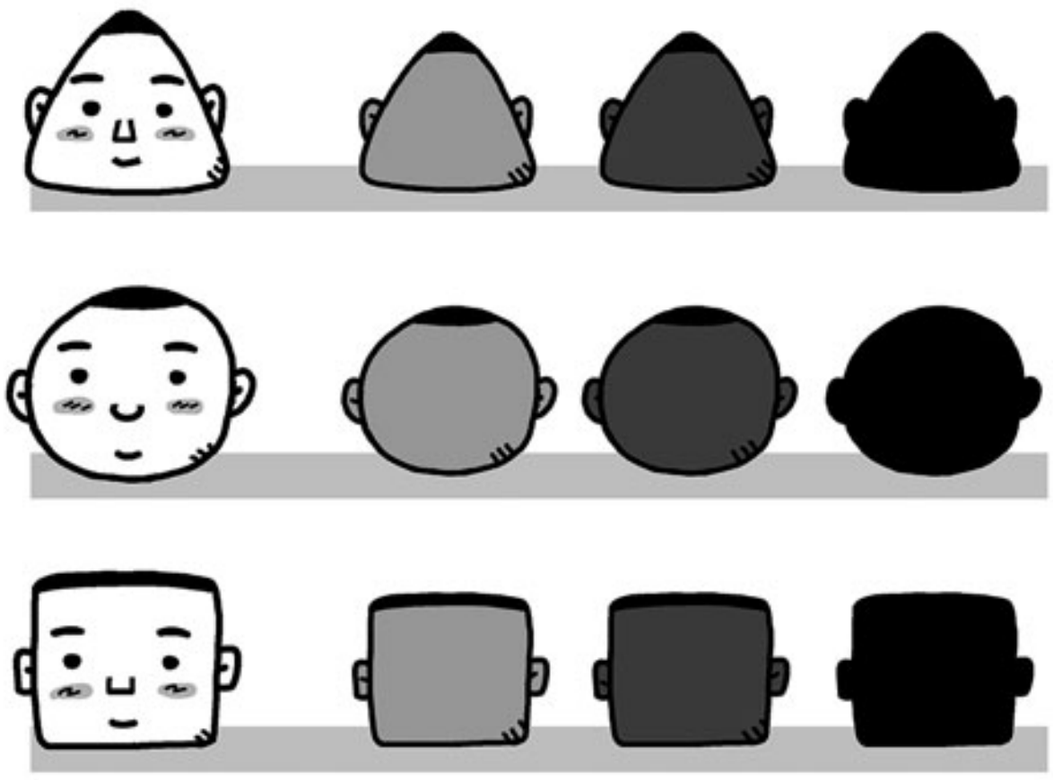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집에 태어났다가 저 집에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합니다. 이렇게 둥글리면서 끝 간 데 없이, 종점이 따로 없고 시발점이 따로 없이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생활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모습을 자꾸자꾸 바꿔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 모두가, 애벌레든 짐승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애든 어른이든, 남의 집의 아버지든 남의 집의 할아버지든 남의 집의 자식이든 어찌 내 자식이 아니며 내 부모가 아니며 어찌 그것이 내 생명이 아니며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런 점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전에 나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년 동안을, 거리로 다니는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국수를 서로 사 먹으면서 한 3년 그렇게 쫓아다녀 봤습니다. 낮에는 여러분하고 있으면서 저녁나절이 되면은 그 사람네들을 한번 검토해 본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 얻어오고 훔쳐 가지고 오지 않으면 막 피가 나도록 매를 맞고 양냥이뼈가 어그러지도록 매 맞는 애를 봤습니다. 그 추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들어가면 되나.' 하고 어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혹혹 불면서 깡통을 옆에 놓고 돈을 세는 걸 봤습니다. 돈을 세어서 얼마는 다른 데 넣고서 고거 몇백 원 남는 것을 입이라도 축이려고 주머니에다 넣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새끼들이 남의 새끼입니까? 언제 내 새끼가 될는지, 언제 내 부모가 될는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아니겠으며 어느 아픔인들 내 아픔 아닌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나는 걔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전체 벌레까지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울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춥고 배고파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배고픈 줄도 모르고 추운 줄도 모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또는 잘못을 저지르고 죽어서 딴 모습으로 가면은 시궁창도 돼지우리도 좋은 집으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욕심이 꽉 찼으니 볏짚단도 금으로 보일 수밖에. 볏짚단도 금으로 보이고, 누렇게 마른 풀들도 금으로 방석을 해 놓은 건 줄 알아. 그러니 좋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고로 눈이 어둡고, 그릇된 행을 저질러서요. 똑바른 밝은 눈을 갖는다면, 한 마음의 청눈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잘못됨이 없을 겁니다. 진짜 자유인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사람이 못 된다면 요다음 또 쳇바퀴 돌듯 어떠한 모습을 가지든 또다시 돌아가야죠? 그러니 몇 바퀴나 돌아왔을까요?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 드릴까요? 잘 생각하세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그 고기 한 점을 보고서 고기로 보았습니다. 한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가 고기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한 점을 주니까, 고기로 보는 게 아니라 사생(四生)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생의 그릇, 즉 소 한 마리로 보았다 이 소립니다. 소 한 마리로 보이니까,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면은 사생으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생각 하나에 수십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기 한 점이. 그래서 그 고기 한 점을 딱 보는 순간에 소로 몇 바퀴나 돌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로만 몇 바퀴 돈 게 아닙니다. 짐승으로 얼마나 돌았으며, 얼마나 쫓고 쫓기고 먹혀 왔으며 이렇게 돌아왔는가 하는 걸 한눈에, 한 찰나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탁 입에다, 보는 순간 벌써 자기는 요리를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탁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고 치워 버렸으나 자기가 됐더랍니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소 한 마리를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았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아선 안 됩니다. 소 한 마리를 다 먹고 보니까 자기가 돼 버려. 자기가 됐으니깐 두드러지지도 않았지? 자기가 또 거기서 소 한 마리를 꺼내니깐, 소를 꺼내도 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됐으니까 사람으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를 넣었는데 사람으로 생산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람을 꺼냈어도 소의 사생이 든 그릇이나 사람의 그릇이나 똑같이 그 사생은 마찬가지나, 차원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하고 짐승이라는 거하고는 달라. 소라 하면은 새끼를 두 마리도 낳고 세 마리도 낳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드물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아, 90% 100% 다. 그렇지만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 낳는 사람도 있긴 있지.

내가 나라는 습성, 각각. 한마음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이치를 모르고 각각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낳죠? 알도 많이 낳고 새끼들도 많이 낳고, 이런 거는 벌써 내 마음속에 흐르는 피의 그 생명들이 내가 나라고 하고 싸우면서 서로 나오거든. 서로 나와! 양보심이 없어! 양보심이 없으니깐 그냥 나올 수밖에. 다섯도 좋고 넷도 좋고 열도 좋아. 그러나 인간이라 하면 양보성이야.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리다' 하는 양보성이 있어. 그래서 불성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독특한 생명이다 이거야. 고등 생명이다 이거야. 고등 동물이다 이거지. 생명은 다 마찬가지지만 차원이 말이야.

내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네, 말을.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어서 이리로도 들어갔다가 저리로도 들어갔다가 이러거든, 그냥. 그러니, 하하하, 양해하시고 깊이 잘 들어 주세요. 그 뜻만 알면 되니까요. 나는 이 골목 저 골목 기웃기웃거리면서 얘길 하더라도 듣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골목골목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전력에 바로 전부 가설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법망이라고 한답니다. 이 공중의 법망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잘 들으세요. 어느 골목을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그래서 생명 자체가 그렇게 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 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얽히고설킨 게 그냥 몰락 벗어지는 겁니다. 벗어지느냐, 더 지지하게 짊어지고 다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원통해서 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뭐가 원통합니까? 이 몸뚱이가 공(空)해서 한 찰나에 살다가 한 찰나에 구름이 흩어지듯 흩어지는 몸뚱이,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욕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욕심 때문에. 나라는 욕심이 없다면 싱그럽게 사실 수 있을 텐데, 한 찰나 찰나 사람이 넓게 볼 수 있고, 넓게 들을 수 있고, 넓게 일할 수 있고 지혜의 샘물은 골목골목에서, 그 샘물이 말입니다, 솟아 흐르듯이 좋은데 말입니다. 싱싱하고 좋은데. 이걸 모르시고선 자꾸 몸 하나에 끄달리니 전체에 끄달릴 수밖에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 수만 생명이 들어 있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피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살 속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제일이라고 할까요? 그 중생들이 다 받쳐 줘서 내가 이렇게, 부처가 떡, 눈코가 의젓하게 달리고, 손발이 턱 있어서 평발을 해 가지곤 턱 딛고 다니면서, 그래 내가 제일이라고 하시겠어요? 누가 지금 그렇게 딛고 다니게 해 드리는데 상구보리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화중생은 모르고요?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부처가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이것이 내가 태어난 태초고, 나로 태어난 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내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야 만 가지 맛이 납니다

☞ A17면에서 계속

게 화두지 남한테 '무(無)' 자 화두를 받는다, '이 뭣고' 화두를 받는다 해서 실과를 익게 할 수 있을까요? 남한테서 따 온 실과는 무르익지 못합니다. 딴 나무에서 따 온 실과이기 때문에, 제 나무에서 익지 못한 실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고 떫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썩습니다. 내 나무에서, 잘났든 못났든 내 나무에서 실과가 무르익어야 만 가지 맛이 납니다. 만 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 도리를 아신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의 법을 그대로 쓰시고, 유의법이 둘이 아니게끔 쓰시는 까닭에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고, 이름해서 법신(法身)이라고 하고, 이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얘기도 차분하게 못했지만, 앵커리지에 처음에 가서 보니까 사는 게 너무도 급급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하루 종일 나갔다가 아침에 퇴근을 하고, 부부가 다 밥벌이를 하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들어와서 같이 오순도순 애들하고 밥도 먹고 그래야 사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애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니 내가 보기는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네들은 이럭하고도 살고 싶소? 아니, 산다고 하오? 바쁘다는 생각이 안 들고 편안하오?" 하니까. "편안치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부부지간에 애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것도 살맛나는 살림인가?" 내가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니 어떡합니까? 내가 아침에 밥일을 하러 나오면 남편은 낮에 나가니 일주일에 두 번 만나기 어렵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다가도 낮에 같이 일을 나갈 수도 있고 밤에 또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렇답니다. 그러니 참, 나는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더라고요, 촌놈이 돼서 그런지.

애들도 그냥 한국말을 하는데 반말을 해요. 아예 반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외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말이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하. 그저 모두 반말이에요. 모두 한국말을 하면서도 반말을 해요. 외국 사람이라면 그건 그렇다고 보지만 아, 이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그렇게 반말을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본위를 따라서 지조가 있어야지 그렇게 지조가 없어서 쓰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왜 지조가 없느냐고 합디다. 그래서 아니, 늙은이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고 애를 봐도 "이랬어, 저랬어" 하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런 지조가 없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지조 없는 사람 난 못 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고쳐 나가려면 스님이 오래 계셔 주셔야 될 겁니다." 이러는 거라. 아니, 스님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말을 가르칩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 그런데 미국 사람이, 거짓말 보태서요, 100명입니다. 그럼 50명이죠? 하하하. 그렇게 왔는데 거기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외국 사람이 몇 명도 어려울 텐데 한 50명이 왔다고 합디다. 모두 합해서 그저 한 60명, 70명 되는데 말이에요,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영어는 잘하는데 말입니다. 불교 용어를 모르니까 내 말을 받아서 통역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또 쉽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요, 글쎄. 어렵게나 뭐 말합니까, 어디? 내가 본래 그렇게 거드름 피우는 한문을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주 쉽죠. 아, 그랬는데 통역을 해 주지 못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옆의 사람한테 나는 그냥 한국 사람만 듣게 할 테니 너는 책을 읽고 종이에 써 가지고 영어로 하라 그랬죠. 아, 그럭할 수밖에 없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깐 하고 나왔는데 이 외국 사람들이, 나는 키가 작고 외국 사람들은 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떡합니까, 또. 아, 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어깨에도 차지 않는 겁니다. 하하하. 한편으로는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마는 그래도 조그마한 고추가 매운, 톡 쏘는 기운이 있으니 '너, 맛 좀 봐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아, 키스를 하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하하하. 아, 이 머리가 빡빡 깎였으니까 키스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있으니 걱정입니까? 그냥 내려다보고 키스하면 됐지. 하하하. 참, 우스운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머리는 피하고 미국 여자들하고는 여기 이마에다가 했죠, 할 수 없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속에서 웃음이 나고 한편으로는 참, 종류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뭐, 키 큰 사람 부럽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네들도 키 작은 거 부럽지 않았을 겁니다. 역시 피차에 마찬가지니까요. 하하하.

그러고 나와서 이제 음식점에 갔습니다. 아, 그런데 음식점에 데리고 간 한국 사람더러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은 우리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음식점 주인이 미국 사람인데 당신 조카들이냐고 그러거든요. 아, 이거 또 낭패 아닙니까? 거기는 머리를 깎은 사람이 없으니까. 승려라는 것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서 볼 땐 그럴 수밖에요. 아, 조카들이 한국에서 왔느냐고,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이가 또, 그 뭐라고 말을 합니까? 스님네들을 모르니까요. 듣고선 우리를 안내하던 그 사람이 우스워 죽겠다고 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 말입니다,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허허허, 얼마나 우습습니까. '야, 머리를 깎고 조그맣고 그러니까 조카들인 줄 알았구나!' 하하하.

그럭하고 한 가지 또 우스운 게 뭐냐 하면은, '혜월'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미국 닥터 '웨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아침에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좌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각 6시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좌선을 하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싶어 돌아다보니까 글쎄,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리를 쪽 뻗고 어깨를 이렇게 올리고서는 앉아 있습니다. 그 긴 다리를 쭉 뻗고요. 하하하. 아휴 참, 그 꼴이라니 그거 참 볼 만하더군요.

그렇지만 몸뚱이는 그렇게 뻗었다 할지라도 뻗은 사이가 없고, 마음이 아리따웁고 그렇게 알려고 애를 써 주는 그 마음씨가 고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선 싱긋이 웃고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참 좋았습니다. 왜 기뻤느냐? 비록 다리가 아파서 구부릴 수가 없어서 뻗었으나 마음으로서는 내가 꼭 저 법을 배워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를 갖다 주는데 찻잔을 이렇게 보면서 먹고선 (양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이시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선 뒤를 이렇게 손을 (오른손으로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버렸더니, 먹고 싸는 걸 (오른손 주먹으로 입을 짚어 보이신 후, 똥을 누듯이 보이시고)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하하. 그래 먹고 싸는 걸 알았으니 그쯤 알렸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인간은 먹고 싸는 거다.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물, 일체가 다 먹고 싸는 거다. 그러니 여기다가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싸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하!"(양 손으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이러면서 아주 스님네들이 좋다고 이러면서, "하!"(양손으로 몸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보이시며) 이러면서 이러면서, 이러면서(오른손으로 똥을 싸듯이 보이시며), 하하하. 그리고 그 큰 몸에 과일을 아침 여섯 시면은 꼭 서너 개씩 담아서 들고 옵니다, 꽃도 들고 오고.

내년에는 한국에 나온다고 합디다. 그러니 미국 사람들이 몇이나, 대여섯 사람 올는지 몰라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랬지 어떡합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한국 구경 했느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통역을 들이대서, 한국 구경 했느냐니까 "나는 한국 구경 한 번도 못했다." 그래요. 이 자리에 나서 이 자리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네들보다 우리가 낫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왔지 않느냐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깐 그렇다고요, 우스워 죽겠다고. 그리고 거기 설산을 구경시켜 주는데, 우리 저 앞산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좋다고요, 아이구, 넓기는 하지만 그것도 좋다고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냥 환희심이 나서…, 구경시키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다음에 한국에 오면 너 설악산 한번 구경해 봐라. 네가 놀라서 자빠질 거다.' 속으로 이러고 했죠. 하하하.

그리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있는데 어느 스님이 초청을 해서 그 절에 가서 설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스님이니까 공안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거기 주장자가 기다란 게 있습디다. 법상이 이렇게 얕은데, 거기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큰스님이 거기 올라가셔야 된다고 올라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크지를 않아서, 작으니깐 다행이죠. 책상 같은 데 올라가기에는. 하하하. 그래 덩그머니 홀랑 올라앉아서 그 기다란, 나보다 더 큰 주장자를 가지고 한 번 (오른손 주먹으로 내리쳐 보이시며) 내리쳤죠. 하하하. 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도량에서 스님들이 사는데,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항상 소를 가져가 논을 갈아 줬는데 아, 몸이 아파서 논을 갈지 못한다고 통지가 왔으니 너,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쟁기를 메고 논을 갈아야겠다." 하고 주지 스님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요?" 그러거든.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제자를 한 명 보냈더니만 아, 제자가 가서 영 소를 가져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래 나중에 빈손으로 왔기에 물었더니 "오다가 하도 배가 고파 동네 사람을 모아 놓고선, 네 기둥을 박고 네 다리를 매 가지고선 홀딱 다 구워 먹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까. 구워 먹고서는 절에 어슬렁어슬렁 왔으니까. "그래서요?" 구워 먹고 오니까는, 소는 안 가져오고 여태 뭐하고 있다가 이제 오느냐고 그러는 바람에, 올 때 하도 배가 고파서 동네 사람 모아 놓고 다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워 먹었느냐 그래서 풀 갖다가 모아 놓고선 구워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둥을 박고 네 발을 매고선 거기다가 나무를 쌓고선 구워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형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이구, 이제는 큰일 났다고, 응? 그래, "동네에서 소 구워 먹었다고 고을에서 그냥 발칵 소문이 나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냥 막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뛰니까, 또 사형이 하나 있다 하는 소리가 '아, 좀 이르면 어떤가?'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아, 그럼 좀 더디면 어떤가?' 그러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스님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한 그분이 그냥, 그냥 고개를 숙여 보이시며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여러분 중에서 거기의, 그 도량의 스님이시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소 구워 먹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또 구워 먹었다는 놈은 누구고 좀 이르면 어떠냐고 했고 좀 더디면 어떠냐고 했으니 그건 무슨 까닭이냔 말입니다. 그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즉 말하자면 은사 스님으로 거기 계셨더라면 뭐라고 칭찬을 해 주셨을까요, 야단을 쳤을까요? 어떠한 말을 했을까?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게 무슨 연고입니까?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칠까요?

※위 법문은 1987년 1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 생각을 잘못하느냐 잘하느냐에 의해서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잠재의식 속에,
카세트에 얽히고설킨 게 그냥 몰락 벗어지는 겁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어떻게 살 것인가

경남 교육연수원 지정
특수 분야 직무 연수(2학점)

- 연수기간 :
  2018년 1월 10일 09:00
  ~ 1월 12일 17:00 (2박 3일 27시간)
  1월 18일 09:00 ~ 12:00(3시간)
- 연수대상 (인원) : 유, 초,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20명
- 연수장소 :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 연수비용 : 1인당 자비 부담액 5만원 (숙박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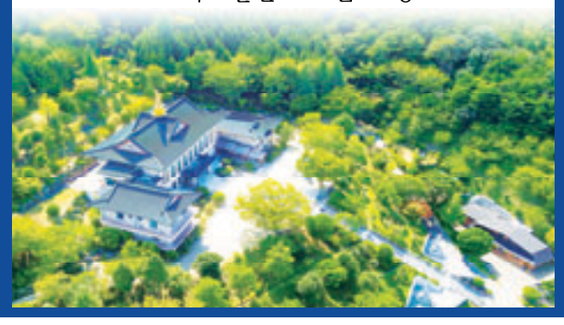
나는 쉬고 싶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는 비움의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연수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년 11월 1일 ~ 12월 8일
- 주요 강의 내용 :
  1일 :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여는 대화
  2일 : 마음의 원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3일 : 마음의 활용, 마음과 소통, 변화하는 나
- 신청문의 : 이메일, 전화로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메 일 : kmsjooin0@naver.com
  yik308@hanmail.net
- 전화문자 : 010-2529-7495
  010-7442-1586

좋은 에너지가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속
치유와 힐링의 공간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2박 3일간의 마음 여행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최-저-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 불자 세상보기 |

핵발전소 다시 생각합시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경주 지진 1년 만에 또 강진
국내 24기 핵발전소 주위로
올해에만 37번 지진 발생해

지진 1년 동안 무엇 대처했나
활성단층지도 마련 전무 상황

거대 기계 안전성 담보 힘들어
핵폐기물에 미래 안전 불투명
핵발전소는 지금 당장 멈춰야

수능 바로 전날인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에 비해 흔들림이 컸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진이 감지될 정도였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다.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결국 수능 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포항보다 1년 2개월 전에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있었다. 지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 발생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으니 내진설계를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핵발전소였다. 경주 월성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특히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다했는데도 10년을 연장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포항과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직선거리는 대략 45km, 포항시 북구에서 고리 핵발전소까진 대략 80km 정도 떨어져있다. 게다가 경주 지진 이후 전문가들은 핵발전소 밀집 지역 아래로 활성단층대가 여럿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 부지 반경 50km 이내에 올해에만 37번의 지진(규모 2.0~3.3)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핵발전소 지역에서 2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잦은 지진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활성단층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번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1/4정도였지만 그 피해가 훨씬 컸던 까닭은 경주 지진의 경우 진원지가 15km이었지만 포항은 9km 정도로 얕았기 때문이다. 작년 경주 지진 직후 세계적 지진전문가인 가사하라 준조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여러 지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표 가까이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놓았을까? 국내에는 활성단층 지도 자체가 없다. 다시 말해 활성단층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조사도 없이 핵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진경보보다 시급한 것이 내진설계다. 게다가 포항시 북구 일대 30여 곳에서는 지진 진동으로 지하수가 모래 토양과 뒤엉키며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마저 진행되고 있다.

포항에서 첫 지진이 나고 20여 분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이 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핵발전소는 한 사람이 전체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 기계다. 지난 6월 19일 영구 폐쇄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규모가 여타 핵발전소 가운데 가장 작다. 그런 고리 1호기에 배관이 170km, 전기선이 1700km, 연결밸브가 3만개, 용접부위가 자그마치 6만 5000여 곳 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이 많은 배관과 전기선, 연결밸브, 용접 부위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핵발전소의 정상사고를 얘기했다. 핵발전소는 정상 상태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만치 복잡한 거대기계이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이 정도라면 이후 건설된 핵발전소의 상황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할지 그저 예측만 할 뿐이다. 포항에서 270여 km 떨어진 서울도 꽤나 흔들렸다. 과연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진 발생 후 20분 만에 결론내릴 수 있을까?

유정물, 무정물이 중중무진 상호의존적인 관계성 속에 놓여있다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이 핵발전소다. 핵에너지는 공존이 아닌 핵의 분열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핵 아래에서 생명 하나하나는 그저 미물에 불과하리만큼 핵은 힘을 중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물질이다. 남겨진 핵폐기물로 미래세대의 평화는 이미 저당 잡혀 있다. 그러니 핵발전소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社說

軍법요집 개정, 환영한다

조계종 군포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방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판형을 유지해 온 국군법요집을 전면 개정하여 군승 파송 50주년인 내년부터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군포교는 청년포교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매년 10만 명이 넘게 훈련소에서 수계를 받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법당에서 장병들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요집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연대급 이상을 제외한 일선 부대의 법당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법요집 의존도가 높다.

전면 개정되는 법요집은 칼라일 뿐만 아니라 사진과 용어풀이도 함께 있다고 하니 장병 신행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군종교구는 맞춤형 법요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경전을 소개하는 책자와 모음집, 전시에 사용 가능한 법요집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군 신행활동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어졌으면 한다. 군장병을 위한 불교 만화를 비롯해, 불교 편지지 등 신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다.

물론 이런 일은 조계종 군종교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개개인의 뜻있는 후원도 절실하다.

군포교는 청년포교의 다른 이름이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춥고 배고플 때다. 이럴 때 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마른 이가 우물을 만나고, 배고픈 이가 따뜻한 쌀밥을 접했을 때와 같다. 군승파송 50년을 맞아 군종교구가 다양한 군포교 혁신안을 준비하는 지금,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

종지협 20주년에 부쳐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20돌을 맞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종지협은 11월 24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종지협은 IMF 외환위기로 혼란스러웠던 1997년에 창립됐다. 당시 국민 심성계도와 종교간 화합과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종지협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민족종교가 모인 연합기구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기구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월주 스님(1대)을 시작으로 정대 스님(5대), 법장 스님(6대), 지관 스님(7대), 자승 스님(9 · 10대)이 의장직에 올랐다.

창립 이래 종지협은 대한민국종교예술제 · 이웃종교 성지순례 등 종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또한 환경 · 독도 문제 · 통일 등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20주년을 맞은 종지협은 미래의 20년을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특히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윤리, 도덕성 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 △통일 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다. 해외에서 보여지는 극심한 종교 갈등을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불씨는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간 화합은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종지협이 앞으로도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꾸준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국토부, 문화유산 가치 상기하길

"최근 벌어진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명 삭제 문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1월 21일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일갈한 내용이다. 취임 인사차 방문한 정부 관료에게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뼈아픈 지적을 한 것은 그만큼 현재 사태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과 문화재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지난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를 추진한 것은 현행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31일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 사적지 · 경승지 표지가 제외됐고, 2006년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도 표시할 수 없게 변경됐다. 이렇게 될 경우 해인사, 불국사 등 세계 유산을 보유한 사찰부터 지역 명찰(名刹)들은 고속도로 표지판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표지판 철거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통사찰은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전통문화의 보고다. 안내를 부정하는 것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거된 68개의 사찰 표지판을 복원하고 현 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미 불교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가 국가 제작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알고가'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8.27범불교도 대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치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팔만대장경, 석굴암 등을 단순한 '종교 시설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불교문화유산과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 표지판 문제를 타종교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주변에 널려 있는 빨간 십자가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 수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한 것은 그 가치가 높고, 보존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정도로 보고 표지판에서 넣고 빼고를 판단하려 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잘못된 것은 빠르게 바로 잡는 것이 상책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했다. '제2의 알고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탐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 "칭짱열차" 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초-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이후탈라-담불라-시기리야-캔디-콜롬보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너'의 이름은?
대한민국 No.1 불교 미디어 그룹
글로벌 불교 열풍의 중심
불교 신행문화의 트렌드 세터
건강하고 올바른 웰라이프 방송
나의 이름은 'BTN' 입니다.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방송 포교 한 길… BBS · BTN 개국 주역



이태행 씨의 부드러운 미소 속에는 불심으로 일궈온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그동안 그가 제작한 영상 속에서 남다른 여유가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불심' 때문일 것이다.

화제의 인물

2017 불교언론인상 수상한
이태행 방송인 (72 · 前 BTN 방송본부장)

현대 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얼마 전, 우리는 촛불과 전파의 힘이 어떤 것인지 깊게 체험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불교 미디어 하나가 태어나고 길러지는 것은 소중한 불사다. 그 귀한 불사 중에는 BBS와 BTN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불사에 남다른 감회를 갖는 이가 있다. 두 방송사의 사원 번호 '1', 이태행 씨다. 그는 두 방송사 탄생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또한 일구는 일에 오랜 세월 헌신했다. 그 공로로 그는 2017년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방송 최초 범종소리 시보 시도
BBS 첫 전파 타고 개국 알려
BBS · BTN 양방송사 사원번호 1
BBS · BTN 개국 중추역할

불교 영상의 새장 열다
'새벽예불' '한국의 명찰' 등
불교 영상미학 사회에 선보여
KBS '신라의 신비' 한국방송대상

범종 소리로 시보 알리다…BBS 첫 전파

1990년 5월 1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BBS 불교방송입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각에 맞추어 범종 소리가 들려온다. 일반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시보 시그널이다. 법음 가득한 범종 소리가 아침을 기다리는 온 사바에 울려 퍼진다. BBS 불교방송의 개국을 알리는 첫 전파였다. 전무후무한 시보 시그널이었다. 방송계에서는 일대 사건이었다. 훗날 일본 방송사에서 취재를 했을 정도였다. 기획적인 부분도 획기적이었으며,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제작이었다. BBS 불교방송은 그렇게 시작됐다.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범종 소리 시보는 당시 BBS 불교방송 개국 준비팀을 이끌고 있었던 이태행 기획실장의 작품이다.

"그 때의 감격을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찰에서 어쩌다 듣는 범종 소리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지는데, 개국의 첫 전파를 타고 온 세상으로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의 감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죠.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된 느낌이었어요. 범종 소리로 시보 시그널을 만들고 나서 첫 전파를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 날 그 순간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찼던 날 중의 하루였어요.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씨는 그 시각 고속도로에 있었다. 여주에서 문막을 지날 때였다. 이 씨는 시계를 보고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라디오의 주파수를 101.9에 맞추고 자신이 제작한 범종 소리 시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BBS의 첫 전파를 타고 들려오는 범종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범종 소리에 앞서 나오는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슬로건도 그의 작품이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여 중생의 보살화, 사회의 정토화를 추구하고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참된 발전을 기하며 나아가 새로운 인류문명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0년 5월 1일, 조계종 등 여러 종단과 대한불교진흥원을 비롯한 불교단체, 그리고 2천만 불자의 원력과 보시로 태어났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하여 2008년부터는 BBS TV로 영상포교를 시작, 불교종합미디어로 면모를 새롭게 하여 방송포교의 원력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다보빌딩 사무실에는 제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BBS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원번호 1, 이태행. 이 씨는 1989년 BBS 불교방송 준비팀을 만들고 개국을 준비한다. 준비팀 기획실장을 맡은 그는 자금모금, 직원채용, 방송편성 등 개국에 필요한 전반을 기획하고 만들어간다.

설립자금 모금을 위해 전국의 사찰을 찾아 모금 법회를 열었다. 여러 종단과 단체, 불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법회에 동참해 모금을 도왔다. 긴 여정이었다. 8개월 동안 40억이 모였다.

직원채용과 진행자 섭외도 꼼꼼하게 진행했다. 특히 진행자 섭외는 중요한 문제였다.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방송사다. 2천만 불자의 포교 원력이 만들어낸 불사다. 진정한 포교의 목표는 비불자라고 생각한 이 씨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그들을 불법에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선 프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청취자의 귀를 두드려야 하는 진행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도 마찬가지였다. 이 씨는 불교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불교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불교를 외치지 않아도 불교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었다.

하루에 한 명이라도 불법에 눈 뜨게 하는 것이 BBS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스친 방송이 무명의 대중을 부처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간대별로 알맞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아직 불법과 멀리 있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두드리고 싶었다.

모든 프로그램의 제목에서 영문을 걷어내고 불법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한글 제목을 붙였다. 그리고 어려운 불교용어와 자칫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걷어내 일반 청취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했다.

이 씨의 생각들은 결실로 돌아왔다. 청취율 2.6%~2.8%.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앞서 출발했던 타종교의 방송사보다 높은 수치였다.

BBS는 예상보다 높은 청취율에 힘입어 개국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했다. 이것 역시 적자를 각오했던 방송사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박원자의 '인생을 바꾼 108배'

B5 문화 오치규 개인전, '餘白의 마음으로 다가 溫'

B6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엔랴쿠지

이태행 씨는?

1945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1967년 조선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했고, 그 해 KBS에 입사하여 1987년까지 문화부 차장, 문화과학부장, 기획보도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8년 88올림픽조직위원회 공연기획관으로 일했으며, 1989년부터 1994년까지 BBS 불교방송에서 편성제작국장, 기획실장,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1994년부터 1999년까지 BTN 불교텔레비전에서 편성제작국장, 방송본부장을 역임했다. 작품으로는 다큐멘터리 '신라의 신비', '신왕오천축국전' 등이 있으며, 1981년 한국방송대상 최우수작품상과 2017년 불교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어려서 부모님을 따라 사찰에서 살다시피한 이태행 씨는 방송제작의 영감을 이 때 얻었다.


1990년 5월 BBS 개국공로패를 받는 이태행 씨.


1994년 10월 BTN 방송본부장으로 임명 받는 모습.

불교 '깨침의 소리' 전하는데 인생 역주

방송인 이전에 불자, 불교는 생활
부모님 지시로 네 살 때부터 절 생활
목탁 · 독경 소리서 삶의 영감
불교사상 담은 콘텐츠 밑거름
2017년 불교언론인상 수상 선정

'이태행 방송인' B1면에서 계속

수치상의 결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BBS 프로그램인 '김광석의 한 밤의 음악편지'가 방송되고 있었다. 그 시간 김광석 씨의 지인인 모 유명 가수가 차 안에서 방송을 듣고 있었다. 마침 방송국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그 가수는 BBS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김광석을 찾아갔다.

"그 때 그 가수는 불교방송이 이런 방송인지 몰랐다며, 불교가 이런 종교인지 몰랐다며, 김광석의 목소리에 끌려 방송국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방송을 들으며 방송국 앞을 지나다 방송에 이끌려 방송국을 찾은 유명인들과 불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 때 많은 보람과 희열을 경험했죠.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이라는 슬로건이 떠올랐던 순간이었어요."

다시 사원번호 '1'… 이번엔 BTN

1995년 3월 1일, 불교계에는 또 하나의 방송사가 탄생한다. 이번엔 텔레비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양한 불교전통문화를 영상으로 널리 알리고,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BTN 불교텔레비전이다. 이번에도 그 중추에는 이 씨가 있었다.

이 씨는 1994년,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BBS 라디오국 안에 영상제작팀을 구성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법인을 달리하게 되자 이 씨는 영상포교에 대한 꿈을 펼 수 없게 되었고, 개국을 준비하고 있던 BTN 불교텔레비전으로 자리를 옮긴다. 다시 사원번호 1, 이태행.

이 씨는 이번엔 영상물 제작에 집중한다. BTN의 탄생은 영상포교라는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었기에 그는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스텝들에게 최선의 환경과 장비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이 씨가 편성제작국장으로서 관심과 공을 들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새벽예불 영상과 기획연재물 '한국의 명찰'이다. 그 동안 영상에 담기 힘들었던 '새벽예불' 영상은 많은 불자들이 안방에서 '새벽예불'의 장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2년 여 동안 방영된 '한국의 명찰'은 송광사, 통도사 등 한국의 명찰을 찾아 그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게 평가 받았다. 100여 편에 달하는 '한국의 명찰'은 타 방송사나 연구 기관에서 가장 먼저 찾아보는 한국사찰자료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문화의 많은 부분은 불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BTN 개국이 그 많은 불교의 콘텐츠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영상을 제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경(譯經)이며, 사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팔만대장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영상포교라는 새로운 길을 연 BTN 불교텔레비전의 대작불사엔 그의 노력이 또 한 번 보태졌다. 그는 편성제작국장, 방송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미 시작된 인연

두 방송사의 '사원번호 1'이란 것도 쉽지 않은 인연일 것이다. 이 씨의 쉽지 않은 그 인연은 아마도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BBS와 BTN의 인연이 있기 전 KBS에서 20년간 근무했다. 1987년부터 KBS 문화부에서 종교담당 기자로 일했다. 종교 중에서도 그를 끌어당긴 것은 불교였다. 문화부 차장, 문화과학부장, 기획보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문화프로그램의 새로운 영역을 열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은 신라불교의 문화적 우수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월요기획 '신라의 신비'와 혜초 스님의 구법과정을 따라간 '신왕오천축국전'이다.

첨성대, 석굴암, 금관, 천마총 등 총 10편으로 구성된 '신라의 신비'는 불교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통일신라가 불교로 이뤄낸 문화적 융성을 조명했다. '신라의 신비'는 1981년 제8회 한국방송대상 최우수 작품상(대통령상)을 수상한다.

제작기간 2년, 총 8편으로 구성된 '신왕오천축국전'은 일본 NHK의 '실크로드'와 비교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1988년, 그는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연기획관으로 잠시 일하게 된다.

"불교를 통해 올림픽 홍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가 생각해 낸 것은 '한강유등제'였다. 10만 개의 유등을 한강에 띄웠다. 장관이었다. 그 때 잠실에서 반포에 이르는 강변길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불자들의 관광버스로 가득했다. 그렇게 자리와 상관없이 늘 불교를 붙들고 살았던 인연이 지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이다.

"네 살 때부터 절에 살았죠"

이 씨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에게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그의 불교는 '모태'였다. 아버지의 불교, 어머니의 불교가 있었다. 돌아보면 그의 KBS 시절에서도 불교가 그를 끌어당긴 것이 아니라 그가 불교를 챙긴 것이었다.

"저는 네 살 때부터 1년에 서너 달은 절에서 살았어요."

이 씨는 열한 살까지 전남 무안 바닷가 마을에서 살았다. 집 근처에 절이 있었다. 절은 이 씨의 집안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아버지의 인연, 어머니의 인연이 오래되었다. 이 씨의 집안과 절의 대중은 가족처럼 살았다. 승과 속이 아니었다.

"절에 도울 일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말 없이 나섰고, 우리 집에 일이 있으면 절의 대중이 또 두 말 없이 나섰죠."

이 씨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절 마당을 걸었다. 그리고 네 살 때부터는 서너 달 씩 절에서 살곤 했다. 부모님이 일부러 보낸 것이었다. 일종의 공부였다. 서당에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이 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두 말 없이 나섰다. 그리고 이 씨는 어머니가 데리러 올 때까지 두 말 없이 절에서 살았다. 스님과 함께 새벽에 일어났고, 예불하는 스님 곁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뜻도 모르는 예불문을 따라 했을 것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합장을 했을 것이다. 목탁 소리, 종소리, 독경 소리, 풍경 소리, 절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까지. 이 씨의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의 '이태행'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반 행자였죠.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절에서 살았던 기억들이 조금 씩은 머릿속에, 몸속에 남아 있어요. 저에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이고 한 집안의 문화였어요."

그랬다. 이태행의 삶엔 불교가 '의식주' 같은 것이었다. 뜻 모를 문자였지만 어린 시절 그의 눈을 스친 부처님의 문자들이 아마도 그의 걸음걸이가 되었을 것이고, 말투가 되었을 것이며, 세상을 보는 눈 속 어딘가에 분명히 남았을 것이다. 그가 적지 않은 세월동안 불교를 일군 것은 그가 불교로 일궈졌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진 않을 것 같다.

"집 근처에 다니는 절이 있는데, 몇 주째 일요법회가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쓰이네요."

근황을 묻자 현역에서 은퇴한 이 씨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했다. 그저 집 근처 절에 가는 일이 전부라고 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삼보일배로 오른 봉정암서 만난 '참 나'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㉓ 봉정암 삼보일배 등반 고행기

무한도전, 봉정암 삼보일배 순례

설악산 봉정암으로 삼보일배를 다녀와 다음날 내 하루 일과 수행인 3백배를 마치고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는 '금강카페'에서는 매해 11월 중순 쯤에 봉정암으로 삼보일배 순례를 떠난다. 동심거사를 주축으로 거행되는 이 순례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된다. 나는 세 번째 도전이었다. 몇 년 전 참가했던 두 번은 모두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중도에 내려와야 했기 때문에 첫 도전이나 마찬가지였다.

봉정암 삼보일배 결전의 날, 새벽 3시에 아홉 사람이 백담사 법당 앞에 모였다. 전날 저녁예불을 올리고 숙소로 돌아갈 때 실눈이 내려 올라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했다.

이번에 함께 하는 도반들은 동심, 현로, 경란, 정진, 보리씨, 이정, 전여, 박보살, 그리고 나다. 일행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동심거사. 이 순례단의 리더로 열다섯 번 정도 삼보일배로 봉정암을 다녀왔다. 삼보일배를 하며 생사의 기로를 넘기기도 한 사십대 중반의 백전노장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매해 진행되는 이 순례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경험과 끊임없는 수행으로 보살의 삶을 실천하며 출가자처럼 사는 도반이다. 다음은 오십대 초반의 헤어디자이너 현로거사.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왔던 애처가이자 티벳승 같은 분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틈만 나면 인도의 다람살라, 티벳, 안나푸르나 등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그곳 수행자분들의 겸손한 삶을 배우고 수없이 절하며 수행한다. 한 번만 해봐야지 했던 봉정암 삼보일배가 이번이 어느덧 여덟 번째라는 경란보살. 절수행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 2회 연재에서 소개한 바 있는, 매사 겸손하고 남에 대한 깊은 배려가 몸에 밴 도반이다. 설악산의 품안인 원통에 사는 정진보살, 도반들이 설악산에 올 때마다 온갖 뒷수발을 다 하며 여러 차례 삼보일배에 동참한 분이다. 설악산이 좋아 설악산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왔을 만큼 설악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불교방송 아나운서인 보리씨보살, 대학생과 고등학생 남매를 둔 엄마임에도 긴 생머리의 청순함을 자랑하는 그녀는 극한 도전을 즐기는 탓에 이번에 처음 도전했다. 꾸준히 마라톤으로 체력을 키워온 그녀는 이번 처음 출전의 삼보일배를 가볍게 완주했다. 오십대 초반의 직장인 부부인 이정보살님과 전여거사님, 두 분도 처음 출전이었는데, 앞서거니 뒷서거니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마지막으로 박보살. 동심거사의 직장 동료로 이번 참가자 중 최연소이자 유일한 비불자다. 큰 키에 늘씬한 몸매,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보아 삼십대 미혼인줄 알았더니 연년생 고등학생 남매를 둔 엄마라고 했다. 출발하기 전날, 사십대 초반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녀와 함께 자면서 참가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았더니, '내 종교와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교도가 경험하는 삼보일배 수행은 어떨까, 취재자로서 나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한 동참자였다. 돌아와 메일로 그녀는 참가하게 된 동기를 성심껏 적어 보냈다.

"그동안 나는 불상을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반하는 가장 최고의 우상으로 여겨왔다. 미명의 새벽에 불상 앞에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오직 자식들과 가족의 안녕만을 비는 종교가 불교라고 생각해왔다. 그랬기에 내 종교와 다른 이유를 찾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한 불교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무지를 불자인 동료를 통해 조금씩 거둬내게 되었다. 묵묵히 현실에서의 삶에 충실하며 신실하게 보살행을 실천해 나가는 그 분을 통해 삼보일배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두 발로 산에 오르는 것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단순무지한 호기심이 발동해, 단지 그 동안 내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의미를 담고 처음 시작했다. 이번이 두 번째로 내 자신과 약속대로 끝까지 완주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참여하게 되었다."

"허리가 끊어질것 같은 큰 고통
엎드려 그대로 있고싶은 생각 뿐"
15시간 긴 여정서 싹튼 佛心

결론적으로, 힘든 내색을 비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끝까지 완주한 그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그녀로 인해 우리는 다른 종교에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은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었다.

열다섯 시간의 긴 여정에서 깨달은 것들

백담사 법당 앞에서 간단한 예식을 올리고 새벽 3시 20분에 출발했다. 세 걸음을 걷고 첫 절을 경내 마당에서 했다. 온몸을 낮추고 이마를 대지에 대면 비로소 나를 진정으로 가장 낮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방석에 이마를 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함이 있다. 한 시간 단위로 50분 동안 삼보일배를 하고 십 분씩 쉬기로 하고 길을 떠나는데, 뒤에서 보니 아홉 명의 행렬이 말할 수 없이 경건해 보였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게 절을 하며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일까.

언젠가 경험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결론지은 적이 있다. "그냥 한다!" 이보다 더, 적절한 답은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냥'이라는 이 말이 무언가에 갇히지 않은 말 같아서 참, 좋다.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을 설정해놓으면 거기에 갇히기 쉽지 않은가.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는 해발 1700미터,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5시간, 삼보일배로 가면 15시간이 걸린다. 말이 열다섯 시간이지 5~6천배를 하며 가야하는 긴 고행의 길이다. 나는 이렇게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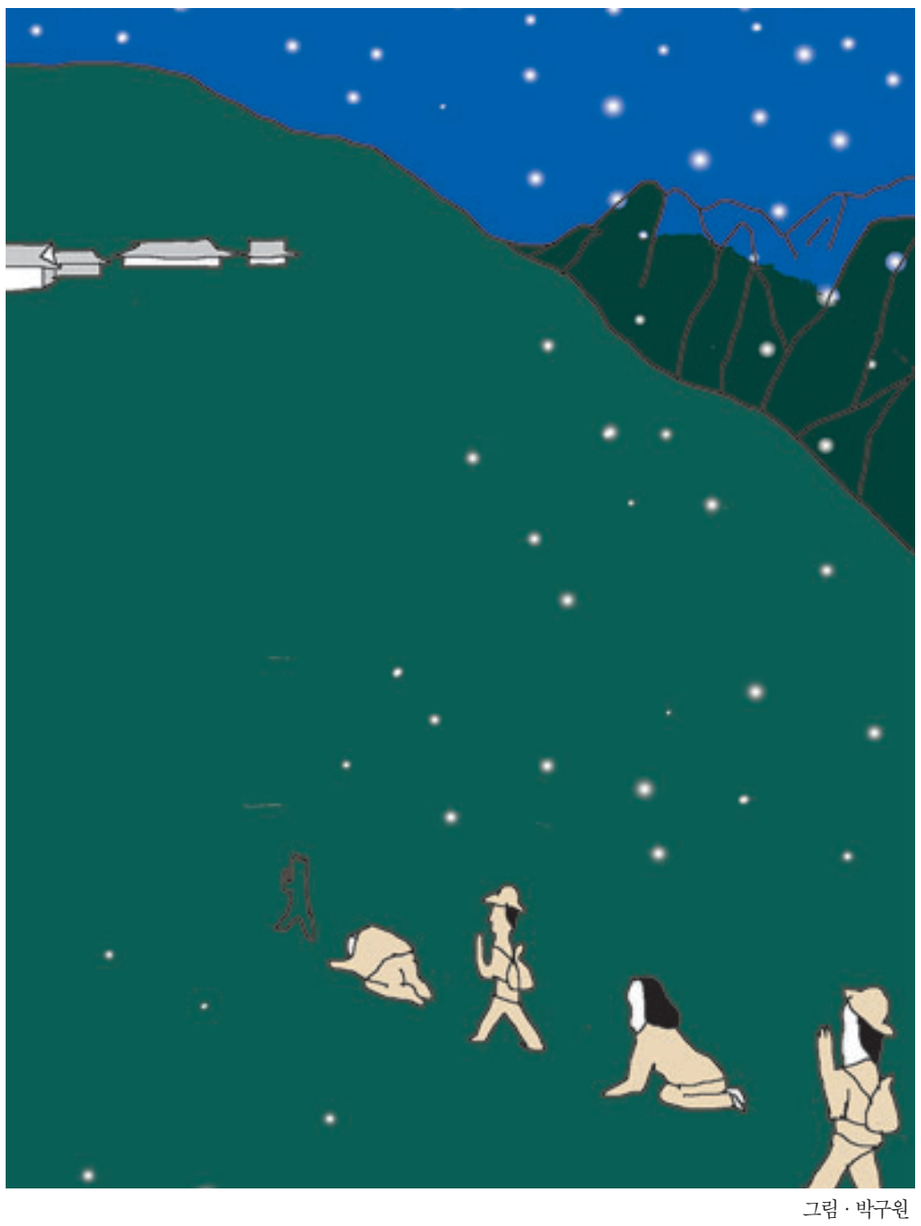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고 첫 절을 했다. 영시암까지는 오보일배, 그 다음은 자유롭게 걷다가 절하고 걷다가 절하고 천천히 설악산을 음미하면서 가리라. 외국 여행 중 일주일을 넘기다 면 슬슬 내 나라의 산하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산이 봉정암이 있는 설악산이었다. 언젠가 한번은 절을 하며 봉정암에 오르고 싶었다.

첫 번째 휴식 시간을 가질 때, 깜깜한 숲속에서 모두들 탄성을 질렀다. 별빛 때문이었다. 별들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숲속에서 우리는 걸음을 한참 떼지 못했다. 자갈길, 흙길, 낙엽진 길을 번갈아 걷으며 다시 길을 떠났다.

경험자, 초보자 할 것 없이 다들 경건하게 완벽한 자세로 절을 했다. 반듯한 길이 아닌데도 마치 평지인양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해 절하는 모습이 엄숙한 의식으로 다가왔다. 영시암까지 걸어서는 보통 한 시간쯤 걸리는 거리인데, 도착하니 8시가 넘어있었다. 봉정암까지의 삼분의 일 거리인 영시암까지 5시간 걸린 셈이다. 경험자들은 이 처음 3.5킬로미터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허리가 약한 편인 경란 보살이 의외로 힘들어했다.

"어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여기까지도 왔는데, 어떻게든 남은 길도 가게 되겠지."

정진 보살이 준비해 온 꼬마김밥으로 아침을 먹고 다시 길을 떠날 때, 첫 번째 삼보일배에서 새끼발가락이 빠졌다는 그녀가 혼잣말로 한 저 말이 마치 인생을 두고 말한 것 같아 아직까지 긴 여운으로 남아 있다.

다시 50분 동안 삼보일배를 하고 쉬는 시간, 티벳에 여러 번 다녀온 현로거사에게 순례의 길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쪽 몸이 마비된 성치 않은 몸의 삼십대 청년이었는데, 라싸까지 이르는 4500킬로미터의 순례 길에서 남이 주는 밥을 먹고 자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더라고 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고 물으니,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은 나와의 약속이니까."

3년이 꼬박 걸리는 그 길에서 그 청년은 무엇을 깨달았을 지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짐작조차 못할 것 같다. 쾌청한 날씨에 잘 먹어가며 가는 우리들 15시간의 삼보일배가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들 만의 소중한 삶이 있지 않은가. 다시 힘을 내 길을 떠난다.

오후 1시에 산속 바위에 점심상이 차려졌다. 정진보살의 평생도반께서 준비해온 굵고 실한 김밥과 과일로 원기를 보충하고 다시 길을 떠난다. 6시 쯤 도착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네 시간은 더 남은 셈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2시간은 몸이 무거워져서인지 힘들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기온이 내려가자 바위와 땅이 더 차갑게 느껴져 무릎을 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 울퉁불퉁한 찬 돌들에 무릎을 댈 때마다 내 무릎이 성하려나, 냉기가 스며들어 냉병이라도 들지 않을까 하는 잡생각이 올라오기도 했다. 편히 걸어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왔지만,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삼보일배로 올라오는 도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꾹 참고 십보일배를 했다. 평지를 걷듯 가볍게 올라가는 동심거사를 제외하고는 봉정암이 가까워오는 깔딱고개를 전후로 모두 힘들어했다. 박보살은 '숨이 차올라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엎드려 그대로 멈춰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도반님들이 기다려주고 용기를 준 그 힘으로 높다란 계단을 다시 한 번 한번 무릎을 낮추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자국 위에 두 손을 모아 몸을 낮추는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내가 아닌 다른이의 참 평안을 잠시라도 생각해보라는 동료의 충심어린 생각을 떠올리곤 했다' 고 했다.

봉정암까지 200미터를 앞두고는 정말 힘들었다. 다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한마디씩 했다. 드디어, 오전 6시 20분. 정확히 15시간 만에 아홉 명 모두 무사히 도착했다. 마지막 절을 나는 사리탑 부처님을 향해 했다. "감사합니다." 아무 장애 없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봉정암에서 제공하는 뜨끈한 미역국으로 저녁을 먹고 저녁예불도 하지 못한 채 모두 방에 쓰러지듯 누웠다. 뜨끈한 방에 몸을 뉘였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전날 백담사에서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서 푹, 자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잠이 오지 않는지 곁에서 크고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도반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를 지켜준 내 신체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보냈다. 새벽 세시 예불에 맞춰 간단히 세수를 하고 법당으로 올라가 기도 스님의 염불소리에 맞추어 108배를 하며 염원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미역국으로 아침을 먹고 오전 7시에 모여 사리탑에서 감사의 회향식을 가졌다. 내려오는 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설악산의 풍경을 감상했다. 저 멀리 여명의 태양빛에 의해 금빛으로 드러나는 산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힘든 것을 해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여유로움과 감사함, 어쩌면 우리는 이 감사함이 삶에서 절대적인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길을 걸었는지도 모른다.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내 곁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를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편한 길을 제공하기 위해 험한 산 속에 다리를 놓고 평평한 돌로 길을 만든 고마운 손길들, 우리를 말없이 외호해주었던 자연이 나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걸었던 것은 아닐까.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치매
  죽을 때까지 걸리지 않는 방법
- 불면증에서 벗어나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11.22~2017.1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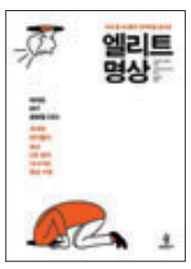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화의비밀	자현	(주)조계종출판사
2	오직한생각	종범스님	한생각
3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4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5	아름다운인생은얼굴에남는다(원철스님산문집)	원철	불광출판사
6	봉암사의큰웃음(향곡큰스님일화)	법념/서주	답게
7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8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티베트마음수련법로종	따렉깝괸	담앤북스



명상이 서양 엘리트들에게 주목받는 이유는?

엘리트명상

가와카미 젠류 지음 | 유은경 옮김
불광 펴냄 | 1만 3천원



일본 교토에 있는 선종 사찰 묘신지(妙心寺) 슌코인(春光院)에는 명상 체험을 위해 매년 5천여 명의 서양인들이 방문한다. 주로 하버드, MIT, 와튼 스쿨 등 세계 명문대학 학생들과 글로벌 기업의 CEO 등 소위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서양 엘리트들은 무엇을 위해 먼 거리의 일본 구석진 사찰까지 날아와 명상을 체험하는 것일까? 〈엘리트 명상〉의 저자이자 명상 교실을 주관한 가와카미 젠류(川上全龍, 38) 스님은 이런 현상을 "새로운 가치관을 명상서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가와카미 젠류 스님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서 종교학을 배우고 일본으로 돌아와 10여 년째 서양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명상 수업을 시작한 초기에는 단순히 명상을 체험하려고 왔지만, 최근에는 자신들의 비즈니스와 관심 분야에 명상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을 스님은 서양의 가치관이 한계에 이른 데서 찾고 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실용주의가 바탕인 기존의 서양 가치관만으로는 세계를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서구 사회가 절감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건 이후, 서구 시스템의 맹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공생(共生)'이 새 가치로 떠올랐다.

그동안 배금주의와 이기심으로 가득 찬 비도덕적 기업들이 저지른 악행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자성적 성찰의 결과이다. 이제 비즈니스 세계는 한 기업만의 이익이 아니라 협력사와 경쟁사,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득이 돼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도덕적 기업, 이타적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소비자와 고객 역시 이기적인 회사의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등 기업의 감시자 역할을 자처한다.

이를 간파한 서양 엘리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과 상대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新 비즈니스, 새로운 가치관에는 배려와 공감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고, 이를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명상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는 명상을 연구하는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큰 뒷받침을 한다.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이 명상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낸 셈으로, 명상이 종교적 수행을 넘어 과학적인 뇌 트레이닝법으로 설득력을 얻게 된 것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명상의 시대로 진입했다. 명상은 이미 비즈니스를 포함해 교육과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 〈엘리트 명상〉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 함께 가와카미 젠류 스님의 명상 수행을 바탕으로 내 안에 잠재된 공감 능력을 끌어내는 법, 지금 세계의 엘리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미래를 나가려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명상, 공감 능력과 이타심 끌어내는 최고의 방법
저자 사찰서 매년 서양 엘리트 대상 명상교실 열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어 인기
명상열풍 새 가치관 명상서 발견한 원인 때문 진단
명상은 과학적인 감정 관찰 트레이닝… 생활화 목적

세계금융위기 사건을 계기로 서구 비즈니스 업계 변화의 중심에는 '이타심'이라는 키워드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이타심을 끌어낼 방법의 하나로 그들은 '명상'을 주목했고, 이제 성공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현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의 보급과 '사회적 기업가'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상이 이타심을 끌어내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걸까? 명상을 연구하는 학자와 수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명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명상을 통한 자기 성찰은 내면의 관찰서 비롯된다. 나의 언행, 행동을 하나하나 살피고 알아차리는 연습이 명상의 시작이다. 이를 통해 주변 관계를 살피는 단계로 확장케 되고, 이 것이 익숙해지면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향상 된다. 공감한다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이타심과 연결된다. 명상은 자기 성찰, 타인의 이해, 이타심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선순환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많은 과학적 연구와 통계로 속속 증명된다. 이는 삶의 질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

서양의 엘리트들은 이점을 가장 주목한다. 미래 비즈니스는 서로를 공감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타심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로 흘러간다. 이타심 속에서 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기실현과 노동이야말로 성과를 이루는 원천이 된다고 믿던 가치관이 흔들리는 가운데, 탈출 방법으로 명상이 떠오른 이유이다.

저자 가와카미 스님은 명상의 핵심을 '자세와 호흡'이라 말한다. 굳이 어렵게 결가부좌를 틀고 앉는 전통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바닥에 앉든, 의자에 앉든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다. 허리를 굽혀선 안 된다. 새우등처럼 허리가 굽으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면 그다음에는 호흡에 집중한다.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를 가와카미 스님은 '조신(調身, 바른 자세)' '조식(調息, 호흡의 조절)' '조심(調心, 마음의 제어)'의 세 단계로 설명한다. 바른 자세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완화된다고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를 습관화시키는 데 있다. 명상은 어떠한 신비한 경지에 도달키 위해 하는 수련이 아니라고 가와카미 스님은 힘주어 강조한다. 명상의 의미는 습관화에 있다. 짧은 시간이라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상이 습관이 되면 어느 때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 명상의 과정 중 하나인 호흡법을 익히게 되면 얕고 미묘한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도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때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되,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제3자화시켜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인지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인지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타인을 배려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타적 인간이 된다. 이 메커니즘을 극대화해 이타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다. 서양의 엘리트들은 이를 통해 기업과 단체, 개인과 사원들의 잠재된 공감 능력과 이타심을 끌어낸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가와카미 젠류**은?
묘신지(妙心寺) 슌코인(春光院) 부주지이며 마음챙김 명상 강사이다. 2004년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슌코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어 좌선회 시작했다. 2008년 '(재)미일(美日)리더십 프로그램' 멤버 가입했으며, 2012년부터 도요타자동차 사원연수 강사, 현재 하버드, MIT 등 비즈니스 스쿨 학생, 글로벌 기업 CEO를 포함 연간 5,000여 명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참불자 길 제시한 시대의 죽비소리

붓다께서 가리킨 길

서경수 지음 | 김현준 엮음 | 효림 펴냄 | 6천원



30여 년 전에 크게 활동한 저명 불교학자요 대승불교운동가인 혜안 서경수 교수(1986년 작고)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서경수 교수가 인도 네루대 교환교수 재직 시절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과, 달마·혜능·혜월·만공 등 선사들의 자기 성찰 일화, 부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경전들을 인용해 이 땅의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가르침을 담았다. 비록 불자가 아니더라도 동서양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로 진리를 전한 서경수 교수의 지혜를 빌린다면, 삶과 마음을 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혜안 서경수 교수의 입적 31기를 맞아 〈붓다께서 가리킨 길〉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서경수 교수의 2만 매가 넘는 주옥같은 글 가운데 이 시대의 불자들이 꼭 새겼으면 하는 내용을 선별해 2014년 월간 〈법공양〉에 8회 동안 연재한 글들을 새롭게 편집해 한 권으로 발간한 책이다.

서경수 교수의 〈붓다께서 가리킨 길〉은 바깥소리에 묻혀 자기 소리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나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고 참된 불자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 시대의 죽비 소리와도 같다. 어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 집착이 없는 본래 자리에 대한 탐구 등을 통해, 현재 삶을 점검하고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교시하신 법과 함께 교훈을 주는 일화와 체험담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생과 함께 나아가야 할 불교의 방향과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판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으며, 나의 진면목을 찾고 이기적인 나를 비울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자유가 모든 이들에게 널리 널리 퍼져나감을 일깨워주고 있다.

제 1장 〈삶과 불교〉에서는 진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어찌 살고 있는가'라는 실존적 질문을 제기해 현재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청중에게 해골을 보여주며 중생이란 시시각각 죽어가는 존재임을 깨우쳐주는 '히말라야 도인의 법문'은 당장 내일 죽더라도 후회됨이 없을 만큼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또한 오늘 여기에서 전력투구하며 나를 올바로 사랑하는 법, 나의 진면목을 찾는 수행법을 통하여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본래 자리를 찾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 2장 〈대승과 보살〉에서는 '나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이다'라는 말씀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을 교시한 사회개혁가로서의 부처님, 최초의 경전 〈아함경〉과 대승경전인 〈반야경〉서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가리킨 '길'을 좇아가 본다. '나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나의 행위'라는 현실적인 윤리와 논리 의식을 일깨우고 계급의 벽을 타파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나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보살의 길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세 가지 보살의 길인 지혜와 자비와 보시가 무엇이며, 이 세 가지를 실천에 옮겨 참된 보살이 되는 법을 현대에 맞는 언어로 이야기한다.

2014년 월간 〈법공양〉 연재한 글
부처님 가르침 일화와 체험담 소개

제 3장 〈세속이냐 열반이냐〉에서는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녹야원 초전법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살이 있어야 할 곳이 중생이 고통받는 현장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그리고 중생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착 없는 무주상 보시와 자비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긴다. 아울러 불교의 숭고한 자기희생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저항 정신이 자비로 생동하는 불교의 머물 곳임을 환하게 밝혀준다.

김주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1-12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A5양장/396쪽/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A5양장/504쪽/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A5양장/396쪽/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A5양장/424쪽/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A5양장/416쪽/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A5양장/348쪽/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A5양장/300쪽/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A5양장/326쪽/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A5양장/388쪽/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A5양장/376쪽/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A5양장/376쪽/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학술연찬회
주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일시: 11월 18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권석만 외 집필/신국판양장/416쪽/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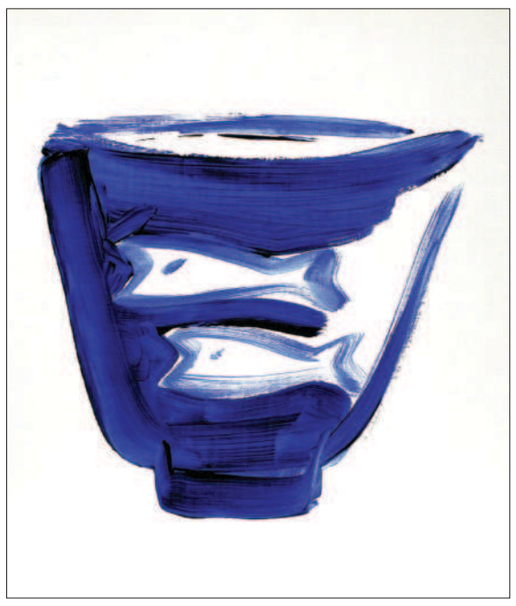
물질적 소유는 행복의 충분조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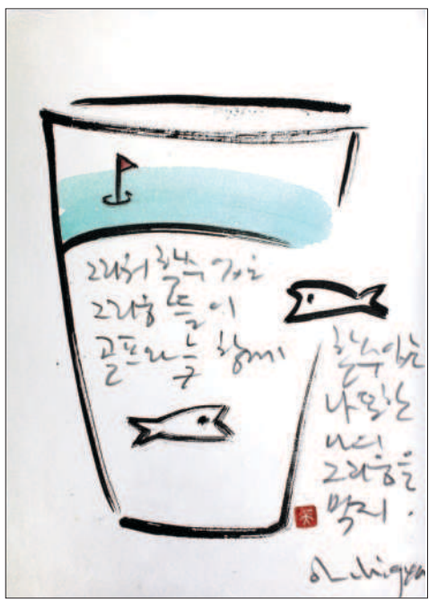
물신주의와 배금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소유는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열쇠인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에서 바라본 소유의 본질과 전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성찰!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프로포즈1(한지에 먹, 석채)


대화(캔버스에 석채)


그리워 골프(캔버스에 먹, 연필)

보이지 않는 곳 채운 무형의 이야기

오치규 개인전 '餘白의 마음으로 다가溫'
12월 6~2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우

물고기와 여백의 美로
일상 찌든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여유 전달하고파

금강 스님 컬래버레이션
6~12일 대전 갤러리C
'내 마음 탑 하나-겨울' 도

사람들은 흔히 여백을 '비어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조금 더 적확하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백은 언제나 부담 없고 담백하다. 보이지 않는 그곳엔 나만의 못다 한 이야기, 널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모든 걸 담아도 드러나지 않는다.

먹과 여백, 그리고 물고기로 '묵상화(墨想畵)'를 그려온 오치규 작가가 개인전 '餘白(여백)의 마음으로 다가溫(온)'으로 돌아왔다. 12월 6~2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나우에서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수묵 · 아크릴 · 조형물을 중심으로 바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여유를 선물한다.

"세상은 흑백의 논리를 좋아한다. 세상은 채워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작품행위는 빈 것을 채우거나 세상을 가늠질하는 행위를 일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잃어버린 것,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완성함에 있다고 믿는다." -작가노트 中-

오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그려지지 않은 부분의 여백 이야기가 중심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과 세상 속에 숨겨진 수많은 관념들이 고유의 색으로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그리고 이런 여백을 유유히 유영하는 물고기가 등장한다. 서해바닷가 보령출신인 오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온 생명체이자 용으로 탄생하기 위해 황하 용문협곡을 거슬러 오르는 '등용문'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불교적으로는 잠 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처럼 깨어있는 수행자의 참 모습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잠시 멈추게 하고, 이내 생각하게 만든다.

오 작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꽉 찼다. 갖고 있길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한 채 힘겨워한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여백은 보는 이에게 생각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빈 곳에 다양한 생각을 담아보기도 하고, 그림에 투덜대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본다면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작화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내 마음에 탑 하나'라는 주제로 두 차례 컬래버레이션을 한 바 있는 오 작가는 스님과 함께한 작품 중 그동안 선보이지 못한 것들을 대전에서 전시한다. 12월 6~12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C에서 금강 스님과 '내 마음에 탑 하나-2017 겨울'展을 개최하며,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9회 불미전 대상, 최윤수 '보디스바하'

시상식 12월 4일… 17일까지 수상작 관람 가능

한국불교 최대 불교미술 공모전인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의 제29회 대상 수상작으로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가 선정됐다.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대회장 설정, 이하 불미전)는 총132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번 대회 대상에는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점은 회화부문 일오 스님의 '백락사극락보전아미타후불탱'과 공예부문 원천수 씨의 '사천왕범종'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 3점은 회화부문에 법인 스님의 '남장사 괘불', 조각부문 주성진 작가의 '주인공-환희', 공예부문 윤권 작가의 '법고'가 선정됐다. 이밖에도 장려상에는 △회화부문에 전진봉 작가의 '영산회상도'와 김송희 작가의 '감로탱화' △조각부문에 진귀원 작가의 '무아'와 한주영 작가의 '관세음보살마하살' △공예부문에 송성욱 작가의 '천불함'과 박봉현 씨의 '사리함'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은 회화분야 김호준 작가의 '개인불감', 이지선 작가의 '수월관음도'가 선정됐으며, 특선 5점, 입선 19점이 뽑혔다.


대상 수상작 최윤수 '보디스바하'

대상작인 최윤수 작가의 '보디스바하'는 석조각으로 목어 형태의 물고기 아래 운판과 범종 형태를 빌려 독자적 조형성을 품어낸 작품이다.

한편, 제29회 불미전 시상식은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수상작품은 시상식 이후 17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詩 · 畵로 전하는 마음 이야기

김양수 화가, 12월 6일까지 한국미술센터서 시화전

하늘과 달, 산과 바다, 들판의 풀꽃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시사한다. 김양수 작가는 이 같은 사색과 깨달음들을 화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지자(知者)들은 그의 작품을 '시보다 더 시 같은 그림'이라고 평한다.

오는 12월 6일까지 한국미술센터서 개최되는 시화전에서는 작가의 일상적 깨달음이 담긴 단시(短詩)와 그림들이 어우러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사진〉 시화전은 김 작가의 4번째 시화집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시화집에 수록된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 작가의 시와 그림 속에서는 자연 속에 살아가며 갖게 된 아름다움과 놀라움 등이 배어난다. 성찰과 깨달음은 그에게는 일상이기도 하다. 작업실 '적염산방(寂拈山房)'에서 고요함을 벗 삼아 살아가며 얻은 성찰이 시와 그림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새벽별에 꽃을 전하거나, 무심으로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김 작가는 "나와 내 그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말 몇 마디와 글 몇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과 소통하며 일체가 되길 꿈꾼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찬불동요 '풍경소리 45집' 발표

서근영 작곡가 '아침 서곡' 등 8곡 수록

좋은벗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앨범 '풍경소리 45집'〈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는 새로운 작곡가 서근영 씨(금강선원합창단 지휘)의 '아침 서곡'을 수록했으며, 1990년대 초 작곡돼 찬불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풍경소리 대표곡 '길 떠나자(이종만 작곡)'를 경쾌한 리듬으로 리메이크한 편곡이 담겼다. 또한 한국창작동요계 거장 김남삼 작곡가의 '네비게이션 스님이 되어주세요', 안상민 작사가와 이종만 작곡가의 '저를 맡깁니다'를 비롯해 풍경소리 구성원들의 '날씨' '우리절 장독대' '가을잔치'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을 선보인다.

좋은벗풍경소리 측은 "곡의 경쾌함으로 재미를, 장엄한 찬불가의 느낌으로 깊이를 담아내며 앨범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다"며 "곡들이 포교일선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풍경소리 찬불동요 창작곡집은 1996년 1집 발표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 불교학교를 위해 발표해온 좋은벗풍경소리 작품집이다. 이 음반은 전국단위 연수회 및 강습회 교재로 활용되며, 어린이법회 · 불교학교 찬불가 교재와 산사음악회 등에서도 사용된다. 윤호섭 기자



중국 대륙에 핀 한국불교미술

'동·고·락' 12월 1~4일 절강성 전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미술전공인들의 모임 '동 · 고 · 락(東 · 苦 · 樂)'이 중국에서 불교미술을 선보인다.

'동 · 고 · 락'(회장 김인기)은 12월 1~4일 중국 절강성 가선현 오진문화원에서 제7회 '대륙의 여정'이라는 부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는 한국불교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중간의 민간교류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청원스님과 명천 스님을 비롯한 30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불교미술 공예품과 동양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중국 절강성 오진문화원 중국작가도 참여한다.

김인기 회장은 "예술작품 전시교류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낳는 소통의 현장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동고락 전시는 한중간의 민간교류에 앞장서는 작은 외교관으로서 더욱 각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2018년 3월에 의령문화촌갤러리에서도 이어진다.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꺼지지 않는 法燈 간직한 승보사찰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㉒ 엔랴쿠지

나라, 교토 그리고 시가현에 있는 사찰을 소개해왔지만 기사가 나오기 전에 몇 번이나 등장한 사찰이 아마 엔랴쿠지(延曆寺)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엔 드디어 엔랴쿠지의 차례가 돌아왔다.

내가 이 연재 원고를 쓰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등장인물에 대해서다. 한국의 독자 분들이 낯선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본 사찰, 나아가서는 일본 역사를 더 깊이 알려주려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이 연재에서 일부러 등장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

도지(東寺)를 소개한 기사에서 등장한 명승 구카이(空海)와 대칭으로 자주 나오는 이름이 엔랴쿠지를 창건한 명승 사이초(最澄)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이어서 일본 사람이라면 역사에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유명한 스님이다.

도지 기사에서 말했듯이 8세기 말에 간무(桓武) 천황이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천도했는데 천도 배경에는 정치적인 권력이 비대해진 기존 나라(奈良)의 불교 세력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는 생각이 있었다.

천황이 기존 불교 세력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라 사찰을 교토로 옮기지 않고 새로운 사찰을 만들려고 했다. 마침 그 때 등장한 사람이 사이초와 구카이였다. 두 분이 먼저 나라에서 공부한 후 산속에서 수행을 쌓고, 견당선을 타고 804년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각기 천태종, 진언종을 배웠다. 귀국한 후에는 천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이초는 천태종 사찰 엔랴쿠지, 구카이는 진언종 사찰 도지를 개창했다.

일본 천태종에 전하는 밀교를 태밀(台密)이라고 부르고, 도지를 본산으로 하는 진언 밀교를 도밀(東密)이라고 한다. 원래 천태종과 밀교는 다른 것이지만 사이초의 사상 자체가 밀교적이라서 사이초의 천태 교학에 대한 이해는 그의 밀교 세계관과도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경향을 사이초의 후계자들이 더 증폭시켰다. 밀교를 결합시킨 천태종은 진언종과 함께 귀족 사회의 지지를 받아 발전했다. 토착화시켜 일본화 된 밀교가 일본에서 이렇게 시작되었고, 중국이나 한반도와 다른 일본화 된 불교가 발전했다. 일본 역사 특히 헤이안 시대는 두 스님, 두 사찰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사이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엔랴쿠지는 비와호 서남쪽에 위치한 히에이잔(比叡山) 산 속에 있다. 사이초는 767년에 히에이잔 기슭, 비와호 가까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도래인계 씨족이라고 전한다. 12세 때 절에 들어가 14세 때 득도 수계해, 사이초(最澄)라는 법명을 받았다. 19세 때 도다이지 계단원에서 구족계를 받고 국가 공인 승려가 되었다. 어린 시절의 이력만 보더라도 그가 엘리트이고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이초는 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히에이잔에서 수행과 정진하였다. 그리고 천태종 가르침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788년엔 약사여래상을 본존으로 하는 일승지관원(一乘止觀院)을 지었다. 그것이 바로 엔랴쿠지 핵심 건물인 근본중당(根本中堂)의 시작이다. 그 때 불상 앞에 놓은 등불이 1200년을 넘어서도 여전히 켜져 있어 '불멸(不滅)의 법등(法燈)' 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대표 고승 중 한 명인 사이초의 묘가 있는 정토원. 엔랴쿠지만의 수행 '12년농산행'이 여기서 진행된다.

니치렌 등 日 주요 고승들 배출
'불교의 정치화' 란 어둔 과거도
'千日回峰行' 이란 고행으로 유명
16세기 후반부터 51명만 성공해

사이초가 몰두한 천태 법문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그의 강연을 통해서 그 우수한 내용이 알려졌다. 천황의 인정을 받은 사이초는 804년에 국비 유학승으로 당나라에 유학했다. 당나라 체류 기간이 9개월에 불과했지만 천태종을 비롯해 선종, 밀교 등 다양한 법문 전수를 받은 것이 오늘날 '일본 불교의 모산(母山)' 이라고 불리는 엔랴쿠지의 기초가 되었다. 귀국한 후, 806년 조정의 인가를 받고 일본 천태종이 개종되었다.

사이초는 훌륭한 승려를 양성하기 위해 히에이잔에 대승계단(大乘戒壇)을 만들었다. 대승계를 받은 후, 산에서 12년간 수행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 곳에 상주했다. 그러나 나라의 기존 불교계는 심하게 반대했다. 출가와 재가 구별 없이 줄 수 있는 대승계는 구족계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존 불교계 승려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822년 그가 입적한 후에서야 사이초의 소원은 칙허로 내려져 마침내 이루어졌다. 다음 해엔 연호인 엔랴쿠를 딴 엔랴쿠지라는 칙액을 하사받고 사찰 이름이 엔랴쿠지가 되었다. 866년엔 '전교대사(傳敎大師)' 라는 칭호가 추증되었다.

명승을 배출한 엔랴쿠지

일본 불교의 요람인 엔랴쿠지에서 일본 불교사상의 중요한 명승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사이초의 제자이자 천태종의 기초를 만든 엔닌(円仁, 794~864), 지난 회에서 소개한 미이데라를 재흥시키고 천태종을 한층 더 발전시킨 엔친(円珍, 814~891), 엔랴쿠지를 중흥시킨 료겐(良源, 912~985). 염불로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본 정토 신앙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겐신(源信, 942~1017). 임제종(臨濟宗)의 에이사이(榮西, 1141~1215), 조동종(曹洞宗)의 도겐(道元, 1200~1253), 정토종(淨土宗)의 호넨(法然, 1133~1212),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신란(親鸞, 1173~1262), 일련종(日蓮宗)의 니치렌(日蓮, 1222~1282) 등 일본 불교의 중요한 종파를 개창한 스님들이 엔랴쿠지에서 많이 나왔다. 엔랴쿠지는 사찰 규모도 크고 불상, 불화를 비롯한 문화재도 많이 갖고 있지만 엔랴쿠지의 가장 귀중한 보물은 역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초가 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에 '가장 큰 재산은 인물' 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국보는 무엇인가. 국보는 즉 도심(道心)이고, 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국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라고 해도 표면적이고 형태만 갖고 있다면 국보가 아니다. 도심을 갖는 진정한 국보라면 비록 한구석에 있어도 천리(千里)를 비출 수 있다."

엔랴쿠지 역사는 빛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10세기에 귀족을 받아들이고 고승으로 대접을 해서, 기진을 받는 것이 관례화 되었다. 이런 식으로 힘을 갖게 된 대표적인 사찰이 고후쿠지와 엔랴쿠지였다. 세력이 강해지면 어두운 점도 생긴다. 엔랴쿠지 승병(僧兵)들이 천태종 분파(分派)나 다른 종파의 사찰을 공격했다. 하쿠사이지 기사에서 말했듯이 엔랴쿠지는 16세기에 오다 노부나가에 저항한 다이묘와 친교가 깊어서 사찰이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불타버렸다. 정치적인 것까지 많이 관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도 역사의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명승들이 배출되고 지금도 일본을 대표하는 사찰이라는 것을 엔랴쿠지를 찾아가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수행

엔랴쿠지는 또 다양한 수행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센니치카이호교(千日回峰行)' 와 '12넨로잔교(12年籠山行)' 라는 엄격한 수행이며 수행을 달성하면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다. 천일회봉행은 그 이름대로 천일에 걸쳐 히에이잔을 돌면서 정해진 많은 예배 장소에서 예배하는 수행이다. 수행승이 7년간 1000일에 걸쳐 답파(踏破)하는 거리는 지구 한 바퀴에 상당하는 약 4만km에 달한다. 올해 9월 천일회봉행을 달성한 40대 승려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달성한 승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1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51명이 천일회봉행을 회향했다.

천일회봉행이 동적인 수행이라고 하면 12년농산행은 정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12년농산행은 사이초의 묘가 있는 정토원(淨土院)에서 진행된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1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이초 초상화 앞에 공양을 올리고 엄격히 정해진 근행(勤行)을 한다. 정토원 안팎에의 청소도 철저히 해야 되고 그 엄격함이 청소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다. 에도시대 이후 117명 중 81명이 달성했는데 도중에서 병으로 죽은 승려가 적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엔랴쿠지에서는 또 일반인도 좌선, 사경(寫經) 등을 할 수 있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엔랴쿠지 답사 안내

히에이잔 엔랴쿠지는 히에이잔에 있는 경내 약 500헥타르에 점재하는 약 150개 당탑의 총칭이다. 당탑이 주로 도도(東塔), 사이토(西塔), 요카와(橫川) 3곳에 나눠져 있는데 넓어서 자동차나 셔틀버스로 이동하게 된다. 셔틀버스는 12월 초부터 3월 하순까지 운휴함으로써 겨울에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는 어렵다.

대중교통으로 엔랴쿠지에 갈 방법이 3가지가 있다. JR교토역에서 버스 이용. 에이잔 전철 야세히에이잔구치(八瀨比叡山口)역에서 내리고 케이블카 이용. 시가현 게이한 사카모토(坂本)역에서 내리고 15분 정도 걸어가서 케이블을 타면 도도 지역 가까이에 도착한다.

도도 지역엔 엔랴쿠지 핵심 건물인 근본중당이 있다. 작년부터 약 10년간이 걸릴 대수리가 시작되어 건물 외관을 제대로 볼 수는 없지만 안에 들어가 배관할 수 있다. 도도에 있는 국보전에서는 엔랴쿠지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사이초의 묘가 있는 정토원은 사이토 지역에 있다. 요카와 지역에는 엔닌 스님에 의하여 9세기 중반에 개창된 요카와중당(橫川中堂)이 있다. 현재 건물은 20세기 후반에 재흥된 것이다. 일반 안내서에 거의 안 나오지만 엔닌은 신라와 깊은 인연이 있는 스님이다. 그는 838년에 당나라에 갔는데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려고 했으나 못 했다. 그 때 장보고가 창건한 산동성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에 묵었던 엔닌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장보고였다. 덕분에 엔닌이 약 10년간에 걸친 구법(求法)의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요카와중당 옆에 있는 적산궁(赤山宮)엔 신라명신(新羅明神)이 모셔져 있다. 또, 도도 지역에 있는 무수루(文殊樓) 옆에는 장보고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가 있다.

마지막으로, 3곳이 다 숲속에 있어 조망이 좋지 않다. 하지만 사이토 지역과 요카와 지역 사이에 있는 미네미치(峰道)는 조망이 좋고 비와호가 잘 보인다(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음). 식당과 매점도 있다.

불교도서, 명상음반,
불교용품 전문
운주사

미아리고개
• 성신여대
아리랑고개
• 4호선 성신여대입구 3번출구
동일하이빌 지하1층 운주사
• 성북구청
www.unjusa.com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Tel. 02-3672-7181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대진산업 010-2628-9944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한때

다가오는 것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뜨거운 것들로 가득했고, 출렁이는 것들로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문득 길을 걷다 생각하니 아득히 멀어진 것들이었다. 길에서 만난 마른 나뭇가지가 말한다. 모두 한때라고. 빈 나뭇가지 사이로 풍경소리 들려온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㉓ 10대 제자들의 신통력

부처님 수제자는 모두 신통제일

아난존자가 부처님 수제자 몇 사람에게 신통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신통력은 중생을 건지는 목적에만 써야 할 것입니다. 존자님들이 어떤 신통력을 지니셨나요?"

신통제일 목건련존자가 삼매에서 깨어나면서 먼저 나섰습니다. "나의 신통력에 대해서 말하지요.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사자같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요."

존자 목건련은 하나의 대천세계를 들어, 자기 입안에 넣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큰 세계를 입에 넣고도 나는 조금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천세계의 사람들도 목건련의 입안에 있다는 걸 몰랐지요. 농부들은 농사를 잘 짓고 곡식이 잘들 자랐습니다. 숲과 과일이 잘 자랐지요."

존자 목건련이 말을 이었습니다. "입 안에 수미산을 넣고 1겁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미산의 중생 누구나 자기가 목건련의 입안에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지요. 아기들은 잘 크고, 아기 코끼리도, 망아지도, 송아지도 그 세계에서 잘 자랐습니다."

목건련의 신통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혜뿐만 아니지요.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그 부처님 앞에서 사자 같은 목소리로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요."

존자 사리불은 입었던 가사를 벗어서 땅에 두고 신통력으로 무게를 겯들였다 합니다. 그리고 "힘센 사람은 이 가사를 들어보세요"라고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 가사 하나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차 영차!" 끌어보았지만 가사는 꿈쩍을 않았습니다.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수미산을 들어 입안에 넣었다는 저 목건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그 가벼워 보이는 법복 하나를 들지 못했지요."

존자 목건련이, 그때 그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며 벙긋 웃었습니다. 사리불의 신통력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타제일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두타행에서만 뛰어난 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부처님 앞에서 사자 같은 목소리로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요."

존자 대가섭이 삼천대천세계의 수미산을 모두 입으로 후우, 불어서 부수어 흩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곳 중생들은 '지금 수미산이 부서지고 있군, 내가 날고 있군' 하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미산이 날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세상에는 꽃도 잘 피고, 새도 고운 목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존자 가섭이 말을 이었습니다. 대천세계의 모든 바다와, 모든 강과, 모든 호수의 물을 한꺼번에 들이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림 · 강병호

"그래도 내 배는 조금도 불룩해지지 않았지요. 바다와 호수와 강물이 모두 말랐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맑은 물을 마시고, 더 맑은 물로 밥을 지었으니까요. 물이 없는 그 세계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물오리들은 물 위를 헤엄치고 다녔지요.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도, 모두 물이 없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가섭의 신통력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나섰습니다. "내가 설법에만 뛰어난 건 아닙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나는, 부처님 앞에서 사자같을 목소리로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요."

존자 부루나는 교화할 중생이 있을 때 하나의 대천세계를 손에 쥐고 주물러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천세계 아무도 "누가 세상을 주무르고 있군"하고 느끼지 않았다 합니다.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합니다. 교화할 중생의 눈에만 그것이 보였습니다. 대천세계를 한쪽 손으로 잡아돌리기도 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존자 부루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대천세계의 물을 하나의 콩알만한 구슬로 만들어 내 손가락 마디 사이에 끼웠지요. 그러나 바닷가, 호숫가, 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부루나의 신통력도 놀라운 것이 었습니다. 그때에 밀행제일 라후라존자가 나섰습니다. "나는 밀행에만 뛰어난 게 아니지요. 나는 기억합니다. 어느 생, 어느 부처님 때에 나는, 부처님 앞에서 사자같을 목소리로 여쭙고 신통력을 보여드린 일이 있지요."

그때에 존자 라후라는, 대천세계의 모든 산을 자기 몸의 작은 털구멍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살던 사람은 다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털구멍 속에 들어 있다' 하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요. 털구멍에 대천세계를 넣은 내 몸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존자 라후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대천세계의 바다와 강과 호수를 모두 하나의 털구멍에 넣었지요. 내 몸은 다친 데가 없고, 중생들도 편안하기만 했습니다." 라후라의 신통력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수제자 몇 분의 신통력 자랑이었습니다. 신통제일이 목건련만은 아니지요. 십대제자 모두를 신통제일이라 불러야겠어요.

〈법원주림 28권 각통부(角通部)〉

불기 2562 무술년 불교달력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로 주문하십시오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최고의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과 동시에 신속한 납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4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4



야생화(小)



행복한 세상(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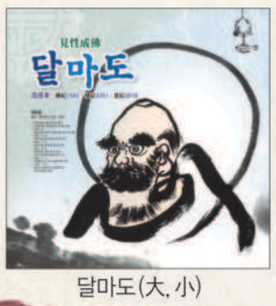
선화의 향기(大, 小)



선으로 가는 길(大, 小)



천진불(大,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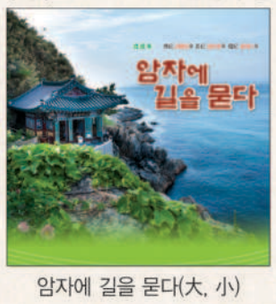
달마도(大, 小)



붓다의 향기(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암자에 길을 묻다(大, 小)



관음도(大, 小)



그리운 금수강산(大, 小)



밝고 향기롭게(大, 小)



부모은중경(大, 小)

☎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 신문사]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의 열쇠

※ 전국 유명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조계종 출판사

깨달음의 재발견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해탈 · 열반을 증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책은 도발적이지만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초기 경전으로부터 전제와 과정, 그 경지에 대한 단초를 찾아내고, 현대 실천자들의 증언을 통해 깨달음에 대해 유추한다. 일본 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깨달음' 에 관해 고민하게 된다.

불화의 비밀

한국 전통미술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불화. 이 책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불화의 역사와 그 조성 배경 등을 역사, 문화, 종교의 다각적 시각으로 소개한다. 또한 대표작을 선정해 불화의 거의 모든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여기에 350여 컷의 도판은 마치 불화 박물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마음챙김' 명상은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불교의 대표 수행법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이 책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챙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학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하여 현대의 우리가 안고 있는 정신적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탐색한다.



깨달음의 재발견 — 유오가와유지 저 · 이광준 옮김 / 15,000원
불화의 비밀 — 자현 저 / 30,000원
마음챙김이 만드는 뇌 혁명 — 제임스 킹스랜드 저 · 구승준 옮김 / 19,800원

불교시대사

이뭣고 수행법

이 책은 불자들이 최상승법인 참선문에 들어와 삶속에서 소원성취는 물론 다겁생래로 지어온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간화선인 "이뭣고" 수행방법을 제시 하고자 부처님의 말씀과 선지식들의 주옥같은 선문답과 법문을 내용으로 하여 제가불자들이 급변하는 현대 생활 속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착버리기

이 글은 일타 큰스님께서 생전에 들려주신 육바라밀 법문을 1. 2권으로 나누어 1권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의 장으로 묶었고, 2권은 정진, 선정, 지혜의 장으로 나누었다.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주신 주옥같은 법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글들을 모아 엮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언제 들어도 가슴에 새겨두고 믿고 따를 만하다

행복만들기

이 글은 우리들의 삶을 일깨워주신 주옥같은 법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글들을 모아 엮었다.
누구나에게 불성은 있으나 그 불성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본마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일타 큰스님께서는 누구나 쉽고 간결한 어투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뭣고 수행법 — 청운 저 / 13,000원
집착버리기 — 일연학 연구원 엮음 / 12,000원
행복만들기 — 일연학 연구원 엮음 / 12,000원

지혜의나무

마음이나 알자

마음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을 환히 다 보고 다 아는 묘각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 석가세존이 묘각의 불안으로 밝혀 놓으신 경전을 근거로 마음의 생원설에 대한 이야기로 마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유교와 기독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통찰 합니다. 수학과 숫자, 십진법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신 용호비결 1, 2, 3

『신 용호비결』은《용호비결》의 부족한 곳은 채우고, 잘못된 곳은 바로잡아 새롭게 구성된 도가전통 수련공법서이다.
신용호비결 2권은 도가 입문자를 위한 기본적인 도가道家의 수련비결을 다루고 있다.

도가 전문용어를 지양하고 보다 쉬운 문장으로 다듬으려 노력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의 대부분이 사실은 도道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영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자 한다.신 용호비결 3권에서는 경험과 실증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해독하는 방법과 부작용 없이 병의 뿌리까지 뽑아내고 온몸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건강법을 수록하고 있다.



마음이나 알자 — 천명일 저 / 15,000원
신 용호비결 1, 2 3 — 이승훈 저 / 1 · 2권 각권 18,000원, 3권 15,000원

열림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깊이 있고 절제된 문장을 통해 일상과 자연 속에 담긴 놀라운 깨달음을 전해 주는 법정 스님의 글과, 불일암을 십수 년 동안 오가며 그곳의 사계절과 소소한 풍경을 담은 최순희 할머니의 사진을 엮은 책이다. 소담한 사진과 법정 스님의 유려한 글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깨침의 순간

선승들이 초인적인 의지를 필요로 하는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으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얻었는가? 또 자신이 깨우친 바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진리를 향한 고승들의 수행과 기행은 긴장감을 자아낸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가는 선문답의 의미들은 무섭게 다가온다.

설전

『설전』은 성철과 법정이 나눈 대화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인연의 흔적들을 발굴하여 처음 책으로 엮은 것이다. '성철 불교' 의 본질을 끌어낸 법정의 지혜로운 질문과 거기에 화답하여 인간 존재와 현상의 심층을 드러내는 성철의 대답이 담겨 있으며, 성철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했던 원택의 증언이 더해져 성철과 법청 사이에 있었던 일화들과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담긴 내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 법정 맑고향기롭게(엮음) 저 / 14,000원 책읽는 섬
깨침의 순간 — 박영규 저 / 15,000원
설전 — 성철, 법정, 원택(엮음) 저 / 13,000원

대도대한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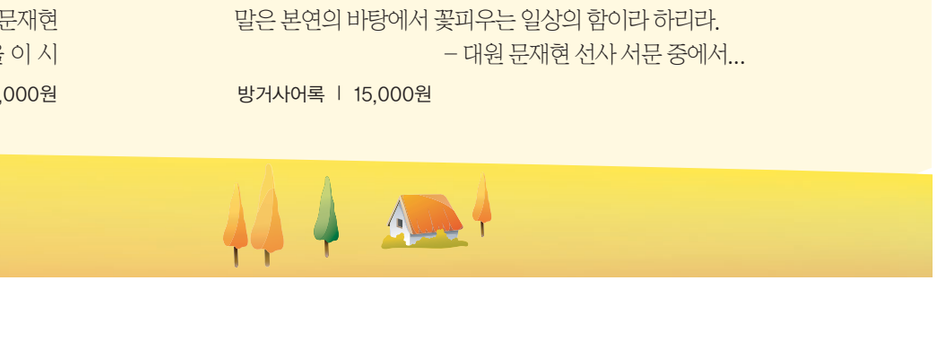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오랜 세월을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세상의 중심국으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전해주며 세상을 이끌어 왔던 대한민족이었다.
한국, 배달한국, 대조선에 이르기까지 7,0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한 국가를 이루며 이어 왔던 대한민족이 열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과연 다시 뭉쳐 새로운 통일된 나라를 건국할 시기는 언제일까.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 대광 엘리사 / 15,000원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환인 · 환웅 · 단군 이야기) — 대광 엘리사 /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 해광 하순천 / 15,000원

문젠

화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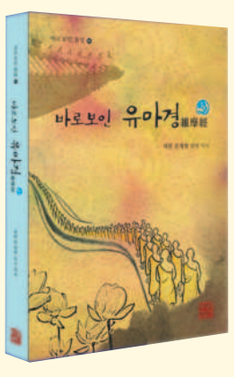
화엄경
18권까지 출간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 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 각권 15,000원

바로보인 유마경



禪의 일상, 禪의 누림!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라 할 것이니, 불보살님이 교화하는 경지에서의 깨달음의 실경과 신통자재한 방편행을 보여주는 최상승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가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유마경 | 20,000원

방거사 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방거사어록 | 15,000원